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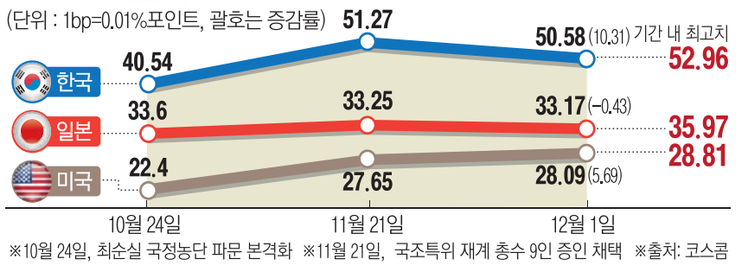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제1536호

〈Politics·정치〉

‘P의 공포’에 한국경제 신인도 흔들

CDS프리미엄 50.58bp 기록
40여일 만에 10.31%P 껑충
정국혼란으로 대외신용도 추락
“1997년 외환위기 때와 유사”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러온 ‘P(Politics·정치)의 공포’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국내 정국 혼란이 기업들의 대외신인도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동안 간신히 쌓아올렸던 브랜드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국가 부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일 현재,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 이후 최장기간 치솟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파문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10월 24일 40.54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던 CDS 프리미엄(5년물 국고채 기준)은 이달 1일 기준 50.58bp로 10.31포인트 급상승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한 지난달 21일에는 51.27bp까지 치솟는 등 정치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용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DS 프리미엄은 정부가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부도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료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부도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이 같은 CDS 프리미엄의 상승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트럼프 리스크’ 등 대내외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달러 강세 속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증시 하락, 원화가치 하락 등 ‘트리플 약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경제 환경과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은 같은 기간 0.43포인트 하락해 오히려 부도 위험이 낮아졌다. 또 트럼프 리스크의 진원지인 미국도 한국의 절반 수준인 5.69포인트 상승에 그쳐 대조된다.

따라서 대외적인 부정적 요인에다가 내부적으로는 최순실 사태라는 정국 혼란 요소가 결합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1조756억 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국가 신인도 하락은 기업들의 해외사업 분야에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 사업보고서를 기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점은 현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양상으로 흐른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슈로 대외신인도 하락에 기업들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경영 활동까지 제약을 받고 있어 내년이 그 어느 때보다 걱정된다”고 했다.

안철우·김희진 기자 acw@

〈글로벌 해운동맹〉

현대상선 ‘2M’가입 문제없다

산은 “결렬설은 언론 플레이에 불과”…임종룡 “10일께 결론”

현대상선의 2M 가입이 임박했다. 이르면 10일, 늦어도 16일 전에는 해운동맹 가입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기사 2면

KDB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2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대상선 2M 가입 여부는 이르면 10일께 결론이 날 수 있다”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일부의 플레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해운전문지 저널오브커머스(JO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현대상선의 2M 가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도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한마디로 2M 가입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2M은 세계 1·2위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와 스위스의 MSC가 이끄는 글로벌 해운동맹이다. 2M 가입은 채권단이 현대상선에 요구한 ‘회생 3대 조건’ 중 마지막 단계다. 올해 상반기 용선료 협상을 마친 현대상선은 당초 ‘디얼라이언스’ 가입을 준비했으나 여의치 않자 ‘2M’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 6월 2M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동운항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영업력 확보를 두고 막바지 세부협상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도 직접 진화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에 가입하는 협상이 10일 전후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월스트리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M 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대상선은 회사 정상화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한국의 원양 컨테이너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늦어도 16일 전에는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황윤주 기자 hyj@

누리예산·법인세 여야정, 빅딜될까

400조 예산안 오늘 처리 시한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등 막판 쟁점을 놓고 여야정 간 타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여야정은 전날에도 이들 안건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정상적인 표결이 가능할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잘 안되고 있고, 계속 평행선”이라며 “오늘도 협상이 안 되면 예산안 단독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여야 3당이 예산 확보를 위해 3년간 한시적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로부터 연간 1조 원 정도를 지원받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인상 여부도 누리과정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을 양보해주면 법인세법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 동의만 얻어내면 법인세는 동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현재 17%를 적용 중인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소한 1~2%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2000억 원 정도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소득세도 최고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정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예산안 정부 원안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표결에 들어가면 예산부수법안은 통과되고, 정부 원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야당이 독자적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수정안이 제출돼 통과되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에 포함된 법인세법은 민주당 안을, 소득세법은 국민의당 안을 채택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국민들의 꿈은…



2일 오전 출근하는 시민들 너머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라고 적힌 꿈새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용기를 전하기 위해 가수 전인권의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 가사를 교체 문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기자 foto@

中, 롯데 겨눈 사드보복…기업은 ‘한숨만’

부지제공 이유 전방위 조사 분석
세무조사·소방점검 등 동시다발
화장품·조제분유 등 규제도 강화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전방위 조사에 나서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롯데에 대한 조사가 사드 부지 제공에 따른 보복 성격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2일 상하이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세무조사와 소방·위생점검, 안전점검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조사 대상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청두(成都) 등지의 중국 내 150여 개 롯데 점포다. 아울러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등 중국 공장에도 중국 측 점검단이 나와 고강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선양(瀋陽), 청두의 롯데캐슬 모델하우스에 대해서는 폐쇄까지 요구하는 등 중국 당국의 동시다발적 전방위 조사는 롯데그룹이 중국에 진출한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드 관련 후폭풍이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업계 규범 개정안’에서 배터리 업체 인증을 위한 생산능력 기준을 40배 이상 높였는데,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1위 업체인 비야디(BYD) 정도다. 중국 현지 공장을 가동 중인 LG화학과 삼성SDI는 지난 6월 제4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 탈락 이후 진척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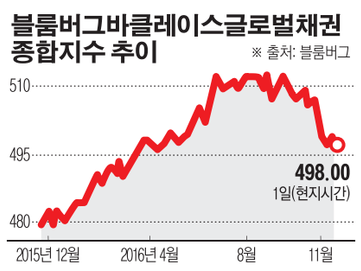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도 이달부터 중금속 함유량을 대폭 강화하는 등 까다롭게 바뀌어 한국 업체들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지난달부터 조제분유 규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업체당 평균 7~8개의 수출 브랜드를 가진 한국 업체들은 3개 이상의 브랜드를 유통하기 어렵게 됐다.

반덤핑 규제도 강화하는 추세다. 2014년 이후 중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한 해에 보통 2~3건의 반덤핑 관세를 물렸다. 하지만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된 후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를 시작했고 10월에는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POM)의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트럼프 역풍에 채권 30년 강세장 와르르?

블룸버그지수 4% 하락…최대 낙폭
채권시장 11월 한달간 11.7조 증발



무려 30년간 강세장을 누렸던 글로벌 채권시장의 전성기가 도널드 트럼프발(發) 역풍을 맞아 하루아침에 끝이 났다.

글로벌 채권시장 흐름을 추적하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글로벌채권종합지수는 지난달 4% 하락해 집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11월 한 달간 채권시장에서 사상 최대액인 1조7000억 달러(약 1990조 원)가 증발, 같은 기간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이 6350억 달러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56bp(bp=0.01%포인트) 올라 2009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날 10년물 금리는 2.44%로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채권시장의 강세장이 막을 내린 건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을 펼쳐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후퇴한 영향이 크다. 여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몇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하면 글로벌 중앙은행은 향후 국채 매입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다.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2주간 투자자들은 미국 채권 펀드에서 107억 달러를 순매도했다. 이는 2013년 긴축 발작 이후 가장 큰 유출이다.

닛코자산운용의 로저 브리지스 금리·외환 수석 글로벌 투자전략가는 “많은 투자자가 강세장이 끝나가기 시작했다고 믿는다”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내년 1월 2.7%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달 8일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어 채권시장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이슈 & 인물 ▶17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지난 여름 30도를 웃도는 열대야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은 ‘전기료 폭탄을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열린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은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안은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고 보편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합리적인 안으로 도출해야 할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 부문도 전기요금 개편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동훈 사장 ▶8


김병주 회장 ▶20


비즈 엔터 ▶18

위기의 대형엔터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구본준 '진두지휘'… '전자 원톱'엔 조성진

LG그룹 임원인사 단행

구본무 회장 경영 총괄체제는 유지
구 부회장 경영회의 주관 역할 확대
新사업 발굴·주력사업 구원투수로
전자, 1인 CEO체제로… 조성진 승진
화학, 정철동 사장 등 16명 승진 인사


구본무 LG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LG 부회장이 그룹 전반의 사업을 총괄하며 역할을 크게 확대한다.

구 부회장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 상황에서 신성장동력 사업뿐 아니라, 계열사 사업 전반을 챙기며 LG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그룹 핵심 계열사 LG전자는 '세탁기 장인' 조성진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며 위기 돌파 특명을 내렸다.

LG그룹은 1일 이사회를 거쳐 '2017년도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위기 돌파 및 지속 성장을 위해 구본무 LG 회장의 그룹 경영 총괄체제를 변동 없이 유지하면서 구 부회장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회장은 자동차 부품과 에너지 솔루션 등 신성장사업 분야를 직접 담당하던 기존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역할에서 더 나아가 주력 사업까지 담당,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제고에 나선다. 또 신사업 발굴 및 확대를 지원하는 등 사업 전반을 살피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전략보고회 등 경영회의체를 직접 주관하게 된다.

구 부회장의 역할 확대는 글로벌 저성장 기조 장기화, 대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자회사들이 사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변화와 혁신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LG 측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상사 등 주력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던 구 부회장의 경험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 회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LG 상무는 올해 인사에서 전무 승진이 유력하다고 거론됐지만, 승진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룹 관계자는 "구 상무는 승진이나 계열사 이동 등 변화 없이 ㈜LG에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며 "경영수업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주력 계열사인 LG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강한 추진력 발휘가 가능한 1인 최고경영자(CEO) 체제로 전환했다. H&A사업본부장을 맡으며 'LG 가전 신화'를 이뤄낸 조성진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해 CEO를 맡는다.

고졸로 입사해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그에게 정체된 LG전자의 재도약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조준호 MC사업본부장, 이우종 VC사업본부장, 권봉석 HE사업본부장, 최상규 한국영업본부장은 유임됐다.

조 부회장은 2015년 H&A사업본부장 취임 이후 세탁기 사업을 통해 쌓은 1등 DNA를 다른 생활가전으로 확대하며 사업본부의 체질을 바꿔 놓았다. 5대 사업부(냉장고·세탁기·에어솔루션·키친패키지·컴프&모터) 중심의 고도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안정적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LG전자 생활가전의 위상을 높였다.

조 부회장은 올해 국내를 시작으로 해외 론칭을 확대하고 있는 'LG 시그니처', 한국과 미국의 프리미엄 빌트인 시장을 겨냥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바 있다. 또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미래 사업 모델 기반도 확고히 구축했다. 특히 LG전자 생활가전사업이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내면서 조 부회장은 세탁기 박사를 넘어 '가전의 장인'으로 올라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LG화학도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총 19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LG화학은 정철동 LG디스플레이 부사장을 LG화학 정보전자소재사업본부장(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

또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해 최고기술책임자(CTO) 자리를 신설하고, 현재 기술연구원장인 유진녕 사장을 선임했다.

송영록 기자 syr@

〈해운동맹〉

또 터진 '현대상선 2M 불발설' 헛소문 진원지는 '머스크라인'?

〈세계 1위 선박회사〉

현대 "한진 몫까지 선복량 확대" 요구
2M "미주노선 예년수준 유지" 대치
세부협상일 뿐 '결렬 보도'는 억측
향후 잇속 챙기려는 '머스크' 지목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서는 현대상선의 2M 가입 결렬 보도가 계속 나오는 배경으로 세계 1위 선박회사인 머스크라인을 지목하고 있다.

해운동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동 운항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세부 운항계획을 협의한다. 각 해운사는 세부 운항계획 협의에서 노선마다 해운사의 선복량 등 조건을 결정하는데, 현대상선은 지금 이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구주 노선(유럽)의 경우 현대상선은 2M 선박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M은 유럽쪽 시장점유율이 다른 동맹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현대상선 선박을 투입하는 것보다 2M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잡음이 불거지는 부분은 미주-아시아 노선이다. 미주 노선은 지난 6월부터 대형 컨테이너선이 통과할 수 있는 파나마 새 운하가 개통돼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이 담당했던 선복량, 화주 등 한진해운의 영업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진해운의 영업력을 안고 2M에 가입하면 머스크와 MSC의 초대형 선박을 활용한 원가절감, 서비스 경쟁력 강화, 신인도 상승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M 역시 극동아시아에서 북미로 가는 노선에서 영업력 강화를 노리는 상황이다.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어 미주 노선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2M은 현대상선의 선복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원하고, 현대상선은 한진해운 몫을 요구해 선복량 확대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2M 가입이 절실한 현대상선의 입장을 2M이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상선과 2M이 서로 팽팽하게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머스크라인 등 2M 측이 해외 화주들의 불만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운업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한진 몫의 물동량을 두고 글로벌 해운사와 현대상선이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물류사태로 유럽 화주들 사이에서 국내 해운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협상 상대가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서는 현대상선의 2M 가입이 결렬되기 힘든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결렬 요건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현대상선이 2M 가입을 철회하는 것, 다른 하나는 각국의 항만청이 2M의 세부 운항계획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상선이 스스로 가입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입을 조건으로 신규 자금을 채권단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각국 항만청이 거부할 이유도 없다. 현대상선이 입항 거부를 당할 정도로 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2M 가입의 칼자루는 현대상선이 스스로 쥐고 있는 셈이다. 다만 세부 협상을 놓고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상선과 2M이 세부 운항계획에 합의하면 각국 항만청에 운항계획을 등록하고, 화주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해운동맹 출범을 알린다. 2M의 정식 운항은 2017년 4월로 예정되어 있다.

산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만청이 세부 운항계획을 거부하는 일은 없다"며 "2M 가입이 결렬되는 일은 100% 없다"고 확인했다.

황윤주 기자 hyj@

데이터 뉴스 DataNews



술집 대신 커피숍… PC방 접고 헬스장 차린다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가운데 카페와 피부관리숍은 늘어난 반면, 술집과 식료품 가게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전체 사업자는 689만9000명에 달한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약 4.4% 늘어났다.

이 가운데 4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수는 17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 증가했다. 생활밀접업종이 전체 사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로 나타났다. 업종별 사업자 수를 보면 일반음식점이 50만85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신판매업(16만2851명), 부동산중개업(10만5680명) 순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사업자 수가 늘어난 업종은 26개였고, 14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음료점 사업자는 3만6106명으로 20.1%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피부관리업(19.7%), 헬스클럽(13.9%), 편의점(11.8%), 통신판매업(11.0%)도 크게 늘었다.

반면 일반주점은 5만740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다. 아울러 식료품 가게(-5.1%), 문구점(-4.3%), PC방(-3.5%), 이발소(-2.8%) 등의 업종도 감소 폭이 컸다. 250개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의 생활밀접업종 사업자가 3만237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기 부천시(2만7417명), 서울 송파구(2만1344명) 등의 순이었다.

인구 1000명당 사업자 수는 부산 중구(115.57명)와 서울 중구(113.45명), 대구 중구(111.79명) 등 3곳이 전국에서 생활밀접업종 상권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상·하위 5개 업종
※ 출처: 통계청



압구정본점 · 무역센터점 · 목동점 · 대구점 · 천호점 · 킨텍스점 · 울산점 · 판교점 ·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 현대백화점

H by H
유러피안 감성 프리미엄 리빙 편집숍

Kitchen & Tableware | Home Deco | Bath & Fragrance | Fabric

총수 증인명단 오른 날, 대기업 부도지수도 단숨에 올랐다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재계 '최순실 게이트'에 대외신용도 추락

삼성전자 CDS 프리미엄 20% 껑충… 현대차도 100bp까지 뛰어

범죄혐의 입증땐 브랜드 가치 훼손 해외입찰 제한 등 불이익 우려

#지난 1992년 현대건설이 홍콩 '첵랍콕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에서 고배를 마신 것은 정치 리스크가 해외 사업에 지장을 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총 사업비 약 5조8625억 원의 이 프로젝트는 풍부한 교량 건설 경험과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최저가격 입찰까지 제시, 사실상 수주가 확정적이었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수주는 물거품이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루 기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한국 대기업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는 발주와 수주기업 모두 신뢰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주요 기업 총수들이 검찰과 국회에 불려 다니는 상황에서, 해외 발주기업이 이들 국내 기업에 대형 프로젝트를 선뜻 맡길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2일 코스콤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9인의 그룹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해 지불하는 일종의 보험적 성격으로, CDS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파산할 확률을 높게 본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의 CDS 프리미엄은 최순실 국정논단 파문이 본격화된 10월 24일 58.18bp를 기록한 데 이어, 국정조사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11월 21일에는 70.42bp까지 급등했다. 상승폭은 20%에 달한다.

정몽구 회장이 국정조사 특위 증인으로 채택된 현대자동차는 같은 기간 90.2bp에서 101.62bp까지 뛰었다. 최근 3개월간 현대차의 CDS프리미엄은 93.98bp 수준. 12월 1일 현재는 100bp 내외를 유지 중이다.

외풍에 취약한 '주인없는 회사' 포스코와 KT도 CDS 프리미엄이 각각 75.5→88.27bp, 62.78→75.17bp 오르며 대외신인도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밖에 △SK하이닉스(+39.4bp) △롯데쇼핑(+12.47bp) △GS칼텍스(+10.57bp)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찬조금을 낸 그룹의 주력 계열사도 같은 기간 CDS 프리미엄이 상승곡선을 그렸다. 총 773억 원의 출연과 연루된 기업들이 대가성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경우, 뇌물죄가 적용되거나 그룹 총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뇌물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횡령 배임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직접적인 오너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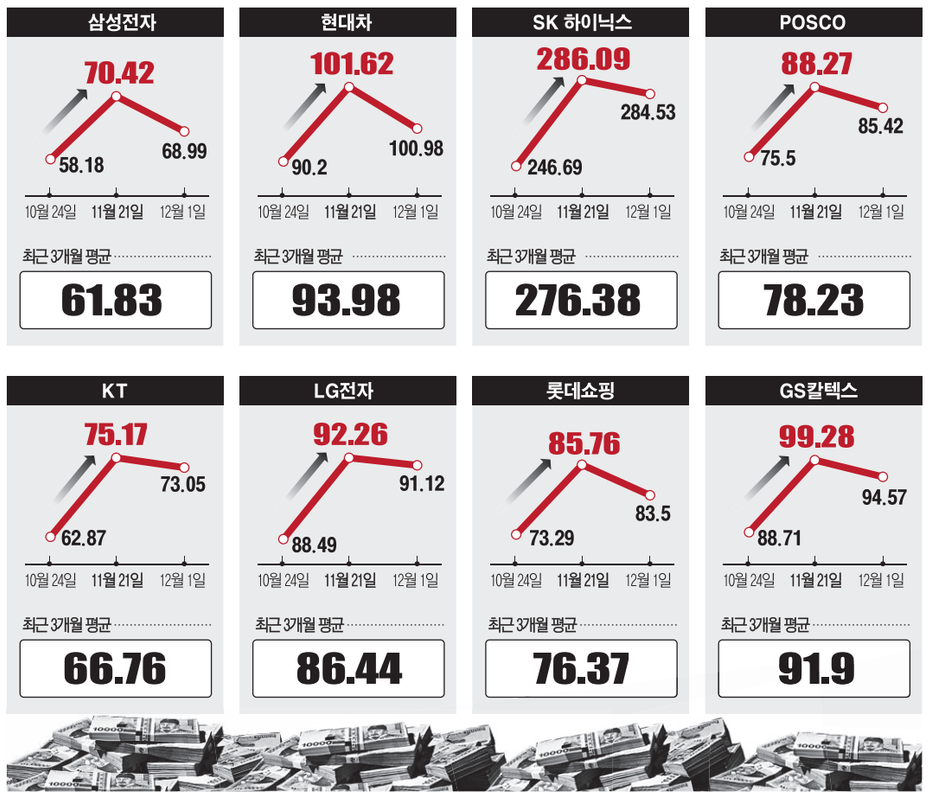
해외에선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는 34개 회원국에 공공 조달에서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기업마다 해외 바이어와 투자자로부터 회사 안위를 묻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유럽시장담당 A임원은 최근 현지 딜러(판매사)에게 검찰 조사에 따른 경영 활동 제약을 묻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해당 메일은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른 신차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면서 "최순실 사태로 그동안 쌓아 올렸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안철우·김희진 기자 acw@

최순실 게이트 연루 기업의 CDS프리미엄 추이 (단위 : 1bp=0.01%포인트)

*10월 24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본격화
*11월 21일, 국조특위 재계 총수 9인 증인 채택

※자료제공 : 코스콤



추락하는 서민경제

⑤ 폭발 직전 가계부채

저축銀, 500만원 대출 이자만 115만원 저신용자들 "그래도 갈 수 밖에…" 한숨

대출규제 풍선효과로 2금융권 몰려
20%대 고금리도 "일단 빌리고 보자"
가계·금융업계 부도 위험 동반상승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2금융권 가계부채에 적색경보가 켜졌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자 갈 곳을 잃은 서민들이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대출금은 작년 말보다 무려 5조5976억 원 증가했다. 돈 빌릴 곳이 없는 서민들이 20%가 넘는 고금리도 마다하지 않고 저축은행을 선택한 결과다.

지난 10월 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23.05%다. 500만 원을 빌렸으면 115만 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내야 한다. 같은 돈을 은행에서 빌렸다면 21만4000원(4.28%)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저축은행 주담대 평균 금리는 2014년 12월 7.43%, 작년 말 6.31%, 올해 10월에는 5.99%를 기록했다. 이 기간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순서대로 3.33%, 3.12%, 2.89%로 낮아졌다.

저축은행 이외에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도 대형사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의 금리는 올해 9월 2.94%에서 10월 3.01%로 상승했다. 교보생명은 같은 기간 3.10%에서 3.13%으로 올랐다.

문제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 상당수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것이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은 '7등급→8등급→5~6등급→9~10등급→1~4등급' 순으로 높다. 신용등급이 낮다는 것은 곧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의미다. 시중은행의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금융 부문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는 투기적 수요 억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차주들이 2금융권으로 떠밀리며 자영업자라든지 서민들이 금융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가구가 우려되는데,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질 경우 실업자가 늘거나 소득이 많이 줄어들면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리스크가 당면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책 당국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업계, 서민 모두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했다. 연체율 기준(연체 2개월 미만 '정상'→연체 1개월 미만 '정상'),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등을 강도 높게 변경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에 열린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은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내외 불안 상황에 대비해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규복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이 중소형 지역 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대형과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 등 일관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지희·박규준·남주현 기자 jhsseo@



스텝 꼬인 '탄핵'… 朴 독자행보?

비박, 내년 4월 퇴진안… 야권은 5일 탄핵 추진
박 대통령 어제 대구 방문 '반전 노리나' 분석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길을 걷고 있다. 새누리당은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야권은 '5일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제 관심은 박 대통령의 여당의 4월 퇴진 제안을 받아들이냐다. 정치적 고향인 대구 서문시장을 찾으며 지지층 결집 행보에 나선 박 대통령은 일단 여야 협상 상황을 지켜보는 관망 모드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퇴진 시점에 대해 "여야 합의된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1일 퇴진 논란 속 긴 칩거를 풀고 대구 중구의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인간적 도리' 차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이날 행보를 두고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해 반전을 노린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퇴진 일정과 절차에 대한 결정권을 국회로 넘긴 것이 '진정성'이 있었냐는 의구심을 낳게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여야가 합의해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한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서 "국회에서 한목소리로 요청하면 아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여야 합의의 퇴진 계획표는 만들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며 탄핵정국을 급반전시켰다. 당초 탄핵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비주류도 향후 정치 일정 협상에 나서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반해 탄핵안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야 3당은 국민의당의 제안으로 5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은 다시 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박 대통령이 여당의 4월 말 퇴진 요구 수용 여부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회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냐"며 "여야가 논의해 조속히 결정을 내리면 그에 따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새누리당 비주류에서도 박 대통령이 명확한 퇴진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탄핵안 가결을 막기 위해 다음 주 중 어떤 형식으로든 퇴진 시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4차 기자회견 형식이나 시기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다"면서 "형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용을 고심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야권 '탄핵촉구' 밤샘 농성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며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였다. 연합뉴스

민간 자금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제 본회의서 71개 법안 등 총 75개 안건 의결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 사모집합투자기구 상시화
리베이트 의료법 개정안·경제민주화 법안 3건 처리

앞으로 민간 자금을 활용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71개 법안 등 모두 75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증권,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등의 방법을 쓰도록 했다. 운용현황 등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했다. 특히 이 법 위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하도급법은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연차별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끝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강도 강간미수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김의중 기자 zerg@

1일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 이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민간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안
-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 긴급체포 근거 마련

가맹사업법 개정안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공개 의무화
-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연차별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끝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

'암울한 경제' 3분기 성장률 0.6%

4분기 연속 0%대… GNI도 2분기째 '–' 저성장 고착 우려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4분기째 0%대 성장에 그쳤다. 국민총소득(GNI)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6년 3분기 국민소득 잠정' 자료에 따르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2.6% 성장했다. 이는 속보치보다 각각 0.1%포인트씩 하향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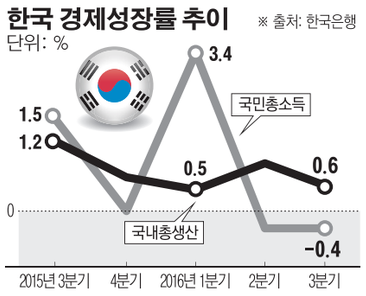
민간소비는 전기 1.0%에서 0.5%로 증가폭이 축소됐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성장했다. 정부소비는 전기 0.1%에서 1.4%로 확대됐다.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3.5% 성장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4% 증가했다.

수출은 0.6% 증가해 전기(1.1%)에 비해 축소됐지만, 수입은 2.8%로 전기(2.1%) 대비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은 전기(-0.4%) 대비 0.4% 감소했다. GNI가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교역 조건이 악화된 데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보여주는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지난해 2분기 2.7% 이후 5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2014년 4분기 0.7%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저치다.

총저축률은 전기 대비 0.1%포인트 내린 34.8%를 기록했고, 국내총투자율은 전기보다 1.2%포인트 증가한 29.9%를 기록했다.



한편, 실질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는 내수가 1.4%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중 민간소비는 0.3%포인트, 정부소비는 0.2%포인트로 집계됐다. 순수출은 -0.8%포인트를 기록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GDP의 경우 건설기성액과 서비스 수출 등 외국인의 국내소비가 줄며 속보치보다 하향됐다"며 "자동차 업계 파업으로 운송장비가 준데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등이 부진하며 제조업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내년 경제정책방향, 이달 말에나 나온다

국정공백 사태에 美금리인상 변수 커지며 발표 연기 불가피

국정공백 사태에 이어 대외 변수까지 커지면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가 예전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초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중순으로 늦춘데 이어 국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하순까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경제의 밑그림을 제시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이 이달 하순께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대외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며 "더욱이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금리인상 여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야 할 가장 큰 대외변수 요인"이라고 귀띔했다.

이달 13~14일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부 역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미국 금리인상을 고려한 대응책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아서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는 13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에 당장 영향을 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최근 은행들이 조달금리가 내려갔음에도 가산금리를 올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은행의 대표적 고정금리 상품인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금리는 최근 연 5%에 육박하고 있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금리상승 등의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부담이 단기간 내에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가계소득이 5% 정도 하락하고 금리가 1%p 상승하는 충격이 생길 때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2015년 기준으로 1140만 원에서 14% 늘어난 1300만 원이 발생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인상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파장을 줄 것이란 예상이다.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과 함께 환율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를 지켜본 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할 것이란 방침을 세우면서 올해 발표시점은 지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양창균 기자 yangck@

"OPEC 감산… 한국 수출엔 호재"

공급 과잉 해소로 유가 상승 전망
해외건설·석유제품 가격 회복 기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OPEC 회원국들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총회에서 하루 최대 생산량을 현재 3360만 배럴에서 3250만 배럴로 3.27% 낮추는 데 합의했다. OPEC이 최종 감산 합의에 이르면서 원유 공급 과잉이 상당 부분 해소돼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한국 경제에는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동,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수요가 살아나고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 화학 등 관련 산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석유화학이나 석유제품 등 유가의 영향을 받는 제품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 내외에 달한다. 지난 2014년 배럴당 평균 96.6달러에 달했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평균 50.7달러로 줄었다.

당장 정유사들은 재고평가이익을 볼 수 있다. 해양 플랜트 비중이 높은 조선사와 산유국 중심으로 해외 건설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건설사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업체들도 산유국을 중심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다.

다만, 항공·해운·물류 등의 업종은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OPEC 감산 합의와 관련해 유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1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11월 수출입동향 브리핑에서 "그동안 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 탓에 중동,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수요가 위축됐다"며 "유가 상승은 제품 단가 상승,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회복 등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8월, 2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뒤 석 달 만에 다시 플러스를 기록했다. 9월 -5.9%였던 수출 감소율 폭은 10월 -3.2%로 줄었고 11월에 증가로 반등한 것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국내 신차 실내공기질 기준, 적합해도 건강에 해롭다

獨·日 등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아

국내 신차 실내공기질 기준이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외국에 비해 신차 실내공기질 기준을 낮춘 것은 국내 자동차업계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기아·현대·르노삼성 및 한국지엠이 신규로 제작·판매한 6개 차종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6대 모두 기준에 충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일 기준에 맞춰보면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톨루엔이다. 톨루엔은 접착제나 페인트에 함유된 성분으로 과도하게 흡입하면 두통이나 구토, 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우리나라 기준치는 1000㎍/㎥이지만 독일 기준치는 200㎍/㎥다. 르노삼성이 제작·판매하는 SM6은 373.9㎍/㎥가 검출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아차 스포티지도 174.4㎍/㎥, 현대 아반떼 158.9㎍/㎥가 검출됐는데 위험 수준이다.

측정하는 방법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주행모드가 아닌 대기모드에서 신차공기질을 측정한다. 반면 ISO와 일본은 대기모드, 주차모드, 주행모드 세 가지 모드를 사용해 측정한다.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해 한 번 주행이 장시간으로 이어지는 국내 운전자의 특성상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A대학 B화학과 교수는 "국내 한 자동차기업이 신차에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추진하다 비용 문제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곽도흔 기자 sogood@

6차 촛불은 어디까지…



경찰, 내일 '분수대 앞' 금지…집행금지 신청

경찰이 3일 서울에서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의 청와대 분수대 앞 행진을 금지 통고했다. 아울러 주최측이 청와대 가까이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역시 금지했다. 촛불집회 주최측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에 맞서 법원에 집회·행진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퇴진 행동이 당일 청와대 주변에서 오후 1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7건을 금지하는 한편,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나는 행진 1건도 금지 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금지 통고된 집회 위치는 푸르메재단 앞, 새마을금고 광화문지점 앞, 효자치안센터 앞, 자하문로 16길 21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126맨션 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이다. 이는 모두 청와대와 동·서·남쪽으로 근접한 지점이다. 실제로 효자치안센터는 청와대에서 100여m, 푸르메재단은 200m가량 떨어져 있다. 경찰은 푸르메재단을 지나 청와대 분수대를 거쳐 창성동 별관 방향으로 남하하는 행진 경로 1건도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인 청와대 100m 이내 구역을 통과한다"며 금지 통고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퇴진행동은 경찰의 통고를 받은 직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울지방행정법원에 경찰의 금지통고·조건통고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정한 집회 금지구역에 청와대 분수대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청와대 울타리를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 보고 지금까지 분수대 앞 집회를 금지해 왔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지하환승센터, 잠실 교통난 잡는다

송파대로 잠실역~석촌호수교 하부 국내 첫 터미널형…내일부터 운영 버스 31대 주정차…2·8호선 연결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에 조성된 잠실광역환승센터에서 참석자들이 시승 행사를 갖고 있다. 잠실광역환승센터는 지하에서 버스의 회차가 가능한 터미널 개념의 버스~지하철간 환승시설로 3일부터 버스 운행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국내 첫 터미널형 잠실광역환승센터가 3일부터 운영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총 길이 371m, 연면적 1만9797㎡로 축구장 2.7배 크기인 잠실광역환승센터가 송파대로 잠실역~석촌호수교 하부에 완공돼 3일 아침부터 버스 운행을 시작한다. 이 환승센터 개통으로 잠실 일대 교통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30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잠실환승센터는 버스 31대가 주정차할 수 있으며, 잠실역 2·8호선 게이트와 지하1층에서 수평으로 연결돼 있다.

환승센터에는 버스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버스정차면과 승강장 사이에 스크린도어, 에어커튼 등을 설치해 매연과 이산화탄소 등의 승강장 유입을 차단했다. 잠실지하광장에서 잠실환승센터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종합안내 스크린이 설치돼 버스 운행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환승센터는 3일부터 성남·수원·광주 방향 6개 버스 노선이 우선 이전 운행되고, 내년 1월초 구리·남양주 방향 11개 노선이 추가로 이전한다. 서울시는 잠실환승센터 노선을 계속 확대하고 통근·통학버스도 검토할 계획이다.

잠실환승센터 개통으로 버스정류소에서 지하철 2호선까지 환승 거리가 최대 530m, 최소 50m 단축돼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 도로 교통량 자체가 감소할 뿐 아니라, 중앙버스전용차로 진·출입시 주행차량과 엇갈리거나 정류소 장기 정차로 인한 혼잡과 사고 위험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퇴근시간대 잠실역 주변 광역버스 승차 대기자들로 인한 보행자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잠실환승센터 이용객은 평일 평균 2만5000명(승차 1만3000명, 하차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는 잠실광역환승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국정원 댓글' 수사…'강골' 윤석열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 밝혀낼까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에 임명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다음 주 중으로 주요 인선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특검 팀에 파견되는 검사 20여 명을 총괄할 수사팀장은 윤석열(56·23기·사진) 대전고검 검사가 맡는다.

박 특검은 1일 수사팀장에 윤 부장검사를 지명하고 법무부와 대검에 파견을 요청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8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이 중 4명을 임명하게 된다.

윤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강골'로 분류되는 데다 이번 정권과 악연이 깊어 화제가 되고 있다. 엘리트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했던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 부장검사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황교안(59·13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다가 채 총장을 혼외자 파문 이유로 물러나게 했다.

이후 윤 부장검사 역시 수뇌부의 반대 의견에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가 이후 지방을 전전했다. 그는 '항명' 당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박 특검과 윤 부장검사는 2005년 대검 중수부에서 호흡을 맞춰 현대차그룹의 1000억 원대 비자금 수사를 통해 정몽구 회장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당시 박 특검이 중수부장, 최재경(54·17기)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 중수1과장으로 재직했고, 수사팀 검사로 윤 부장검사와 구본선(48·23기) 현 광주지검 차장검사, 윤대진(51·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등이 포진했다.

좌영길 기자 jyg97@

검찰 수사 마무리…'제3자 뇌물'은 특검 몫

장시호·김종·조원동 8일 기소키로 김기춘·우병우 수사도 특검팀으로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8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를 기소하고,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고려해 김 전 차관과 장 씨,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같은날 기소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장 씨는 오는 8일, 김 전 차관은 11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조 전 수석의 경우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

최대 현안이었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는 특검의 몫이 됐다. 검찰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최 씨 모녀와 장 씨에게 금전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입건 여부는 특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 등에 관한 수사도 특검팀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적용 혐의 등을 검토 중이고, 아직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박 대통령이 하야 안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



1일 오후 3시 15분께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추모관 내부가 소실된 모습이다. 뉴시스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 추모관이 전소됐다.

1일 오후 3시 15분께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박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영정이 있는 추모관이 전소되고, 추모관 옆 초가 지붕도 일부 탔다.

경찰은 현장에서 방화 용의자로 보이는 백모(48)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든지, 하야를 안 할 것이라면 자결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안 해서 방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직후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박근혜는 자결하라. 아버지 얼굴에 X칠하지 말고'란 글이 쓰여 있는 방명록도 확보했다. 백 씨는 자기가 쓴 글이 맞다고 경찰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애 기자 lsa@



녹차의 마이너스푸드 원리에서 찾은 체지방관리 솔루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똑같은 양을 먹어도, 나이가 들수록 살이 더 쉽게 붙는 건
몸 속 신진대사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의 몸 속 변화를 읽으면 필요한 솔루션이 보입니다
녹차의 마이너스푸드 원리를 연구한 메타그린,
고지방, 고열량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고 몸 속부터 건강함을 채워드립니다

안으로 건강함을 채우고 밖으로 아름다움을 완성하다
이너뷰티솔루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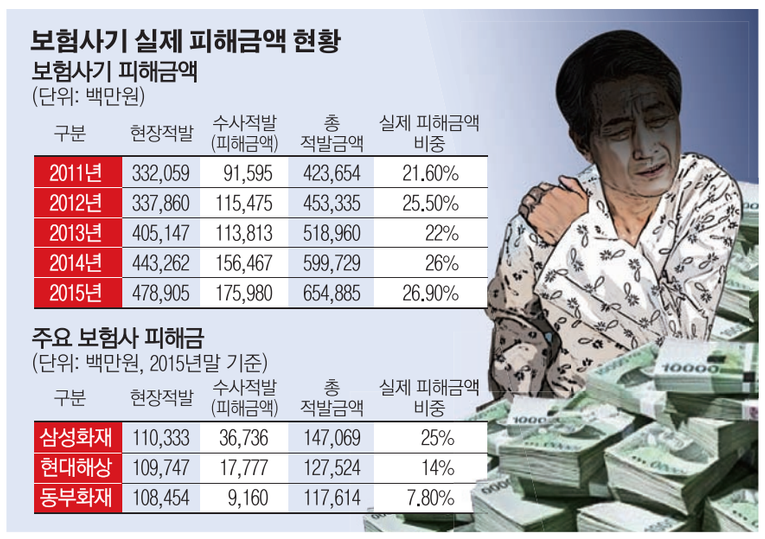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com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고객 상담 전화 : 080-023-5454

VITALBEAUTIE

보험사기 부풀리는 보험사, 왜

피해액보다 3~4배 많은 적발액만 공개… 보험료 인상 압박 '꼼수'

지난해 적발금액 6548억
실제 보험사 피해금액은
전체 20%대…1759억 불과
업계 "경각심 제고 차원"



보험사기 실제 피해금액 현황

보험사기 피해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현장적발	수사적발 (피해금액)	총 적발금액	실제 피해금액 비중
2011년	332,059	91,595	423,654	21.60%
2012년	337,860	115,475	453,335	25.50%
2013년	405,147	113,813	518,960	22%
2014년	443,262	156,467	599,729	26%
2015년	478,905	175,980	654,885	26.90%

주요 보험사 피해금
(단위: 백만원, 2015년말 기준)

구분	현장적발	수사적발 (피해금액)	총 적발금액	실제 피해금액 비중
삼성화재	110,333	36,736	147,069	25%
현대해상	109,747	17,777	127,524	14%
동부화재	108,454	9,160	117,614	7.80%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 원이다. 작년 상반기보다 12%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오름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생·손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3년 5189억 원, 2014년 5997억 원, 지난해 6549억 원이다. 2년 새 26%가량 증가했다. 금감원은 6개월마다 업계가 제공하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취합해 공개한다.

하지만 적발금액에 대한 오해가 있다. 적지 않은 금융소비자들이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보험사의 피해액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는 보험 사기와 보험사 피해에 대한 과장을 낳고 보험료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5분의 1 불과한 실제 피해금액 = 업계와 당국이 공개하는 보험사기 적발금액 가운데 보험사 실제 피해액은 20%대에 불과하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현장 적발과 수사적발로 구분된다.

현장적발은 보험사기조사팀(SIU·Special Investigation Unit) 등 내부 조사인력이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에서 사기를 발각하는 경우다. 보험사가 사전에 사기를 인지해 보험금 지급을 차단하는 만큼 보험사 피해액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수사 적발은 이미 보험금 지급을 한 뒤 경찰 수사과정에서 보험 사기임이 발각된 경우다. 보험사가 사전에 보험금 지급을 단행한 만큼 사실상 수사적발 전액은 보험사 피해액이다.

주목할 점은 실제 보험사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현장적발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2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기 현장적발·수사적발 현황'자료를 단독 입수·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6548억8500만 원) 가운데 현장적발액(4789억500만 원)은 73%를 차지했다. 보험사의 실제 피해액이랄 수 있는 수사적발금액(1759억8000만 원)은 전체 적발금액의 27%에 불과했다.

즉 보험사기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당국과 업계가 공개하는 적발금액의 4분의 1 남짓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감원 보험사기방지팀 관계자는 "적발금액이 보험사들 피해액은 아닌 것"이라며 "보험사기 현장적발 금액은 사기를 사전에 적발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만큼 보험사의 경제적 피해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피해 과장… 보험료 인상 '꼼수' =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피해액보다 평균 3~4배 많은 적발금액만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나 수치만 공개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굳이 적발금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피해액을 공개할 유인이 없다.

이는 '보험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오해와 과장을 낳고 결국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동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많은 대형 손보사들의 실제 피해액은 업계 평균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1470억6900만 원) 가운데 보험사 피해액인 수사적발 금액이 367억 원(25%)뿐이다. 현대해상은 전체 적발금액 중 수사적발 금액이 178억 원(14%), 동부화재는 92억 원(7.8%)에 불과했다.

◇실제 피액금액 공개 안 하나, 못 하나 = 보험사기 실제 피해액은 이미 업계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공개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다.

금감원과 업계 모두 같은 이유를 대고 있다. 실제 피해액만 공개하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둔해질 뿐 아니라, 보험사기 적발에 들어가는 간접적인 비용(SIU 운용·보험 사기 탐문 비용 등)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실제 보험금 지급 수치는 모든 보험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며 "보험사기 문제가 심각한데 이보다 낮은 피해액이 공개되면 그 심각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피해액 수치를 선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보험사기 피해를 과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박규준 기자 abc84@

"자살보험금 안준 보험사 CEO 옷 벗어라"

금감원,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에 징계 예정 통보
일부 영업 정지에서 대표 문책 경고·해임 권고까지 포함
문책 경고 받은 대표, 잔여 임기 채운 후 연임 불가능해
업계, 초강력 조치에 당황…내주 소명자료 검토 후 결정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생명 등 4개사에 대해 초강경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당국의 중징계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은 연임이 불가능하거나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멸시효 경과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사는 지난달 28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중징계 예정 조치를 통보받았다.

통보된 제재 수위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부과부터 일부 영업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까지 포함됐다. 임직원 제재로는 대표 문책 경고, 해임 권고 등이 포함됐다.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끝내 거부하면 해당 제재들이 현실화된다.

인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보험사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일부 영업이 정지될 시엔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거나 일부 지역 영업이 제한된다.

대표직의 경우 문책 경고를 받으면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등은 잔여 임기를 채운 뒤 연임이 불가하다. 최악의 경우엔 대표 해임 권고로, 현 CEO가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업계는 당국의 초강경 조치에 당황한 기색이다.

업계는 영업정지, 대표 해임권고 등 중징계는 그간 보험사 제재 수위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당국이 '지급만이 해결책'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대법원에서 주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제재 내용이 강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보통 보험사 제재는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었다"라며 "현장 검사를 받은 이후 징계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강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형사들이 완강히 지급 거부를 하자 지난 6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지연이자,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정확한지 등을 조사했다.

그간 금감원은 대법원이 "소멸시효 경과건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내렸지만 강경하게 지급 요구를 해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7월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보험사는 오는 8일까지 금감원에 지급 여부를 담은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재 결과에 따라 영업 금지 여부와 대표 명운이 걸린 만큼 보험사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장은 "현재 제재조치 수준 등에 관해서는 확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보험사의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은 1585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 122억 원, 한화생명은 83억 원이다.

박규준 기자 abc84@

국민행복기금, 인터넷으로 채무조정 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채무확인 및 채무조정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찾아가는 원스톱 채무조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사가 국민을 먼저 찾아가 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채무확인 및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 방법과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캠코는 지난 10월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채무확인 및 채무조정이 가능한 '인터넷 채무확인 및 채무조정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사진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

※ 이 광고에 사용한 모든 서체는 KBIZ한마음체입니다



저작권 걱정 뚝!
중소기업 전용서체 무료배포

사용하는 문서프로그램의 서체에 이용 가능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위반하여 저작권 침해로 법적조치를 받는 중소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KBIZ한마음체를 배포합니다.
저작권 고민 없이! 광고, 상표, 인쇄물, 현수막, 홈페이지 등에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BIZ한마음체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료배포하는 중소기업 전용서체
KBIZ한마음체 종류는? 고딕체, 명조체
KBIZ한마음체 사용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방문 〉 메인화면의 '무료서체 배너' 클릭 〉 다운로드 〉 설치 후 사용
KBIZ한마음체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093~4 *자세한 사용방법 및 라이선스는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KBIZ 중소기업중앙회

미래를 함께 하는 든든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써니뱅크 1주년 기념 페스티벌

12월엔 함박눈이 펑.펑!

써니뱅크엔 선물이 펑.펑!



국내 최초 비대면 실명인증,
환전 1백만건 돌파,
써니마이카 3천억원 달성,
베트남 써니마이카 1천만불 달성 등
써니뱅크는 1년 동안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그 마음,
앞으로 더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써니뱅크 1주년
행운펑펑
페스티벌

EVENT 1
출석체크하고, 개근상 받자!
써니뱅크에 출석할 때마다
쿠폰과 경품이 와르르~
(12월 1일부터 ~ 30일)

EVENT 2
생일축하하고, 케이크 받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써니뱅크
리뷰와 축하메시지를 남기면 케이크가 짠!
(12월 1일부터 ~ 20일)

EVENT 3
써니뱅크쓰고, 선물받자!
이벤트 기간 내에 써니뱅크 서비스만
이용해도 푸짐한 경품이 넝쿨째!
(12월 1일부터 ~ 20일)

※신한금융그룹 관계사들은 별도의 법적인 계약이 없는 한 상호의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주)신한은행, (주)신한생명, (주)신한금융투자는 예금보호법상 부보대상 금융기관이며 (주)신한카드는 부보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goo.gl/c7WCk2 나 써니뱅크 앱에서 확인하세요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16-2-1492호(2016.11.29~2016.12.31)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LG전자, VC 조직개편… 전장사업 강화

〈자동차 전장부품〉

카인포테인먼트 총괄 '스마트사업부' 신설 등
북미·유럽·중국사업센터 운영 '글로벌 공략'
임원인사서도 힘실어… 삼성, 하만 인수 맞대응

LG전자가 신성장 동력인 전장부품을 담당하는 VC사업본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장부품업체 하만을 인수하자, 자체 경쟁력을 다시 한번 강화하며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LG전자는 1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VC사업본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사업부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사업을 통합해 카인포테인먼트를 총괄하는 '스마트사업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구동장치(e-PT) 및 차량용 엔지니어링(VE)사업 등 친환경 전기차 부품 분야를 '그린사업부'로 통합했다. 회사 측은 재편에 대해 '고객 밀착형 조직'의 신설이라고 정의했다. 고객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통합해 기업간거래(B2B) 고객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LG전자는 VC사업 강화를 위해 본부 산하에 고객 거점 지역별 개발·생산·품질·영업을 총괄하는 북미사업센터, 유럽사업센터, 중국사업센터를 각각 운영한다. 이는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를 넘어 전 세계 완성차 업체를 공략, 글로벌 전장부품사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 센터들은 오는 2025년 1864억 달러(약 218조2000억 원) 규모로 커질 글로벌 스마트카용 전장 시장을 대비한 글로벌 공략의 전초기지가 될 예정이다.

이 같은 VC사업본부 개편은 경쟁업체의 사업 강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보인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장부품업체 하만을 인수하며 경쟁력을 순식간에 강화하자, 이 시장에 먼저 진출한 LG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따라서 LG전자는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부를 최적화해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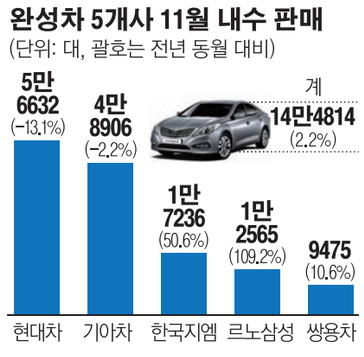
LG전자는 임원인사에서도 VC사업본부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VC사업본부장 이우종 사장을 유임하며 사업의 성과를 계속해서 낼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쉐보레 '볼트EV'용 부품의 성공적인 개발 및 공급에 기여한 양웅필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켰다. 또한 VC북미사업센터 장원욱 상무와 조영삼 부장을 각각 전무와 상무로 선임했다.

계열사 역시 전장부품 사업 조직의 강화가 이뤄졌다. LG디스플레이는 미래 육성사업인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사업의 지속 성장을 주도한 신정식 오토사업담당을 전무로 승진시켰다. LG이노텍 역시 파워분야의 차별화된 솔루션 개발을 주도, 전장부품사업의 수주 확대에 크게 기여한 허동영 상무를 수석연구위원(전무급)으로 승진 발령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車 내수판매 5개월 만에 반등

5개사 11월 14만여대 판매
지난해보다 2.2% 증가
수출도 72만대… 6.3%↑
신차·연말 프로모션 효과



국내 완성차 5개사의 11월 내수판매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2일 자동차업계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르노삼성자동차·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는 총 14만4814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의 성장이다. 전월인 10월(12만6660대)과 비교할 때도 14.3% 증가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르노삼성의 판매 실적이 단연 돋보였다. 'SM6(5300대)'가 큰 인기를 끌면서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1만2565대를 팔았다. 전년 동기 대비 109.2%의 성장이다. 한국지엠도 '말리부(4149대)' 흥행에 힘입어 1만7236대를 팔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6% 늘어난 것으로, 출범 이래 월 판매 최대치를 경신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내수 판매 9475대를 기록하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효자는 '티볼리'였다. 한 달간 5090대가 판매돼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생산 차질에 시달렸던 현대차는 지난달 5만6632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13.3% 줄었다. 그러나 전월인 10월과 비교할 때 20% 늘어나면서 정상 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판매 실적을 떠받친 건 '그랜저'였다. 6세대 모델인 '그랜저IG'는 판매 개시 1주일간 4606대가 팔리며 단숨에 '준대형차 1위'를 탈환했다. 기존 모델인 '그랜저HG(3145대)'와 그랜저HG 하이브리드(233대)'도 수요가 이어지며, 그랜저 3개 모델은 총 7984대가 팔렸다. 특히 '그랜저IG'는 2주간 진행된 사전계약 기간 2만7000대가 판매되며 현대차의 역대 최다 사전계약 실적을 경신,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형 '스포티지' 기저 효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줄어든 4만8906대를 팔았다. 하지만 연말 프로모션을 집중적으로 진행, 전월 대비로는 22% 늘었다.

한편, 완성차 5개사의 해외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어난 72만3644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현대차는 지난달 해외에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41만5420대를 팔아 실적을 견인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대우조선 몸집 22% 더 줄인다

'4본부 34담당 159부'로 축소… 2015년 초의 절반 수준
선박·해양 중심 사업부제 도입… 부서장급 절반 '물갈이'

법정관리 길목에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대우조선해양이 회사 몸집을 22% 줄이는 내용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또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선박·해양·특수선 등 사업본부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대우조선은 1일 인사를 내고 기존 '1소장(조선소장)·7본부·41담당·204부'였던 조직을 '1총괄·4본부·34담당·159부'로 축소했다. 지난해 8월, 전체 부서의 30%를 줄인 데 이어, 또다시 22%를 추가 감축한 것이다. 2015년 초와 비교할 때 대우조선해양의 조직은 거의 절반 수준(285→159부)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사업부제 도입이다. 기존 생산·설계·사업·재무 등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선박·해양·특수선 등 사업본부 중심으로 조직을 바꿨다. 관리조직은 △재무·회계 등을 담당하는 재경본부 △인사·총무·조달 등 지원조직을 총괄하는 조선소운영총괄로 나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사업부 내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이라며 "선박과 해양제품이 뒤섞여 생산되는 혼류 생산이 차단됨에 따라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부서장 중 55명이 보임에서 물러났고 17명이 신규 선임됐다. 전체 보임자의 약 50%가 물갈이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부장급 이상 고직급자의 20~30%가 회사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우조선은 10월 말 10년 차를 넘긴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 200여 명으로부터 전원 사표를 제출 받은 바 있다. 이 가운데 55명이 이번에 보임 해제된 것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조직이 한층 젊어져 내부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역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세대 교체를 이뤄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조직·인력 감축 등을 통해 연매출 15조 원, 임직원 1만2000여 명이었던 회사 규모를, 오는 2018년 연매출 7조 원, 임직원 8000여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르노삼성자동차〉

박동훈 사장의 'SM3 사랑'

사골처럼 지루하다? 준중형차의 가치 꾸준히 지킨 것
신차 출시로 주춤… 경제성·공간성 여전히 매력 있어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1일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서 열린 'SM3와 함께하는 카바레 라이브' 행사에서 SM3에 대해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르노삼성자동차

"SM3가 우려먹는 '사골'이라고들 하시던데, 오래된 것이 지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웃음)"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은 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열린 'SM3와 함께하는 카바레 라이브'에서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 사장은 행사의 주인공 'SM3'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올 한 해 르노삼성이 거둔 성과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 사장은 SM3에 '사골'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에 대해 재치 있게 해명했다. 그는 "사골이라며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고객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서점에 나온 스테디셀러와 같이 SM3는 꾸준히 준중형차의 가치를 충실히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SM3는 2002년 9월 1세대 출시 이후 SM3 네오에 이르기까지 5번의 변화과정을 거쳤다. 출시 후 국내외에서 78만 4000여 대가 팔려 스테디셀러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신차 '6형제'의 흥행 돌풍과 달리 SM3가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 박 사장은 '신차 효과'로 인한 관심도 하락으로 해석했다. SM3는 올해 11월까지 내수에서 8138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1만3258대)보다 판매량이 38.6% 줄었다. 그는 "신차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판매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SM3는 경제성, 가격, 공간성에서 여전히 매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 등장한 질 노먼 르노 아태지역 총괄 회장은 중국의 프랑수아 프로보 동펑르노자동차 사장에게 아태지역 총괄 회장 자리를 넘긴다고 발표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롯데 연말인사 내년 초로 연기

최순실·비자금 사태 여파

롯데그룹이 최순실 게이트와 조직개편 등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연말에 하던 정기 임원인사를 내년 초로 연기했다.

롯데는 1일 "통상적으로 연말에 진행됐던 정기 임원인사는 현시점에서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커 내년 초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와 신동빈 회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다른 주요 재벌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오는 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올해 3월 1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5월 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후 회수와 작년 11월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뒤 다시 특허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6 ~ 9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던 오너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대한 재판도 받아야 한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10월 그룹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롯데정책본부와 계열사를 포함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자 매켄지 등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다. 정기 임원인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컨설팅의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개편과 인사가 맞물려 진행돼야 하는데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조직개편과 인사를 동시에 마무리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LG유플러스는 2일부터 화웨이 P9시리즈를 단독으로 판매한다.화웨이는 이달 국내 첫 직영 서비스센터를 열고 애프터서비스에 나선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갤노트7 빈자리 노리자"… 중국폰의 대공습

오늘부터 화웨이 'P9' 판매
5일 레노버·ZTE도 신제품
中 제조사 3곳 잇단 출사표

중국 휴대폰 제조사들이 12월 국내 시장에 대거 상륙한다. 갤럭시노트7 사태로 삼성전자가 주춤한 사이 안방을 공략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 레노버와 ZTE가 '팹2프로'와 '블레이드 L5 플러스'를 출시한다. 이미 P9시리즈 판매에 돌입한 화웨이까지 이달만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3곳이 국내 시장에 신제품을 내놓는 것이다. 스마트폰 판매량 글로벌 톱10에 포함된 중국 제조사 3곳이 국내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셈이다.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화웨이가 3위(8.8%), ZTE가 7위(3.9%), 레노버가 8위(3.7%)다. 업계에서는 갤럭시노트7 사태로 삼성전자가 사면초가에 빠지자 중국 제조사들이 국내 공략을 본격화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화웨이 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12월은 갤럭시노트7을 개통 취소(환불)한 뒤 새로운 제품을 찾는 사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대가 크다"며 "기존 중저가폰으로 국한됐던 라인업을 프리미엄 스마트폰까지 확대하는 등 앞으로 중국 업체들의 한국 공략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이달 국내 첫 직영 서비스센터를 열고 보다 세밀한 애프터서비스(AS)에 나선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분분하다. 하지만 시장 규모보다는 국내 시장이 가진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한국은 삼성전자라는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사의 안방 시장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다"며 "그동안 저가 라인업 위주였던 중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도 통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제조사들이 국내 시장에 들고 온 제품은 프리미엄급 제품이다. 이날부터 판매에 돌입한 'P9·P9 플러스'는 화웨이가 국내에 처음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다. P9은 전작과 달리 독일 명품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라이카의 감성을 담은 렌즈를 탑재해 국내 소비자를 공략한다. 레노버가 내놓는 팹2프로는 세계 최초의 증강현실(AR) 스마트폰으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삼성, 낸드플래시 독보적 1위… 2위 도시바와 최대 격차

삼성전자가 반도체 낸드플래시(NAND Flash)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

2일 반도체 전자상거래사이트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37억4400만 달러(약 4조382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점유율 36.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도시바는 20억2600만 달러(약 2조3710억 원)의 매출로 19.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도시바의 격차는 전 분기 16.2%포인트에서 3분기에는 16.8%포인트로 커졌다.

삼성은 3차원 3D V낸드 적층 기술을 비롯해 낸드플래시 제품 양산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며 도시바의 점유율 격차를 역대 최대로 벌렸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부터 4세대 64단 V낸드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향후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D램익스체인지는 "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강력한 수요를 등에 업고 시장 리더의 지위를 유지했다"면서 "4분기에는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유현 기자 yhssoo@

현장 르포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 가보니



최순실 국정 농단의 여파로 '창조경제'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창조경제 박람회가 예년에 비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 방문 부스만 북적 대부분 썰렁 "예산 삭감 소식까지… 할 맛 안나요"

1687개 기관·718개 스타트업 참여
기념사·축사·기조강연 등도 생략
'최순실 사태' 창조경제 직격탄 실감

"사실 온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직접적인 쇼크는 사실 우리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창조경제박람회에 참가한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주의를 의식하며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나갔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행사였지만 행사장 곳곳은 조용함을 넘어 삭막하기까지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가 고스란히 스며든 모습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1층 B홀에서 2016 창조경제박람회 개막식을 열었다. 올해 행사는 '내일의 변화, 오늘에 담다'라는 주제를 앞세워 이날부터 나흘 동안 열린다. 1687개 기관과 718개 벤처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해 시작 전부터 역대 최대 규모임을 자랑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성과를 알리기 위한 행사지만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달랐다. 화려한 개막 퍼포먼스와 달리 정작 행사장은 썰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충격도 그만큼 무거웠다는 의미다.

여느 정부 행사처럼 기념사와 축사도 없었다. 물론 기조 강연도 없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주요 인사가 참여해 행사의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만 화려하게 치러졌다. 다양한 증강 또는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순서가 즐비해 보는 이들의 눈길을 잡아끌기도 했다. 그러나 주무부처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방문하는 부스만 북적댔다.

화려한 개막 퍼포먼스의 반대편 행사장은 곳곳이 한산한 분위기였다. 관람객을 맞아야 할 각 스타트업의 부스는 썰렁했다. 평일 오전인 탓에 행사 주최측 인원을 제외한 일반 관람객들은 많지 않았다. 행사장의 부스는 고유번호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들어서 있었다. 푸른색을 테마로 꾸민 부스는 넘치는 아이디어만큼 다양하지 않았다. 그저 획일화된 모습일 뿐이었다.

행사에 참가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최근 이어진 최순실 쇼크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지만 우리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이번 (최순실)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지요.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둘는지. 그리고 관심을 둔다고 실제 효과가 있을지…."

행사장에서 만난 대기업 관계자 역시 말을 아꼈다. 그는 "계속해서 이 (창조경제) 사업이 추진된다는 보장만 있어도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데 최근에 예산도 삭감됐다고 하고 잡음도 들리니까 이런저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래부 관계자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오히려 일련의 의혹 탓에 창업 생태계가 위축되거나 침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무부처로서 당연히 추진해야 할 행사 아니겠는가?"라며 "오늘 행사는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준비하고 기획했던 박람회"라고 말했다.

최순실 쇼크가 이어진 이후 창조경제 예산이 연이어 반감되거나 전액 삭감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창조경제센터의 센터장을 구하지 못하는 곳까지 나왔다.

행사장을 빠져나올 때까지 한산한 곳이 많았다. 심지어 부스만 존재하고 자리를 지켜야 할 담당자가 없는 곳도 쉽게 눈에 띄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올해 대형마트, 매출 효자는 '식품'

주류·과자·돈육 등 상위권에 포진
치킨·초밥 등 즉석조리 8.4%↑ 최고
화장품·커피·차·유제품 등은 부진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이 쇼핑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올해 국내 대형마트의 매출을 주도한 상품은 과자, 돈육 등 식품류와 주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1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매출을 종합한 결과, 식음료가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다. 돼지고기 등 축사제품, 과자류, 즉석조리 델리 제품이 많이 판매된 반면 화장품, 커피·차, 유제품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마트의 오프라인 점포 매출 순위를 보면, 주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으며, 5.9%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이밖에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과자류는 5.1%, 즉석조리 델리 8.4%, 푸드코트 8.3%, 돈육 6.5%로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나, 화장품은 3.7% 역신장했다. 우유·요구르트도 0.7%로 부진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직접 조리한 치킨, 초밥, 김밥 등 즉석조리 델리 상품군이 매출 신장세가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의 점포 매출 순위 1위는 축산물이 차지했다. 과일, 대용식(라면·통조림 등), 과자류, 푸드코트, 채소, 완구, 유제품, 커피·음료, 가정간편식 등이 뒤를 이어 전반적으로 신선식품이 강세를 보였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저가 경쟁'이 제품군 매출 순위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트몰에서 '최저가 상품'으로 내걸었던 분유·이유식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63.2% 증가했다. 냉동 가정간편식(37.1%), 과자(24.1%), 신선 가정간편식(22.4%) 등의 신장세도 두드러졌다.

이마트 온·오프라인을 통합해 매출 신장률이 가장 높았던 상품군은 유아완구로 98.5%나 늘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세탁기·에어컨 매출도 50%나 증가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아기 1명을 위해 부모는 물론 조부모 등 주변 어른들이 지갑을 여는 '8포켓' 현상 때문에 유아완구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지갑 열려라"…뜨거운 겨울세일

유통업계 2~4일 할인 대폭 늘려
롯데, 패딩·코트·부츠 최대 70%
신세계, 20만원 이상 사면 가습기
ABC마트, 스포츠신발 반값에
올리브영, 올해 루키제품 특가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는 등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내수 소비가 빠르게 줄면서 유통업계가 마지막 주말 세일 총력전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17~29일 겨울 정기세일 매출 증가율이 작년과 비교해 1.6% 느는 데 그쳤다. 현대백화점 역시 정기세일 매출 증가율이 1.2%에 불과한 상태로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는 마지막 주말 사흘(2~4일)간 매출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다한다. 롯데백화점은 패딩·코트 등 겨울 아우터뿐 아니라 모든 상품군에 걸쳐 할인 혜택을 늘리고 롯데닷컴·엘롯데 등 온라인몰도 '2016 파이널 블랙 세일'을 진행한다. 백화점 전 점은 3일간 파격 할인가 행사를 통해 150여 개 여성·남성 패션, 잡화 브랜드의 패딩·코트·부츠 등을 최대 70% 할인한다.

현대백화점도 2~4일 '겨울 상품 특가전'을 연다. 무역센터점은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여성 컨템포러리 앤(&) 캐릭터 이월 특가전'을 열고 쿠플스·마쥬·산드로·린·수미수미 등 20여 개 브랜드의 코트·패딩 등 겨울 상품 100억 원어치를 30~60% 할인한다. 압구정본점은 5층 대행사장에서 '겨울맞이 의류·잡화 대전'을 준비했다. 행사장에서는 디젤, 락포트, 유나이티드누드 등 브랜드의 이월상품을 30~60% 할인 판매한다. 신촌점 5층 대행사장에서는 '아웃도어 7대 브랜드 대전'을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전 점포에서 프리미엄 패딩을 비롯해 여성캐주얼, 아웃도어, 모피, 아이들의 방한복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겨울 외투를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이는 '윈터 아우터 페어'를 펼친다. 또 가격할인은 물론 사은행사까지 진행해 체감 가격까지 확 낮췄다. 패션 장르에서 구매 시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하고 20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전기를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습기를 사은품으로 준비하는 등 다양한 쇼핑 혜택도 준비했다.

ABC마트는 11일까지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16 총결산 세일' 행사를 한다. 할인 품목에는 이번 겨울시즌 신상품들을 비롯해 나이키, 아디다스, 호킨스 등 인기 브랜드 제품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품목에 따라 스포츠화는 최대 50%, 아동화는 최대 30%, 부츠는 최대 20%까지 할인율을 적용한다.

올리브영은 5일까지 전국 매장과 온라인몰 동시에 최대 50% 할인하는 '2016 라스트 카니발'을 진행한다. 히트 상품을 대거 할인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올해 새롭게 눈에 띈 '루키' 제품 30개 품목을 선정하고 할인 및 CJ ONE 포인트 추가 적립 혜택까지 더하며 소비자의 발길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연말은 매출 증가는 물론 재고 물품을 처리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소비심리를 살리도록 남은 세일 기간 프로모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결혼정보회사, 만남의 횟수 보다 결혼 성공률을 먼저 따져 봐야...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 원인부터 찾아야

결혼 적령기를 넘긴 만혼과 비혼 증가

최근 20대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세월이 흘러감으로써 결혼을 희망하는 남녀의 나이는 30대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그 치수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당연히 부모들은 속이 탄다. 자신의 결혼 시기보다 자녀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바뀐 것은 알지만 안타까움은 지울 수 없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는 늘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도 각각의 사정과 원인이 있다. 2012~2014년 한 SNS에서 비혼에 대한 언급 건수를 조사했는데, 약 3천 건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2015년에는 약 1만 3천여 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 30대 1인 가구 역시 2000년 256만 명보다 2015년에 506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비혼에 대한 언급과 독신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결혼 기피현상, 원인부터 따져봐야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이유와 원인이 있기 마련. 결혼 적령기 남녀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독립하기에는 부족한 결혼 자금과 고용불안, 부실한 육아정책과 막대한 사교육비, 결혼 필요성에 대한 부족한 자각, 자유와 안락함을 침해받고 싶지 않은 생각 등 여러 이유로 많은 사람이 결혼에 대한 언급조차 피하고 있다.결혼은 분명 축복받을 일이다. 하지만 많은 결혼적령기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의 행복보다는 양보로 얻는 희생이 우울할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결혼을 희망할 수 있게 국가와 회사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양보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결혼정보회사, 선택부터 신중해야

최근에는 적당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 결혼을 미룬다는 사람들을 위한 결혼정보회사가 인기다. 하지만 기계적인 컴퓨터로 이루어진 매칭은 회원들의 생각과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단점을 타파하기 위해 설립된 노블레스 수현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고품격 서비스로 모든 회원을 직접 관리한다는 장점이 있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인기라고 한다.

만족한 성혼이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지는 노블레스 수현

2009년에 설립된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수현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매년 50%의 고성장을 이뤄온 결혼정보업체다. 정부기관, 공기업, 대기업 등과 파티 MOU를 체결, 수많은 매칭파티와 이벤트를 개최했으며, 고객의 요구에 맞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해 전문직 성혼율 75% 달성의 쾌거를 이루었다. 이를 기반으로 노블레스 수현은 2014년, 2015년 2회 연속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을 사회 공헌 대상을 받기도 했으며, 올해에는 제13회 2016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이하 IBA)의 기업/조직 부문 올해의 기업 비즈니스 서비스 카테고리 에서 은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 수상 근거로는 차별화된 결혼정보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결혼정보 문화 표준 선도, 전문 커플매니저 기반의 맞춤형 고객서비스 등이 거론됐다. 이외에도 체계적인 삼성 CS 교육 시스템 도입, 삼성화재 책임보험 가입, 광범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매칭 서비스 등이 수상의 원동력으로 제시됐다. 이렇듯 노블레스 수현은 다양한 방면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많은 사람의 결혼에 대한 불안함을 깨끗하게 해소시켜 주고 있다.

전문직 성혼율이 75%에 이르는 고품격 시스템 (2015년 기준)

노블레스 수현은 상류층 결혼정보회사의 매칭 시스템으로 2015년 전문직 성혼율 75%를 달성했다. 전문직 이성과 인연을 원하는 미혼남녀 회원들이 새로



운 인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매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는 높은 성혼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결혼관과 이성관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한, DB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타 결혼정보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달리 노블레스 수현은 매월 1~4회씩 A급 호텔에서 파티 플래너를 기용해 회원의 행복한 커플 생활을 기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회원의 말투나 취향을 파악해 다음 매칭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도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철저한 회원관리로 고객 만족 지수 극대화

아무래도 어떤 결혼정보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노블레스 수현은 NCS 기반 결혼서비스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결혼정보업체 직무능력에 특화된 10년 이상의 베테랑 매니저를 채용하고 있어 회원들이 원하는 결혼 상대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삼성 CS 교육 담당자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CS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 배상 보험 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그 결과 피해 사례 건수는 1% 미만으로 결혼정보업체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우수한 지표를 바탕으로 노블레스 수현은 2014년에서 2015년 2회 연속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스티비어워즈 국제비즈니스대상(IBA) 올해의 기업 3년 연속 수상!

제13회 2016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이하 IBA)은 2002년 설립된 스티비어워즈(The Stevie Awards)의 개별상 분야 중 하나이다. 전 세계 기업과 임직원의 업적, 기업 활동의 성과 및 사회 기여도 등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한다. 2016 IBA에는 세계 60여 개국에서 3,8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10월 21일(금), 이탈리아 로마 카발리에리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노블레스 수현은 2016 IBA의 '기업/조직' 부문, '올해의 기업 – 비즈니스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수상 근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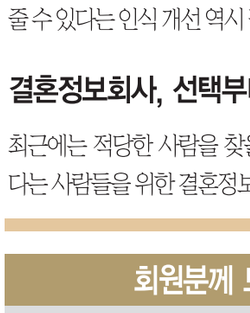


는 차별화된 결혼정보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결혼정보 문화 표준 선도, 전문 커플매니저 기반의 맞춤형 고객서비스 등이 거론됐다. 이외에도 체계적인 삼성 CS 교육 시스템 도입, 삼성화재 책임보험 가입, 광범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매칭 서비스 등이 수상의 원동력으로 제시됐다. 노블레스 수현은 "2014년, 2015년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스티비어워즈를 수상하게 됐다"며 "보다 퀄리티 높은 성혼 위주의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번 수상 소감을 전했다. **문의 | 080-685-4000**

회원분께 드리는 노블레스 수현의 차별화된 고품격 서비스

■ A급 호텔에서 미팅 진행 ■ 호텔 음료 지원 서비스 ■ 정기적인 정회원 이벤트 진행 ■ 스마트 암검진(보건복지부 신기술 인증) ■ 멤버쉽 서비스 혜택 제공(BANPO ONE, 더 청담, 스포엔샤 웨딩, 오티디자인, 파티오나인, 모즈클리닉, SC301, 더세리뷰티샬롱, 올래성형외과, 휘오레뷰티, 팝성형외과의원, 피플게이트, 성모맑은눈안과, 제주 WE호텔, 바이오인프라드림, 신현대 한의원, 임페리얼팰리스 서울 호텔, 부벤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호텔) ■ 가입기간 최소 5회 매칭 보장 시스템 운영 ■ 3일안에 탈회금 지급 원칙 준수(공정거래위원회) ■ 가입 블록 시스템 운영(무분별한 고객 가입유도 금지) ■ 컴퓨터를 통한 기계적인 매칭이 아닌 회의를 통한 수작업 감성 매칭 시스템 운영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커플이 됐어요"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저는 사실 결혼적령기라 하기에는 늦은 나이죠. 일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나이가 이렇게 됐더라구요. 주변 친구들이 다들 시집 잘 가서 오순도순 살고 있어 잘됐다 생각은 들지만 나는 왜 아직도 못 가고 있는지 자책한 적도 많거든요. 그런 저를 위해 친구들이 발 벗고 나서며 남자도 소개해줬는데, 왠지 지인 통해서 얻은 자리가 불편하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직장 선배 소개로 알게된 수현. 처음에는 상류층 결혼정보회사라 부담이 됐는데, 친절함이 상류층이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수현 와인 디너 파티에 참석했어요. 저와 맞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 반으로 갔는데, 파티 플래너의 자연스러운 진행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저 역시 전문직에서 일하는 한 남성분과 커플이 됐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결혼정보회사에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수현은 결혼하지 못한 미혼남녀의 고민을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일에 지쳐 사시는 분들, 외로움에 지쳐 계시는 분들 망설이지 말고 노블레스 수현에 방문해보세요. (34세, 회계법인 근무 OOO)

"커플매니저가 직접 매칭해 주니까 믿음이 가요"



어렸을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간 저는 한국 생활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한국에는 학창 시절 친구도 없고, 직장 동료도 개개인 생활과 문화적인 차이로 친해지기가 힘들더군요. 자연히 여자를 만나는 일도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렇게 일과 집을 반복해서 다녀오다 부모님이 수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수현을 만났습니다. 맨 처음 전화를 거니 무척 친절하시더라고요. 가장 마음에든 건 매칭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 타 결혼정보회사 업체는 컴퓨터로 매칭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기계로 매칭하면 진심이 안 느껴지고 오류가 많겠죠. 하지만 수현은 감성매칭이라고 커플 매니저 몇 분이 직접 회의를 거쳐 회원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매칭을 한다고 해요. 또한, 신규 회원 수가 많아 그만큼 매칭 할 수 있는 상대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며칠 전 커플 매니저 분께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새로운 매칭을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 기분이 좋네요. 알고 보니 제 직장 동료 상사님도 수현으로 결혼 하셨다고 하는데, 저 역시 수현 덕 좀 봤으면 좋겠네요. (32세, 증권회사 펀드매니 OOO)

www.isoohyun.co.kr

대표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 SOOHYUN VIP MATCH MAKING AGENCY

"결혼은 진품이어야 합니다"

최고를 위한 특별한 만남, 노블레스 수현

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와 특별한 혜택으로
노블레스 수현이 당신의 가치를 한번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노블레스 수현은 차별화된 매칭시스템과 회원 한분 한분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로 최고의 만남,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업계 최초, 결혼정보 | 중매분야 3년 연속 TOP3
노블 결혼정보회사인데도 결혼정보와 중매분야에서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TOP3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업계 유일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삼성 CS 교육 시스템 도입
소비자 피해사례가 없는 노블레스 수현, 삼성 CS교육담당자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주 직원들에게 CS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을 우선시합니다.

결혼정보 문화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기업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티비어워즈 국제비즈니스대상 올해의 기업 수상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스티비어워즈에서 국제비즈니스대상(IBA) 올해의 기업부문에서 결혼정보업계 최초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고객 보호를 위한 삼성화재 책임보험 가입
올바른 결혼정보문화 정착을 위해 노블 결혼정보회사 최초로 삼성화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고객 한분, 한분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류층 회원들이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
정계, 재계, 명문가, 유학파, 자산가, 전문직, 신흥재력가 등 국내 최고의 네트워크와 함께 하고 있기에, 퀄리티 높은 매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4시간 무료 상담 080 • 685 • 4000

서리 내린 지방주택… 내년엔 더 춥다

입주물량 증가·기업 구조조정 등 악재
내년 지방 주택가격 0.7% 하락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거래량도 급감할 듯"

내년 지방 주택시장은 집값이 크게 빠지는 등 본격적인 찬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7 부동산시장 전망'에서 내년 지방 주택가격이 올해보다 0.7% 하락할 것으로 봤다. 수도권이 미미하게나마 0.5% 오르겠지만, 지방 시장의 이 같은 하락세가 영향을 미치면서 전국 집값은 제자리를 보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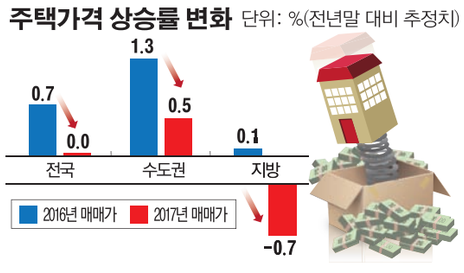
지방 주택가격의 최근 연도별 변동률을 보면 2013년 1.7% 상승한 데 이어 2014년 1.9%, 2015년 2.7% 올랐다. 올해 역시 미미한 수준이지만 0.1%가량 오를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내년에 떨어지면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지방 주택시장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후퇴기에 들어섰다. 입주물량이 많아지고 있는 데다 공공기관 이전 마무리,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주택가격의 하방요인이 많아져서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원은 "수도권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지방은 그동안 아파트가 많이 공급됐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악재 지역의 가격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남 진주와 사천은 LH를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과 2018년 완공 예정인 우주부품시험센터 유치 등의 영향으로 2~4%대 상승을 보였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률 변화 단위: %(전년말 대비 추정치)



2020년 완공될 것으로 알려진 3754억 원 규모의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당분간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조선업계의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3대 조선소가 집중된 거제와 울산 동구지역 주택가격은 3~5%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4%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방광역시는 0.3%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대구지역 아파트는 5대 광역시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락(-1.8%)했다.

거래량 역시 크게 위축된 상태다. 올 들어 10월까지의 주택거래량에서 수도권은 67만50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0.2% 증가한 반면, 지방광역시는 26만4000건으로 2013년 이후 3년 만에 30만 건 밑으로 내려갔다. 이 기간 대구는 매매거래만 48% 넘게 가라앉았다.

김 연구위원은 "내년 주택시장의 거래량은 약 9% 감소하겠지만 수도권보다 지방의 거래 감소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지방은 본격적인 입주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수급분석을 통한 시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해외사업 발목… '계륵' 된 엔지니어링

저유가 장기화에 해외 수익성 악화
포스코ENG, 지난해 237억 손실
대규모 구조조정 이어 건설서 흡수
삼성도 물산·중공업과 합병설
현대엔지니어링만 수주 명맥 유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며 한동안 건설사들의 러브콜을 받던 엔지니어링 부문이 해외사업 부진으로 '계륵'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건설사를 제외하고 엔지니어링 부문의 정리 수순을 밟으며 달라진 업계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23일 자회사인 포스코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합병비율은 포스코건설과 엔지니어링이 1대 0의 비율이며, 합병기일은 내년 2월 1일이다. 포스코건설이 2008년 5월 대우엔지니어링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 지 8년여 만이다.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 해외건설이 급성장하며 건설업계는 엔지니어링 사업부문 인수에 공을 들였다. 기존 단순 시공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로 2010년 롯데건설은 국내 엔지니어링 대표회사로 꼽히는 삼안을 인수했다. 대우건설도 수년에 걸쳐 엔지니어링사 인수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삼성물산도 당시 잘나가던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설이 꾸준히 돌았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삼성물산보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해외건설의 부실이 드러나며 삼성엔지니어링이 어닝쇼크에 빠진 후 그룹재편 과정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태다.

엔지니어링 사업부문이 선전했던 이유는 해외 플랜트의 경우 설계·구매·시공(EPC)의 일괄 발주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설계능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일반 공사보다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우수한 토목·플랜트 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기반으로 한 엔지니어링 능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지는 저유가 구도와 해외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엔지니어링 사업이 맥을 못추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합병한 포스코엔지니어링만 하더라도 지난해 영업손실 237억 원을 기록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대규모 어닝쇼크를 겪은 후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엔지니어링사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별도 계열사였던 이들 회사를 합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포스코엔지니어링 외에 LG그룹도 2010년 설립한 LG도요엔지니어링을 지난해 서브원이 흡수합병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삼성물산, 삼성중공업과 다양한 방식의 합병설이 계속 시장에 돌고 있다.

그나마 현대엔지니어링만이 주택사업과 새로운 지역에서의 수주를 바탕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엠코와 합병한 이후 단숨에 시평순위 10위권에 진입해 올해는 7위까지 뛰어올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의 주 활동 분야인 중동이 저유가로 신음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다"면서 "당분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엔지니어링사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공실의 늪'에 빠진 김포 오피스텔 시장

최근 2년간 물량 쏟아지며 공실률 '쑥'

김포시 오피스텔 시장에 공실 경고등이 켜졌다. 갑작스레 물량이 쏟아진 탓에 대다수의 단지가 공실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한 해 김포시에 공급된 오피스텔 물량은 총 8개 단지 3027실이다. 2015년에는 오피스텔이 전혀 공급되지 않다가, 올해 갑자기 봇물이 터지듯 오피스텔 물량이 쏟아졌다.

올해 공급된 오피스텔 단지로는 △e편한세상시티 한강신도시 748실 △태림더끌리움 380실 △안강 럭스나인 345실 △운양역헤리움리버테라스 344실 △태영데시앙루브라비드퐁네프(7BL) 337실 △태영데시앙루브라비드퐁네프(8BL) 656실 △김포NK리움힐 306실 △더파크뷰테라스 248실 등이다.

김포한강신도시는 2년 전만 해도 오피스텔 물량이 적은 탓에 평균 수익률이 7%대로 서울 평균(5.16%)을 상회하기도 했다. 또한 김포 한강로 개통과 내년 2018년 김포도시철도 개통 예정 등의 교통 개발로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었다.

올 6월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았던 'e편한세상시티 한강신도시' 오피스텔 역시 규모가 크지만 판매 4개월이 채 안 돼 전 가구가 완판됐다. 김포시 내 유일하게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데다 소형 면적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기간 내 물량이 급증하면서 다른 단지는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항아리 상권인 구래동의 경우 'e편한세상시티 한강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오피스텔은 여전히 공실이 지속되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 구래동 P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 일부 지역은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행사 측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지만 정작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모두 행복한 '주거복지의 길' 찾아요

서울시·SH 공동 내일까지
'공공주택·주거복지 페스티벌'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SH)공사와 공동으로 '함께 살아 좋은 서울'을 주제로 '2016 공공주택·주거복지 페스티벌'을 서울 서울무역전시장(SETEC) 제3전시관에서 2일부터 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서울시 공공주택과 주거복지 정책의 역사를 둘러보고, 공공주택 입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게 꾸며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을 벗고 주거복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이번 페스티벌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2016 공공주택·주거복지 페스티벌' 행사 포스터.

지난해 페스티벌은 입주민이 주요 참석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전시관은 주제별로 '희망누리' '체험누리' '나눔누리' '어울림누리' 등 4구역으로 나누어 전시, 입주민 주거복지 체험행사, 입주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페스티벌 본행사에 앞서 '제1회 아시아 공공주택아시아포럼'(1일), 입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소통콘서트'(11월29일)를 개최했다. 또 지난달 28~29일에는 마포구청, 천왕역 등 지하철 내 '찾아가는 주거복지 사진전'도 열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행사가 서울시민은 물론 공공주택 입주민이 다함께 참여해 정보를 나누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서울시와 SH공사의 공공주택,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시민사회 저변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년규 기자 ngsun@



美·中 보호무역에 '글로벌 M&A' 냉각

해외 M&A시장 두각보인 다롄완다그룹 할리우드 공략 급제동
미국, 안보 이유로 중국 기업 독일 반도체 업체 인수 반대하기도
트럼프 당선으로 中경계 확산… 中 정부는 자본유출 차단 고삐

한동안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중국 기업들이 진퇴양난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對)중 강경책과 자본 유출을 우려하는 자국 정부의 자본 규제 강화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장 중국 최대 부호 왕젠린이 이끄는 다롄완다그룹의 할리우드 공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잭 루 재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다롄완다그룹과 같은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가 중국 정부의 이익에 맞춰 조정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완다그룹은 지난 몇 년간 엔터테인먼트 기업 M&A를 통해 세계 최대 극장 업체로 급부상했다. 완다그룹은 26억 달러에 미국 극장 체인업체 AMC엔터테인먼트홀딩스를, 35억 달러에 영화제작사 레전더리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다. 최근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할리우드 TV 콘텐츠 제작사 딕클라크프로덕션 인수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완다그룹의 M&A에 제동이 걸리면 할리우드는 물론 다른 산업에도 이러한 냉기류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WSJ는 중국 M&A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는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의회에서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슈머 대표는 "2017년 새 의회에서는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CFIUS는 자국 기업 인수도 아닌데,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중국 자본인 푸젠그랜드칩투자펀드(FGC)의 독일 반도체 기업 아익스트론 인수안에 반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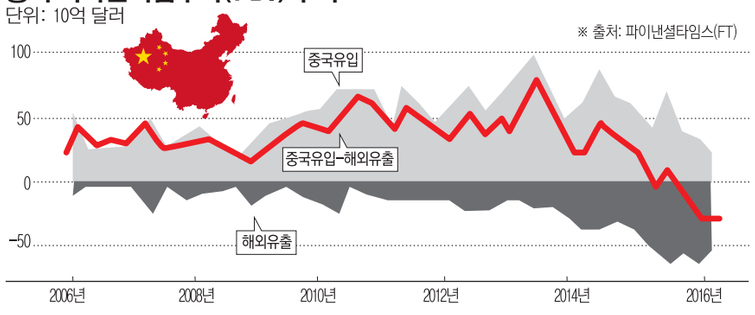
중국 정부도 자국 기업의 해외 M&A 행보를 경계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과 외환보유고 축소 등으로 자본유출 불안이 커지자 해외 M&A에 대한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이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29일 중국 정부가 M&A 승인 심사를 엄격히 하고 외환과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등 해외 투자와 관련한 새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가 입수한 중국 인민은행의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100억 달러(약 11조7350억 원) 이상의 해외투자 및 핵심 사업과 무관한 10억 달러 이상의 해외 M&A를 금지할 계획이다.

국영기업은 해외 부동산 거래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 M&A와 결제 승인 심사 강화에 이어 위안화 송금과 수입 제한에도 나섰다.

중국 기업들은 자국 경기가 둔화하자 새 성장동력을 찾고자 해외에서 적극적인 M&A를 펼쳤다. 중국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비금융 부문 해외투자는 1460억 달러로, 이미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전체(1210억 달러) 기록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M&A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경계감은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규제 역시 한동안 글로벌 M&A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던 중국 기업들의 기세를 꺾는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준호·김나은 기자 baejh94@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단위: 10억 달러



멕시코 이전 포기 캐리어에 트럼프 "10년간 82억 감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하려다 포기한 냉난방 시스템 업체 캐리어를 세제 혜택으로 달랬다.

트럼프 당선인과 마이크 펜스 차기 부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인니애나 주에 있는 캐리어 공장을 방문해 캐리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캐리어는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의 공장을 멕시코 누에보레온 주의 몬테레이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선 때부터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면 캐리어에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결국 캐리어는 지난달 30일 인디애나 공장 이전 계획을 철회했다. 1000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트럼프는 공장 이전 계획이 무산된 캐리어를 달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연 70만 달러씩 총 700만 달러(약 82억 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백악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에 신난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 무대에서 산타클로스와 가수 제임스 테일러, 배우 에바 롱고리아 가수 가스 브룩스 등 유명인들과 캐롤 '징글 벨'을 열창하며 익살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점등식에는 부인 미셸 여사와 작은딸 사샤도 참여했다. 오바마 대통령 가족에게는 이번이 백악관에서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佛 올랑드 대통령 "대선 불출마"



프랑수아 올랑드〈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랑드는 임기 내내 잇따른 테러와 실업률 상승,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정위기 등으로 고전했으며 현재 국정지지율이 4%에 불과해 프랑스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을 단결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리스크를 잘 알고 있다"며 "사회당이 보수와 극우에 맞서 승리할 기회를 창출하고 싶다"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올랑드는 지난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이 탄생하고 나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은 첫 대통령이 됐다고 WSJ는 전했다.

그의 결정으로 집권 사회당은 대선 레이스에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기회를 얻게 됐다. 사회당 경선에서는 친기업 성향의 중도주의자인 마뉘엘 발스 총리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하워드 슐츠 사임 소식에… 스타벅스 주가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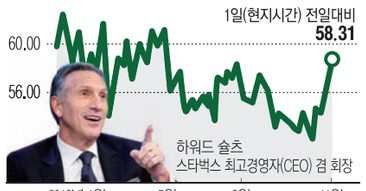
내년 4월 CEO직 물러나고
이사회 의장직만 수행하기로
시간외 거래 주가 3% 하락

글로벌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하워드 슐츠가 내년 4월 CEO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1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슐츠의 CEO 사임 소식에 이날 스타벅스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 급락했다.

이날 스타벅스는 슐츠가 내년 4월 3일 CEO직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직만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임은 현재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사장인 케빈 존슨이 맡기로 했다.

다만 슐츠 CEO는 아예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면서 소매유통 혁신과 프리미엄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등 성장전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스타벅스 측은 전했다. 슐츠 CEO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사임에 대해 "스타벅스의 차세대 소매 혁신의 물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나는 존슨 COO가 CEO직을 수락한 것이 기쁘다. 존슨은 7년간 이사회 임원이었으며 지난 2년간은 스타벅스의 모든 사업적인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의 파트너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인사는 스타벅스가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핵심사업의 수익성을 꾸준히 키울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1년간 주가 추이
단위: 달러



슐츠가 사의를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정치 입문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슐츠의 정계 입문설은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는 오랫동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공개 지지했다. 일각에서 그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점치는 주장이 나오자 슐츠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아예 회사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집중하는 분야가 바뀐 것뿐이다. 앞으로 스타벅스의 '리저브 브랜드'에 집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슐츠는 1982년 점포 4개에 불과했던 스타벅스에 처음 합류, 회사의 마케팅과 운영을 총괄하면서 지금의 스타벅스를 일궈낸 일등공신으로 통한다. 그는 1987년 CEO에 오른 후 2000년에도 CEO직을 사임했다가 2008년에 CEO로 복귀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원유 감산, 亞신흥국엔 부담

OPEC, 1일 120만 배럴 감산합의
국제유가 이틀째 가파르게 상승
亞 수요, 인플레·통화약세 맞물려
원유 달러화 거래, 수입가격 상승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로 신흥국 원유 수요가 인플레이션과 자국 통화 가치 약세 직격탄을 동시에 맞게 됐다고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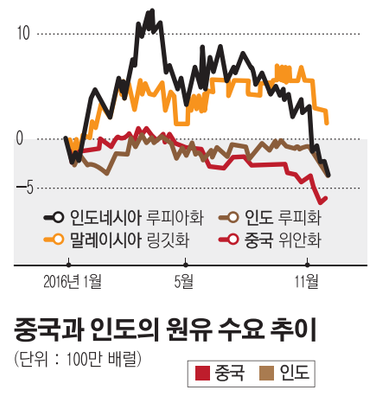
OPEC이 전날 산유량을 하루 120만 배럴 감축하기로 하면서 국제유가는 이틀째 강세를 보이며 배럴당 50달러 선을 넘어섰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이날 3.3% 급등한 배럴당 51.06달러로 마감해 10월 1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엔 무려 9% 폭등했다. 영국 런던 ICE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4.1% 뛴 배럴당 53.94달러로 지난해 8월 31일 이후 1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 3위 원유 소비국인 중국과 인도의 통화 가치는 최근 수주간 미국 달러화에 대해 가파르게 하락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와 말레이시아 링깃화 가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인도 루피화는 지난달 달러화에 대해 2.7%, 중국 위안화는 1.6%, 말레이시아 링깃화는 6.1%,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3.9% 각각 하락했다. 여기에 OPEC의 산유량 감축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뛰면서 이들 아시아 국가들은 원유 수입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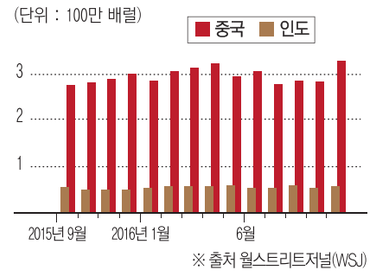
유가는 달러화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현지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유 수입가가 그만큼 높아진다. 예를 들어 인도의 원유 수입가는 지난달 실질적으로 8% 올랐다.

리서치업체 에너지애스펙츠의 비렌드라 차우한 애널리스트는 "신흥국 원유 수요는 자국 통화 가치 약세와 유가 상승의 복합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시아 각국의 미국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 가치 등락 추이 (단위 : %)
※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중국과 인도의 원유 수요 추이
(단위 : 100만 배럴)



※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이는 산유량 감축으로 유가 회복을 노리는 OPEC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 하락과 미국 원유 생산 증가 등으로 고전하는 OPEC에 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OPEC은 아시아 시장에서 러시아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원유 수입 중 OPEC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월 59%에 달했다. 이는 4년 전의 66%에서 낮아진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최근 수개월간 중국과 인도의 원유 수요 둔화가 뚜렷해 글로벌 원유 수요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스콧 달링 JP모건체이스 아시아태평양 석유·가스 리서치 대표는 "유가가 50달러 선에 머무르면 실제 경제성장과 원유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유가가 40달러 밑으로 떨어지거나 60달러 이상으로 오르는 등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영국 '소프트 브렉시트' 택하나

재무장관 "탈퇴 후 EU 단일시장 접근 위해 예산 지원"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에도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기 위해 EU 예산 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와의 완전한 단절을 뜻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누그러지게 됐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럽시장으로 향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최선의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EU 예산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브렉시트 협상을 총괄하는 데이비스 장관이 EU 시장 접근권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영국 내각 인사들은 EU 단일 시장 접근권에 대한 언급을 꺼려왔다. EU 시장 접근권 유지 여부가 브렉시트의 핵심인 노동력의 자유로운 유입 차단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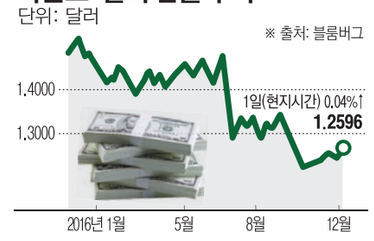
이에 대해 FT는 영국 정부가 사실상 EU에 참여하지 않고 EU에 분담금을 내며 EU 시장 접근권을 가진 노르웨이 스위스와 비슷한 노선을 취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르웨이의 경우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경제공동체(EEA) 협약을 맺고 EU 회원국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U 역내 시장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는 대신 EU 법을 준수하고 EU 예산에 분담금을 내고 있다. 스위스는 EU와 EEA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EU와 체결한 여러 양자협정을 통해 EU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다. 스위스 역시 노르웨이보다는 적지만 EU 분담금을 내고 있다. 현재 영국은 매년 분담금으로 80억 파운드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과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 등 유럽 지도부는 자유 이동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EU 시장 접근권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할 것이란 기대감에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였다. 이날 파운드·달러 환율은 한때 1.58% 오른 1.2696달러를 기록,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파운드·달러 환율 추이
단위: 달러



NEW 신상품

방수, 보온, 편안함은 기본!
초경량 논슬립 아웃솔 까지!
잔디로 워킹 컴포트화!

잔디로 BSR 워킹 컴포트화는 발의 변형 및 통증을 개선하고
보다 편안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발 모양과 형태에
맞는 신발을 생산합니다.

남녀공용 워킹 컴포트화 / 카키 LM2607-07



남녀공용 워킹 컴포트화 / 브라운 LM2607-02
사이즈: 225mm ~ 285mm



남녀공용 워킹 컴포트화 / 네이비 LM2607-08
사이즈: 225mm ~ 285mm



남성용 워킹 컴포트화 / 브라운 LM2607-24
사이즈: 245mm ~ 285mm



여성용 워킹 컴포트화 / 브라운 LW7607-04
사이즈: 225mm ~ 255mm



여성용 워킹 컴포트화 / 레드 LW7607-05
사이즈: 225mm ~ 255mm



남녀공용 워킹 컴포트화 / 블랙 LU2609-01
사이즈: 225mm ~ 285mm

서울역점: 02)6959-4900 (지하철 1호선 4, 5번 출구방향 연세 세브란스 빌딩 **아케이드 18호**)
목동점 02)2608-7400 강남점 02)562-0009 전주점 063)276-5000 www.jandiro.com

JANDIRO GOLF

"서민 사각지대 없애는 방향으로 ISA 개선"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 로드맵 제시
단기적 세제문제·소득요건 때문에 확장성 떨어져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단기적으로 세제 문제, 소득요건 등이 들어가면서 확장성이 떨어지는데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문제, 계좌인출 등 편의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송홍선〈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영국·일본의 ISA 제도 발전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열린 특설강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ISA가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가입자에게도 좋은 제도가 되려면 실정에 맞춰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이냐는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연구위원은 "제도 자체의 인센티브가 높아지면 참여도 높아질 것"이라며 "예컨대 '목적성 ISA'를 주택이든 주니어든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SA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인해 사적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입됐다.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영국의 경우, 지난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41.3%의 절반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는 영국과 일본 등 앞서 ISA를 채택한 국가를 예로 들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전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영국은 과감한 세제 혜택과 영구적 가입기한, 자유 인출을 가능케 하면서 ISA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일본 역시 자유 인출 도입과 각종 세제 감면을 통해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목적형인 주니어 ISA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그는 또 국내에 분산된 투자와 각종 세제혜택 상품을 하나로 묶을 플랫폼이 없다며 ISA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영국·일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춘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다만 "영국의 경우 ISA 인기가 높다 보니 연금 쪽으로 돈이 안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정도"라며 "우리나라도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때문에 ISA가 발전하다 보면 연금과의 관계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략적으로 단기와 장기적 목적을 섞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타이거 우즈가 2일(한국시간) 바하마 뉴 프로비던스의 올버니 골프클럽에서 열린 히어로 월드 챌린지 1라운드 14번홀에서 벙커샷을 날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복귀전 '절반의 성공'

15개월만에 '히어로 월드챌린지'
첫날 더블보기 2개… 1오버파로

"티샷 미스로 깊은 러프에 3번, 워터해저드에 한 번 빠진 것이 아쉬웠다. 티샷만 잘한다면 스코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코스다. 2번홀에 들어서면서 몸 컨디션은 경기를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15개월 만에 턱수염을 기르고 그린에 나선 '골프지존' 타이거 우즈(41 미국)가 복귀전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물론 전성기 때의 날카로운 맛은 사라졌지만 폭발적인 드라이버 장타력과 정교한 아이언 샷, 그리고 퍼팅은 그런대로 살아있었다. 특히 샷이 잘 안 풀릴 때는 클럽을 내려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은 여전했다.

우즈는 2일(한국시간) 북중미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하마 뉴 프로비던스의 알바니 골프클럽(파72 7267야드)에서 열린 이벤트 히어로 월드 챌린지(총상금 350만 달러) 첫날 경기에서 1오버파 73타를 쳐 17위로 마감했다.

우즈는 버디 5개, 보기 2개, 더블보기 2개를 기록했다. 마지막 3개 홀에서 더블보기 2개가 아쉬움으로 남았다.

우즈는 이날 전반에는 경기를 잘 풀어 나갔다. 3번홀에서 첫 버디를 골라낸 우즈는 6번홀부터 3개홀 연속 버디를 챙겼다. 9번홀(파5)에서 첫 보기를 범했다. 후반 들어 샷이 흔들리며 타수를 잃었다. 11번홀(파5)에서 파퍼팅을 실패한 우즈는 15번홀(파5 548야드)에서 2온을 시킨 뒤 버디를 잡아냈다.

그러나 16번홀(파4)에서 덤블에 볼이 들어가면서 더블보기가 됐다. 다시 18번홀(파4 470야드)에서 위기상황. 티샷한 볼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워터해저드에 빠지는 바람에 결국 1오버파 73타로 끝났다.

안성찬 기자 golfahn58@

'국제 기후에너지 시장서약' 박원순 서울시장 이사 선임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2017년 1월 출범하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서약'의 이사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서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 도시와 지방정부의 네트워크로, 2017년 1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재 두 명의 공동의장, 부의장, 9명의 이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119개 국가의 7100여 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유엔 도시와 기후변화 특사, 마로스 세프코비치 유럽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1년간으로 예정돼 있다.

김정웅 기자 cogito@

올해 전통 수산식품 명인에 김윤세·김정배·유명근 선정



김윤세



김정배



유명근

2016년도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으로 김윤세(죽염), 김정배(새우젓), 유명근(어리굴젓) 등 수산 식품명인 3명이 선정됐다. 수산식품 명인은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분야의 명인을 지정·육성하는 제도로 해양수산부는 올해 3명이 추가 지정된 것이다.

수산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김윤세 명인(식품명인 4호)은 1987년 국내 최초로 부친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죽염생산 허가를 취득한 후 천일염을 대나무, 황토로 싸서 무쇠 가마 속에서 9번 굽는 전통 죽염 제조기술을 계승해 왔다.

김정배 명인(5호)은 외조부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굴 저장고로 3대에 걸친 젓갈 제조비법을 계승, 발전시켜 발효기간에 따라 식감과 맛이 독특한 새우젓을 개발했다.

유명근 명인(6호)은 증조부, 조부, 모친까지 4대에 걸쳐 서해안 굴을 소금, 고춧가루, 물만으로 발효시켜 고유의 향과 맛을 보존하는 어리굴젓 제조법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곽도흔 기자 sogood@

인사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특허심사3국장 권오희 ◇**과장급 전보** △사무기기심사과장 한덕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장급 승진** △광고인프라팀장 이흥규 △부산지사장 남택은 △대전지사장 이호성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정연규 △광고산업진흥국장 고제영 △미디어정책국장 류재기 △중소기업지원국장 엄정근 △전략영업팀장 이정혜 △영업2국장 지승해

◆**군인공제회** △감사 이승우(예비역 육군소장)

◆**한화손보** ◇**임원 전보** △경영지원부문장 강창완 △소비자보호실장직무대행 전정표 △강북지역본부장 김원하 △일반보험지원팀장 최용민

◆**한화생명** ◇**본사 본부장** △개인영업본부장 구도교 △CPC전략실장 엄성민 △미래전략실장 황승준 △최고혁신책임자 박상욱 ◇**담당임원** △투자사업담당 이병서 ◇**자회사 대표** △한화손해사정 대표이사 박상빈 △한화라이프에셋 대표이사 이경근 △한화금융에셋 대표이사 문희수

◆**일동제약** △의원영업본부장 이맹휘 △OTC/HC CM그룹장 이동한 △ETC CM그룹장 권정아

◆**녹십자** 〈승진〉 △부사장 김병화 △상무 김재왕 이중호 류지수 하석훈

◆**녹십자랩셀** 〈승진〉 △부사장 박대우 △상무 홍성일

◆**녹십자셀** 〈승진〉 △상무 안종성 강기원

◆**녹십자엠에스** 〈승진〉 △상무 조무현

◆**녹십자헬스케어** 〈승진〉 △상무 성윤주

◆**티맥스** 〈승진〉 ◇**부사장** △티맥스소프트 전략경영부문 박명애 ◇**전무** △티맥스소프트 TmaxAPAC 김익수 ◇**상무** △티맥스소프트 TmaxAPAC 싱가포르 법인장 김성중 △티맥스소프트 TmaxAMS PM본부 유웅진 △티맥스소프트 PM본부 공상휘 △티맥스소프트 금융1사업부 이형용 〈신규 선임〉 ◇**전무** △티맥스오에스 OC사업본부 본부장 권재현 ◇**상무** △티맥스오에스 연구소 K3실 실장 이정형

◆**아모레퍼시픽그룹** ◇**전무** △AP 홍콩 피온 잎 ◇상무 △AP 차이나 라네즈 디비젼 줄리아 양

◆**아모레퍼시픽** 〈승진〉 ◇**전무** △마케팅전략 유닛 강병영 △럭셔리 BU 이우동 △SCM 유닛 이동순 ◇**상무** △디자인 센터 정혜진△R&D 유닛 메이크업연구 디비젼 최영진 △R&D 유닛 스킨케어 연구 디비젼 서병휘 △럭셔리 BU AP&프리메라 디비젼 김효정 △럭셔리 BU 바이탈 뷰티 디비젼 유치호 △프리미엄 BU 라네즈 디비젼 진윤진 △매스 BU 해피바스&메디안 디비젼 박유현 △신성장 BU 리리코스 디비젼 정인지 △SCM 유닛 SCM 경영관리 디비젼 강일권 △SCM 유닛 품질 디비젼 유승철 △SCM 유닛 개발&구매 디비젼 홍형수 △SCM 유닛 뷰티 생산 디비젼 강명구 △SCM 유닛 상해사업장 박찬규 △대구지역 디비젼 최병주 △대전지역 디비젼 위대호 〈전보〉 ◇상무 △SCP 디비젼 최명종 △R&D 유닛 김영소 △럭셔리 BU 방판 디비젼 신성철 △프리미엄 BU 아리따움 디비젼 황동희 △프리미엄 BU 마트 디비젼 박태호 △매스 BU 에이전트 디비젼 이영운 △SCM 유닛 MC 생산 디비젼 백주상 △SCM 유닛 말레이시아 공장 건설 TFT 조규정 △경영지원 유닛 간접구매 디비젼 고광만 △부산지역 디비젼 이광우

◆**에뛰드** ◇**상무** △영업 디비젼 노민수 △글로벌 디비젼 백승용

◆**이니스프리** ◇**상무** △마케팅 디비젼 구애란

◆**아모스프로페셔널** △대표이사 상무 임중식

◆**퍼시픽패키지** 〈전보〉 △대표이사 상무 최재철

◆**KG그룹** ◇**대표이사 선임** △KG네트웍스 상무 양기수 △이데일리TV 상무 성향제 〈승진〉 ◇전무 △KG로지스 곽정현△KG올앳 임노원 ◇**상무** △KG ETS 오정의 △이데일리 남궁덕 ◇**상무보** △KG이니시스 전승재 △KG모빌리언스 손장원 △이데일리 곽혜은 ◇**이사** △KG케미칼 박봉관 △KG이니시스 최영완 △KG이니시스 이강욱 △KG ETS 정상석 △KG로지스 오세혁 △KG올앳 주철 △이데일리 차희진

◆㈜**LG** 〈승진〉 △부사장 조갑호(CSR팀장) 〈신규선임〉 △상무 박장수 이재원 한영수 〈전입〉 △전무 민병훈

◆**LG전자** ◇**부사장 승진** △베트남생산법인장 고명언 △한국B2B그룹장 이상윤 △에너지사업센터 솔라BD담당 이충호 △CTO L&A 연구센터장 전시문 △H&A 에어솔루션연구소 칠러선행연구팀장(수석연구위원) 정진희 ◇**전무 승진** △한국B2C그룹장 강계웅 △CFO H&A기획관리FD담당 김근태 △H&A어플라이언스연구소장 김영수 △H&A리빙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 류재철 △VC그린사업부장 양웅필 △전략구매/ GP FD담당 엄재웅 △MC 글로벌오퍼레이션그룹장 이석종 △소재/생산기술원 소재기술원장 이정수 △VC북미사업센터장 장원욱 △H&A어플라이언스해외영업그룹장 정규황 △정도경영FD담당 정연채 △CTO컨버전스센터장 조택일 △CTO차세대표준연구소ACS팀장(수석연구위원) 김병훈 ◇**상무 승진** △CFO정보전략FD담당 강승원 △HE TV SW 서비스&앱개발실장 공용택 △MC연구소RF실장 김건욱 △CTO기술기획FD담당 김민수 △CFO인도기획관리FD담당 김수철 △한국온라인가전유통FD담당 김종용 △H&A LG시그니처 PMO 김종필 △VC그린사업부 램프ED담당 김중건 △MC연구소 프로토콜실장 김진훈 △인도법인(H&A) 노영남 △한국브랜드커뮤니케이션FD 광고2팀장 박경아 △므와바생산법인장 박근직 △H&A C&M기술영업실장 박기원 △브로츠와프생산법인장 박종원 △VC스마트사업부 AVN1 ED담당 박준은 △나이지리아법인장 손태익 △H&A 어플라이언스제어RD담당 신현재 △소재/생산기술원FA장비ED담당 양기 △CS센터 한국서비스FD담당 이규택 △소재/생산기술원 공정장비ED담당 이승기 △러시아법인(H&A) 이승철 △태국생산법인장 이영재 △에어컨생산FD담당 이재현 △H&A세탁기 T/Loader PMO 장보영 △HE IT BD담당 장익환 △VC북미사업센터(그린개발) 조영삼 △VC북미사업센터(스마트개발) 조현진 △CHO인사FD담당 주종명 △H&A디자인연구소장 차용덕 △걸프법인장 최용근△MC유럽영업FD담당 최진학△H&A에어솔루션 B2B미주/유럽/CIS영업FD담당 최항석 △글로벌물류FD담당 허정찬 △한국시스템지역FD담당 홍지삼 △이베리아법인장 Jaime de Jaraiz △H&A어플라이언스연구소 선행기술3팀장(수석연구위원) 김영수 △CTO SIC센터 MSD팀장(수석연구위원) 김진경 △소재/생산기술원 기술소싱Task리더(수석연구위원) 조일제

◆**LG경영개발원** 〈신규선임〉 △상무 정재영 〈전입〉 △상무 조중권

◆**LG상사** 〈승진〉 △전무 박용환 〈신규선임〉 △상무 백풍렬 강성철

◆**LG이노텍** 〈승진〉 ◇**수석연구위원(전무급)** △전장부품개발2담당 허동영 〈신규선임〉 ◇**상무** △모터연구소장 김용태 △업무혁신담당 조형철 〈전입〉 ◇**전무** △CTO 권일근

◆**서브원** 〈승진〉 △부사장 석영한(레져사업부장) 〈신규선임〉 △상무 서재완 이강열 이준형

◆**LG연암문화재단** △전무 정창훈(LG아트센터장)

◆**LG스포츠** △상무 진혁

◆**LG생활건강** ◇**전무 승진** △음료사업부장 이형석 ◇**상무 선임** △생활용품 홈케어연구부문장 곽상운 △럭셔리화장품·내츄럴마케팅부문장 오상문 △품질·유해물질관리부문장 이정미 △청주화장품공장장 장병준 △재경부문장 장창순 △럭셔리화장품·면세점영업부문장 전필성 △중국사업부문장 홍성하 △생활용품·할인점영업부문장 겸 유통영업부문장 황준연 ◇**상무 전보** △정도경영부문장 서동희

◆**LG화학** ◇**부사장** △전지·글로벌생산센터장 전수호 ◇**전무** △PO사업부장 윤명훈 △중국용싱법인장 노국래 △자동차전지·마케팅3담당 장승세 △자동차전지·개발·Cell개발담당 정근창 △전지·품질센터장 심원보 〈신규선임〉 △상무 이시언 선우지홍 안성태 한상철 홍정진 은기 서원준 장도기 김양한 이성만 이호경 〈승진〉 △수석연구위원 이기수

◆**LG디스플레이** 〈승진〉 △부사장 최형석 신상문 △전무 김태승 신정식 오강열 이주홍 △상무 권극상 김기영 김용진 김종성 김창한 김현주 박권식 안승모 오수진

◆**LG하우시스** ◇**상무** 신규선임 △경영전략·혁신담당 박민수 △품질·안전환경담당 김진하 ◇**부사장 전입** △CFO 성기섭

◆**LG유플러스** ◇**부사장 승진** △PS본부장 황현식 ◇**전무 승진** △CRO 정책협력담당 박형일 △NW본부 NW운영부문장 김훈 ◇**상무 신규선임** △PS본부 호남영업담당 곽근훈 △PS본부 홈영업담당 정용일 △BS본부 e-Biz사업담당 손종우 △FC본부 기반서비스담당 최창국 △FC본부 지능디바이스개발팀장 송대원 △NW본부 Access기술담당 김대희 △빅데이터센터장 강호석

◆**실리콘웍스** ◇**대표이사 선임·부사장 승진** △손보익

◆**LG CNS** 〈승진〉 ◇**전무** △이동언 CFO ◇**상무** △신억기 M&E사업담당 △정운열 공공사업담당 △이승욱 정보기술연구원장 △박상균 전략담당 △백성훈 스마트그린사업담당 △정정욱 업무홍보담당 △윤석 법무담당 〈자매사 전입〉 △이재명 정도경영담

부음

▲**공영우**(사업)·**영운**(현대·기아자동차 홍보실 부사장)씨 모친상 = 1일, 부산시민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7시, 051-636-4444

▲**손동수**(송원잔디 근무)·**동섭**(농협은행 홍보부장)·**동호**(신한은행 현대모터타운 대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씨 모친상 = 30일, 경북 안동의료원, 발인 3일 오전 8시, 054-850-6440

▲**이창룡**(전 건국대 국어국문과 교수)씨 별세, **최영자**(전 한국외대 영어과 교수)씨 남편상, **이태준**(에어린 대표이사)·**윤정**(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영상팀장)씨 부친상 = 1일, 건국대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30분, 02-2030-7903

▲**김남경**(전 LG화학 특판부장)씨 부인상 = 3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20분, 02-3010-2236

감염병 예방백신 개발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대표

"국내산 콜레라백신 美에 첫 등록 목표"

빌게이츠재단·유니세프 등 공급
국제기관 이어 최근 개별국가 협의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백신을 최초로 미국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감염병 예방백신 개발·공급 전문기업 유바이오로직스의 백영옥〈사진〉 대표는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경구용 콜레라백신(OCV) 미국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2010년 국제 공공백신 개발을 위해 설립됐다. 국제백신연구소(IVI)와 경구용 콜레라백신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뒤 빌게이츠재단, 유니세프(UNICEF) 등의 국제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경구용 콜레라 백신의 공급 확대에 애쓰고 있다.

백 대표는 "도미니카공화국, 파키스탄, 이집트, 이란, 이라크 등과 콜레라 백신 공급을 위한 개별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파키스탄은 백신 등록을 완료하고 약가 산정 단계에 있고, 이집트도 초도물량이 12월 중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시장은 2019년쯤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유리 바이알 형태로 제작된 유비콜에 이어 플라스틱 튜브 제형의 신제품 '유비콜 플러스' 출시도 앞두고 있다. 플라스틱 튜브 제형은 가볍고, 부피가 줄어들어 보관·수송이 쉽고, 투여·복용하기 간편해 단체 접종하기에 좋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유니세프의 PRV(Priority Review Voucher) 획득도 기대하고 있다. PRV는 의약품 우선 심사권 부여제도로 치료제 개발 시 개발사의 의약품 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PRV는 다른 회사로 판매할 수 있어 이를 통한 신규 매출 창출도 기대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태국 와치랄롱꼰 국왕 즉위



태국 마하 와치랄롱꼰(64·사진) 왕세자가 1일(현지시간) 국왕에 즉위했다. 새 국왕은 지난달 88세를 일기로 서거한 푸미폰 아둔야뎃 전 태국 국왕(라마 9세)의 장남으로 전 국왕이 서거한 지 50일 만에 왕위 계승을 완료했다.

국왕 부재가 길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었으나 우려했던 혼란이 일어나지 않아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1일 밤 와치랄롱꼰 왕세자는 과도의회격인 국가입법회의(NLA)의 폰펫치 위칫촐라차이 의장을 만나 국왕추대 제의를 수락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와치랄롱꼰 국왕은 수락 연설에서 "나는 모든 태국 국민을 위해 선왕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선언했다. 전 국왕은 재위 기간이 70년으로 현역 국가원수로서는 가장 길었다. 따라서 대다수 태국 국민에게 이번은 처음 보는 왕위 계승식이었다.

탁신파와 반대파의 분열로 태국에서 새 국왕이 정치와 어떤 거리를 둘지는 불투명하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영화 만드는 일은 구토와도 같다" 〈'할리우드의 기인' 워렌 비티〉

할리우드 통신



박 흥 진
영화평론가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회원

할리우드의 총아에서 기인이 되다시피 한 배우 겸 감독 워렌 비티(79)는 한국 팬들에게 나탈리 우드와 공연한 '초원의 빛'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 그가 미국 역사의 또 다른 기인 하워드 휴즈로 나온 '룰스 돈 어플라이'(Rules Don't Apply)는 '타운 앤 컨트리' 이후 15년 만에 만든 향수 짙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그가 각본도 쓰고 감독했다.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너는 규칙에서 예외야' 정도의 뜻이다.

영화사 사장인 휴즈가 고용한 젊고 예쁜 예비 스타 말라(릴리 칼린스)와 말라의 젊은 미남 운전사 프랭크(알덴 에렌라익)의 로맨스, 그리고 이들 세 사람의 관계를 그린 영화인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영화에는 그의 아내 아네트 베닝이 말라의 어머니로 나온다.

감색 정장을 한 비티는 나이답지 않게 정정하고 준수한 신사인데 비밀에 싸인 흉물이었던 휴즈처럼 음흉할 정도로 노련했다. 지적이면서 유머와 위트도 있지만 질문에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대답을 하는 것. 신중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엉뚱한 대답을 하거니 오리발을 내미는 식이었다. 인터뷰 후 기념사진을 찍을 때 필자가 한국인이라고 소개하자 비티는 "한국엔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다"며 미소를 지었다.

△과거가 그리운가.

"1961년 데뷔작 '초원의 빛'이 큰 인기를 끌며 순조롭게 할리우드 생활을 시작한 행운아다. 그래서인지 늘 이 영화처럼 과거의 일들을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 '초원의 빛'으로 성공한 이후 난 다른 사람들처럼 영화에 계속 나오지 않아도 됐다. 버지니아주의 침례교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여권운동이 한창이던 1958년에 할리우드에 왔는데 그때 영화사들은 성적 혁명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다. 나도 그 문제는 주저 없이 대응했다(플레이보이로 유명한 자기를 은근히 비꼰 말이다.)"

△영화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는가.

"난 늘 몇 개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영화의 첫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야, 이거다' 하고 짚이는 것을 만든다. 이 영화도 그렇다. 난 휴즈를 만나진 않았으나 그를 알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휴즈에 대해 좋게 말하더라. 난 늘 그에 대해 호기심이 있었다."

△왜 영화를 그렇게 뜸하게 만드는가.

"영화 말고 인생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때론 일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진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난 때로 영화 만드는 일이 마치 구토와도 같이 느껴진다. 그렇다고 내가 구토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가 머리에서 뱅뱅 맴돌고 그런 것이 재미있다가도 그 일로 인해 고문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차라리 모든 것을 구토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다."

△이 영화는 화려한 할리우드에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는 말을 믿는가.

"그렇다. 이유는 묻지 말라."

△반세기 동안 할리우드에서 일하면서 영화계가 어떻게 변화했다고 보는가.

"명성 때문에 내 삶은 큰 변화를 겪었다. 명성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감독으로 말하자면 난 지금과 6개월 전이 다르다. 늘 변하고 적응해야 한다. 영화계도 디지털과 대규모 개봉 등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지금은 개봉일인 금요일과 그 주말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예전에는 비평가들의 의견이 영화의 장기 개봉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연히 감독도 현재의 관객 취향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다."

△아내, 네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가.

"우린 모두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한다. 자식들과는 협상을 한다. 다 훌륭한 아이들이다. 유명한 부모의 자녀들은 삶이 쉽지가 않아 난 그들의 사생활 보호에 신경을 쓴다. 그리고 난 완벽한 여자와 결혼했다."

△말라와 프랭크의 로맨스 아이디어는 어떻게 구상을 했나.

"유명 인사의 전기를 영화로 만들자면 어느 정도 허구가 섞여야 한다. 단순히 휴즈에 관한 것이라면 난 안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휴즈의 본질만 사용하면서 두 청춘 남녀의 사랑을 가미했다."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두 분 다 교육자였다. 아버지는 교육심리학 박사였고 어머니는 연기 교사였다. 그러나 부모는 내게 일절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래서 난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켜는 바람에 나는 서푼짜리 피아니스트가 됐는데, 그래서 뉴욕에 진출했을 때 바에서 피아노를 쳤다."

△지나간 인생을 돌아볼 때 과거와 달리 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없다."

△'초원의 빛'이 한국에서 상영됐을 때 한국의 젊은 여자들은 물론 가정주부들까지도 워렌 비티에게 반해 난리가 났었다. 그야말로 열광이었는데 팬들의 그런 광적인 반응을 그리워하는가.

"아니 그럼 한국의 가정주부들이 나로 인해 마음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고맙다. 난 팬들의 그런 열광을 처음부터 아예 기대하지 않았다."

△할리우드는 감독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난 할리우드를 사랑한다. 할리우드는 나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줬다. 그리고 이곳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다."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가.

"난 늘 몇 개의 영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난 느린 데다 꼭 그것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이디어 자체로 머물곤 한다. 아내와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내게 가져다 줘 영화보다는 그들과 함께 할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며칠 전에 처음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했다. 앞으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이다."

△명성과 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둘 다 무엇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큰 이점이다. 귀하지만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당신은 과거 유명한 바람둥이였는데 재미로 여자들을 즐겼는가.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 질문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질문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도 난 안다. 그러나 난 당신 질문이 사실이 아니기에 대답을 거부하겠다."

△처음 할리우드에 왔을 때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운이 좋았다. 윌리엄 와일러, 조지 스티븐스, 빌리 와일더, 프레드 진네만, 샘 골드윈, 데이빗 셀즈닉, 대릴 재넉 등이다. 이들로부터 배우고 또 그들과 겨루려고 했다."

△당신은 나르시스트인가.

"각본가로선 그렇다. 작가의 나르시시즘은 모델이나 배우들보다 훨씬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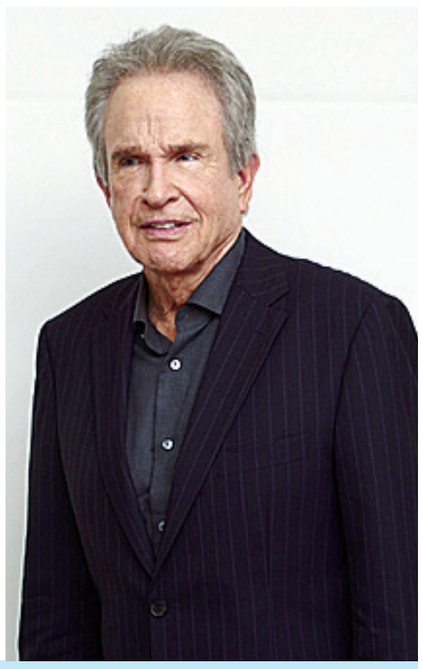
블로그: hjpark1230.blogspot.com

"영화가 왜 그렇게 뜸하냐고? 우리에겐 영화 말고 인생이 있지 않나 머리에 맴돌다 토해내고 싶을 때가 있다"

하워드 휴즈 전기 바탕 '룰스 돈 어플라이' 감독·각본·연기에 아내 아네트 베닝도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



▲휴즈(왼쪽)와 예비 스타 말라.
▶워렌 비티. 그도 벌써 79세다.



숱한 여인을 '정복'한 플레이보이 혹은 골수 민주당원

제작자 겸 감독, 각본가, 배우인 워렌 비티는 '초원의 빛'으로 한순간에 스타가 된 뒤 자신이 제작하고 주연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가 크게 히트를 치면서 슈퍼스타로 부상, 카리스마와 성적 매력, 그리고 지성과 영화에 대한 정열로 할리우드의 총아가 되었다. 그는 1981년 미국인 공산주의자로 크렘린에 묻힌 존 리드의 실화 '레즈'로 오스카 감독상을 받았다. 그의 누나도 오스카상을 탄 배우 셜리 매클레인이다.

골수 민주당원으로 한때 대통령 후보 출마설까지 나돈 그는 평판이 중요한 정치인과 배우 모두에 적합한 인물이다. 그러나 비티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플레이보이. 하룻밤에도 몇 차례씩 성행위를 즐기는 정력가로 '움직이고 스커트만 둘렀으며 매력만 있다면 워렌은 그걸 차지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자를 사랑했는데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의 부인 데위와도 염문을 뿌렸다. 비티와 공연한 여배우는 물론, 다른 많은 연예인들도 다 그에게 함락됐는데 나탈리 우드, 페이 더나웨이, 골디 혼, 줄리 크리스티, 다이앤 키튼, 마돈나, 브리지트 바르도, 레슬리 커론, 바네사 레드그레이브, 진 시버그, 다이애너 로스 등이 그 일부다. 그러나 비티는 1992년 '벅시'에서 함께 공연한 아넷 베닝과 결혼한 이후엔 얌전히 살고 있다.

한국여성 인물사전 〈2〉지소태후

진흥왕 어머니로 11년 섭정
신라 황금기 열었던 정치가

◇**법흥왕의 딸**=지소태후는 신라 제24대 왕인 진흥왕의 어머니로 신라 최초의 섭정이다. 진흥왕은 일곱 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다. 그전까지 일곱 살이라는 어린 나이는 왕위 계승의 결격사유였다. 신라에서 '왕'을 뜻하는 '이사금(尼師今)'이라는 호칭이 잇금, 즉 치아를 많이 가진 자를 의미할 정도로 신라의 왕위 계승에서 연령은 중요했다.

더구나 진흥왕은 왕의 아들이 아니었다. 진흥왕의 아버지는 입종갈문왕으로 법흥왕의 동생이었다. 이에 진흥왕이 법흥왕의 조카로 왕위를 계승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신라에서 조카의 자격으로 왕위를 계승한 적은 없었다. 신라 왕실은 적통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을 매개 고리로 하여 사위나 외손이 가계를 계승해 왔다. 진흥왕이 즉위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지소가 법흥왕의 딸이었기 때문이었다.

◇**신라 최초의 섭정**=일곱 살, 어린 왕의 즉위는 섭정이라는 기이한 정치형태를 동반하였다. 어린 진흥왕을 대신하여 섭정한 것은 어머니 지소였다. 신라의 섭정은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 등 왕실 여성이 자동적으로 담당한 조선시대 수렴청정과는 달랐다. 당시 정권을 장악한 실권자가 섭정을 하는 것으로, 남성이 섭정자가 되기도 하였다. 지소가 진흥왕대 섭정을 했던 것도 진흥왕의 어머니라고 하는 혈연적인 요소 때문만은 아니었다. 진흥왕 즉위를 전후해 신라 정계를 장악한 실력자였기 때문이었다. 지소는 진흥왕이 친정을 하기까지 11년간 섭정으로서, 정치일선에서 국정을 통괄하였다.

◇**섭정기 지소태후의 치적**=지소가 섭정했던 시대는 신라가 발전하느냐 다른 나라에 병합되느냐 기로에 있는 격변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소는 병부와 사정부 등 관제를 정비하고,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하는 등 대내적으로는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추진하였다. 또한 신라 최초의 사원인 흥륜사를 완성시켰으며, 승려로의 출가를 허용하는 등 불교의 정착화에 힘썼다. 원시적인 유제였던 여성을 지도자로 하는 원화제를 남성을 지도자로 하는 화랑으로 개편한 것도 지소태후다.

그녀는 삼국의 영토 쟁탈전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소태후가 섭정을 담당했던 시기에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으며, 고구려와 백제 영토였던 한강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등 중국 대륙과의 통교로 국제적인 위상도 드높였다. 신라는 진흥왕대 대내외적으로 발전했는데, 지소태후가 섭정기에 안정적으로 기반을 마련한 덕분이다.

김선주 중앙대 강사·고대사 연구자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 STORY 비로소 나를 돌보기

PART1. 자기다운 삶은 '비교급'이 아닌 '절대급'으로 사는 것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PART2. 가까운 미래를 계획하며 나만의 삶 돌보기
PART3. 7人 7色 나를 위한 돌봄 이야기
PART4. 나를 위한 투자 시작해볼까요?
PART5. 美, 온전히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
PART6. 스스로에게 자격증을 주는 마음 다스리기
PART7. 몸부터 살려라
PART8. 동년기자에게 듣다 최은주·장영희·박종섭·강신영·김종억·최원국 동년기자

문학관 답사기 | 한무숙 문학관

문화가 흐르는 길 옆, 문학 숙녀의 아지트를 탐방하다

혜화역 4번 출구를 나와 혜화동 로터리에서 길을 건너 3분가량을 걸었다. 한무숙 문학관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무심히 걷고 뛰던 대학로 길 옆. 이 익숙한 거리를 수없이 지나다니면서도 문학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니.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서자 문학관 입구가 보였다. 긴 숨을 내쉬고, 무거운 나무 대문을 열고. 그녀와 첫인사를 나눴다.



12월의 산책



또 하나의 작은 지구 '국립생태원'

기온이 뚝 떨어지면, 밖에서 노닐고 싶은 의욕도 뚝 떨어지기 마련이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맹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따뜻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다. 한겨울에 만나는 열대우림과 사막, 신비로운 생물이 가득한 국립생태원에서라면 가능하다.

신화보가 만난 사람



세상 앞에서 당당한 마임이스트 유진규
힘이 다하는 날까지 무대 위에 서겠다



60세에 시작한 기자로서의 인생 2막, 희망의 증거가 되다
기자 겸 사진작가 '조이스 리', 용감무쌍한 길 위의 여자



"치과의사가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죠!"
장영준 대한바이애슬론연맹 회장

겨울철 건강 챙기는 따끈한 산약초 샤브샤브

찬바람 부는 겨울이면 뜨끈뜨끈한 국물이 떠오른다. 특히 모임이 잦은 연말에는 함께 즐기기 좋은 샤브샤브가 제격이다. 고기와 함께 채소와 버섯 등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어 부담 없이 즐긴다는 것도 매력. 여기에 우리 몸에 좋은 산약초까지 곁들인다면 어떨까? 산약초 샤브샤브 맛집 '솔내음'을 소개한다.

12월의 맛





이봉규 심야 데이트 "남자들의 자격지심이냐?"

대학생 아들을 둔 김성경(45), 자신감 하나는 국가대표급이다. 이것이 오늘의 대체 불가능한 방송인 김성경을 만든 원천이 되었고 그녀는 현재 아나운서가 아닌 방송인으로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남자가 리드해줄 때 성적 판타지가 충족될 것 같다는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동년기자들의 페이지
김종대·박혜경·이경숙·신용재 동년기자
크리스마스에 생긴 일

박원식이 만난 귀촌
충남 천안시 병천면 시골에 사는 이기순씨 부부
참을 수 있는 고난, 참을 수 없는 흙 사랑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세미나의 웃기는 풍경

내가 운영하는 한국언론문화포럼은 2013년 5월 창립 이후 3년여 동안 16차례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나름대로 꽤 많이 한 셈인데, 사실은 세미나가 뭔지 심포지엄과 뭐가 다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최근에야 진지한 궁금증이 생겨 사전을 찾아 구별법을 알게 됐다. 간단히 말해 한 사람이 발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자들과 청중이 문답을 하는 것이 세미나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각자 의견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토론회는 심포지엄이다. 세미나는 연구회, 심포지엄은 집단 토론회의로 바꿔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잘 먹혀들지는 않는 것 같다.

어쨌든 세미나의 주제에 따라 청중의 숫자와 열기가 확 달라진다. 민감한 정치적 이념적 현안을 다루는 세미나는 자리를 못 채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1월 개최한 국정교과서 세미나도 그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언론보도'를 주제로 11월 30일 개최한 16차 세미나 역시 그러했다. 발표자에 대한 공박은 물론 청중끼리 다투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



나는 20여 년 전부터 각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전문적 식견이 없어 주제 발표를 맡아본 적은 없는 것 같다. 10여 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슈였을 때 충청지역 단체가 세미나를 개최한다며 토론자로 참석하라기에 가보았더니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주제 발표자는 물론 토론자들 모두 조속한 행정수도 이전과 공약 준수를 거품을 물고 소리쳐 외쳤다.

세미나 개최 취지야 뻔하지만 그래도 논리와 근거를 대며 차분하게 주장을 펴면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것은 세미나가 아니라 찬성 웅변대회였다. 하도 지겨워 나에게 주어진 발언시간을 대폭 줄이고 마이크를 넘겼더니 사회자가 무척 고마워했던 기억이 난다.

각종 세미나에서 가장 꼴불견인 것은 주제 발표자보다 더 오래 떠들려고 하는 패널리스트들이다. 발표문을 바탕으로 그에 관한 의견을 밝히거나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발표문과 관계없이 지루하게 또 다른 논문 하나를 쓰는 식이다. 그런 사람한테 걸리면 세미나 진행자는 애가 탄다. 표정으로, 몸짓으로 그만 좀 이야기하라고 주의를 주어도 어떤 사람들은 오불관언이다.

청중도 마찬가지다. 질문이나 의견 제시가 아니라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국정교과서 세미나 때는 주제 발표문이 마음에 들지 않자 마이크를 달라고 하고는 발표자 쪽이 아니라 청중을 향해 서서 한참 선동을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그만해요" "집어치워!"라는 고함이 터져 나오자 겨우 발언을 그쳤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세미나를 하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갔다. 나는 속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제발 오지 마세요.

세미나에서 질문을 할 때는 간략하게 요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드물다. '예일대' 출신(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장황하게 자기 이력을 소개하고는 질문인지 의견인지 딴전인지 모를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정말 시간이 아깝다. 어려서부터 질문을 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럴 것이다.

하기야 질문이 전부라고 할 기자들마저 오갈이 들어 손을 들지 못하고, 모처럼 질문을 한 청와대 출입기자가 인터뷰 대상이 되는 세상이니 더 말해 뭐하겠어?

주필 fusedtree@

이필상 칼럼



서울대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

경제위기 부르는 정경유착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나라가 혼돈에 빠졌다. 국민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를 연이어 열며 정권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한 탄핵이 불투명하게 되면서 정국이 더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다. 언제 어떻게 국정이 정상화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정부 관료들은 일손을 놓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의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임명이 불투명해 경제정책은 표류 상태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권력형 비리의 재앙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한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해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은 기업들에 기금 출연을 초법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기업들은 반대급부로 기업 총수의 사면, 경영권 방어, 세무조사 무마 등의 민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크다.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취함에 따라 국가시스템이 흔들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파국으로 가고 있다.

이번 사태의 관건은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비리 의혹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강화를 도운 바 있다. 국민연금이 이와 같이 삼성그룹을 도운 것은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에 대한 대가로 청와대 등의 지시에 따랐다는 의혹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3자 뇌물죄의 피의자가 되어 중형을 받는다.

이외에도 SK그룹과 롯데그룹의 면세점 허가를 둘러싼 정경유착 비리도 사실일 경우 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의혹받는 기업인이 한둘이 아니다. 삼성, SK, 롯데는 물론 현대자동차, 한화, 한진 등 주요 그룹의 회장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국회 국정조사, 특검수사 등에 줄줄이 소환되어 추궁받을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사법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기업경영의 차질과 경제불안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정경유착의 틀 안에서 성장했다. 따라서 태생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정경유착은 정통성이 부족한 정치권력과 경제를 독점하고 싶은 기업들이 형성한 비자금과 이권을 주고받는 비리 공생 체제이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정경유착 관련 기업들은 사업의 인·허가, 금융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다수의 계열 기업을 거느리는 제왕적 총수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되자 해당 기업들은 정치권력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거부하기 어렵다. 특히 각종 사업의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서 특혜 대신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커 보험으로 정치권력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경유착 체제의 기업 성장이 한계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최근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 붕괴 위험에 처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물량공세에 속수무책이다. 정부의 지원책으로 근근이 연명하는 처지이다. 자칫하면 기업들이 경제를 안고 쓰러지는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다. 경제가 추락의 위기를 맞고 민생은 파탄이 난다. 국회는 대통령의 퇴진을 조기에 매듭지어 정국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동시에 과도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한시바삐 정상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제부총리와 경제팀을 확실하게 정해 경제정책과 운영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다음 대통령선거를 조기에 실시해 새 정부가 나라발전과 경제회생을 꾀하게 만들어야 한다.

실로 중요한 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의 암세포가 다시 분열한다. 돈 안 드는 선거, 권력 남용 방지, 국정운영의 투명화 등 관련 정치개혁과 정부개혁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재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시장독점과 불공정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기업들도 잘못을 정직하게 밝히고 불법 상속, 경영세습, 뇌물공여, 분식회계 등의 비리를 척결해 권력의 요구를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오늘의 인물 12월 2일

강용흘

영문 장편 '초당'…한국계 미국인 문학의 아버지

1931년 뉴욕에서 '초당(The Grass Roof)'이라는 영문 장편 소설이 출간됐다. 한국인이 한국을 배경으로,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써서 성공을 거둬 주목받은 작품이다.

2부 24장으로 구성된 '초당'은 '한국계 미국인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강용흘(1903.6.5~1972.12.2)이 출생부터 도미하기까지의 삶을 회상하듯 그린 자전적 소설이다. 제목 '초당'은 유성원(柳誠源, ?~1456)의 시조 '초당에 일이 업서…'에서 따온 것으로, 한국 전통가옥을 상징하며 한국적인 삶이 극명하게 표현돼 있다. 구겐하임 상, 금세기의 책(The Book of the Centry) 상 등을 수상했으며 독일, 프랑스 등 10여 개국에서 번역, 출판됐다. 한국어로는 1947년 제1권만 번역, 간행되고 제2권은 번역되지 못했다.

함흥 영생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3·1운동 후 중국, 일본 등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보스턴대학에서 의학을, 하버드대학에서 영미문학을 전공했으며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편집위원으로 일하면서 창작활동을 했다.

강용흘은 뉴욕대학 등에서 '동양 문화와 비교 문학'을 강의하면서 소설 '행복한 숲', '동양인이 본 서양'과 희곡 '왕실에서의 살인' 등을 발표했다. 광복 직후 귀국해 미 군정청 출판부장, 서울대 문리대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펄 벅은 그를 '동양의 가장 빛나는 예지'로, 토머스 울프는 '자유롭고 생기 있는 타고난 시인'이라고 격찬했으며 유럽의 권위 있는 '20세기 작가 사전'에 수록돼 한국인 작가 최초로 전 세계에 널리 소개됐다.

작품 소재를 항상 한국에서 구한 '영원한 한국인'이었던 그는 1968년에 50년간 수집한 장서 5000권을 고려대에 기증했다. 1970년 국제 펜클럽 서울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장대명 편집부 차장 dmjang@

카드로 보는 세상



1960년대 총을 든 군인에게 꽃을 건넨 미국 히피들의 반전시위. 2016년 광화문 광장의 '박근혜 퇴진시위'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시위대를 막아선 경찰차가 꽃 스티커로 도배된 것입니다. 한 미술가와 크라우드 펀딩사가 함께 기획한 '차벽을 꽃벽으로'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고 노래한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꽃벽'이 대치 중인 혼란의 경계를 뛰어넘는 신뢰의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uASfEK

온라인 와글와글



정부, 대체공휴일 확대 검토 "공무원들만 좋겠네"

정부가 어버이날을 신규 공휴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체공휴일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 보고서를 마련해 최근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일부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옮겨 사흘 연휴를 만드는 방식인 요일지정 공휴일제 도입, 대체공휴일제 확대 적용, 어버이날인 5월 8일을 신규 공휴일로 제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네티즌은 "대체공휴일이 늘어나면 뭐하나. 막상 직장인들은 쉬지도 못할 텐데", "공무원들만 좋겠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찬성"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jy0403@



낳아주신 은혜에
비할 순 없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서 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 예약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 T.032-514-0028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82 (부평동, 대한빌딩 7,8층)

이슈&인물

전기료 개편 1·2·3안 장단점…국민 선호안으로 결정될 것

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

조환익 한전 사장

1안 누진제 원리 가장 근접

2안은 다소비 가정에 유리

절충한 3안 인하율 가장 커

정부, 이달 중순 최종 결정

전압별 공급원가 차이 두는

요금제로 단계 전환 바람직

전기차 보급, 충전소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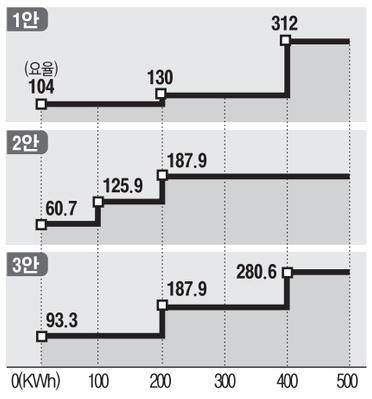
한전 주도로 인프라 구축 중

취임 후 실적개선…1년 연임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 뉴욕대 경영대학원(석사), 한양대 경영대학원(박사)을 졸업했다.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가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실 부이사관,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 국장,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차관 등을 지냈다. 이어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코트라 사장을 거쳐 2012년 12월부터 한전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 말 3년 임기가 만료됐지만 1년 연임됐다. 3연임할 경우 한전 사상 최초의 3연임 기관장이 된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3개월여 동안의 작업 끝에 3가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소비자는 물론 전기 공급 주체인 한국전력도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 4년간 한전을 이끌어 온 조환익 사장으로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에너지산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3안 비교 (단위: 원)



산업(을)·일반(을) 이미 전압별 적용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3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이번 개편안에 대한 입장은.

"11월 28일 전기요금 개편안 공청회에서 패널과 참석자들은 3안을 선호했다. 3안은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안이다. 평균 인하율이 11.6%로 3개안 중 가장 크며, 누진제 완화 효과가 다소비 가구에만 집중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

반면 판매 단가가 다른 안보다 높다 보니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서 3단계를 넘어가면 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은 2안을 선호한다. 그러나 현행 1~2단계 누진 구간 및 누진 요율을 그대로 유지해 전기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1안의 경우 누진 구간, 누진 요율은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한 개선안이기는 하나, 저소비 구간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각 안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본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맞춰 향후 우리나라 전기요금 제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현행 용도별 요금제는 전력 공급 비용 외에도 전력 수요 관리, 에너지 배려 계층 보호, 소득 재분배 등 각종 정책적 요소가 반영돼 있다. 이에 용도별 요금 격차가 발생하거나 농업용처럼 저렴한 요금제 적용을 요청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향후에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압에 따라 전압별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해 요금을 결정하는 전압별 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산업용(을)과 일반용(을)의 경우 2013년 11월부터 요금단가표를 통합해 이미 전압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신(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에 부합해야 한다.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가격 중심의 수요 관리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전기요금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전기요금 체계 개편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美 단기적으로 화전 확대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 등을 예고했는데, 에너지 분야 수출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나.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자국 중심의 친(親)화력 에너지 정책으로, 글로벌 에너지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우선 미국 내 석유·가스 채굴 확대에 따라 유가 안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이며 환경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단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화력 공급 확대로 인한 신재생 발전 유인 저하는 전력회사에 선택의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 확대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중심의 탄소 감축 노력이 이뤄졌다면, 향후에는 공급 물량이 확대되며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가스가 석탄·석유를 대체하는 탄소 감축 방안으로써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화력발전 공급 확대 정책은 자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파리기후협정 탈퇴에 4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환경 관련 규제 폐지 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요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재생 발전의 즉각적인 축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국내 전력 산업은 트럼프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화력발전의 메리트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국민의 환경 관련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신재생 확대와 더불어 천연가스 확대가 탄소 감축의 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 사장은 3가지 개편안 모두 장단점이 있어 요금 인하 효과가 국민에게 두루 적용되는 안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유가 하락과 신재생 시장의 단기적 위축이라는 환경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신사업 기술 역량 축적과 사업모델 고도화를 통해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요 원인과 한전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는 2020년 전기차 25만 대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기차 보급은 저조한 상황이다. 10월 기준 전기차 등록은 8518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0.04%에 불과하다.

또 짧은 주행거리와 더불어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전기차가 아직 출시되지 않아 실제 구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아이오닉 191㎞, 쏘울 148㎞ 등 국내 출시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평균 140㎞에 그친다. 더불어 최소 30분에서 최대 5시간이 걸리는 충전 시간과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도 보급 확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기차 분야는 초기 수익모델 발굴이 어렵고, 투자비 부담이 커 민간사업자의 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공공 충전 인프라는 80%에 달한다.

한전은 초기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충전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기차의 확산과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한전 사옥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현재 158개소에 554기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부터는 2000억 원을 투자해 개방형 충전소와 공동주택 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방형 150개소 300기, 공동주택 4000단지 5000기, 복합서비스형 7개소 165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 단위 스마트 에너지관리 추진

△최근 미국 몽고메리 대학과 스마트캠퍼스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한전이 그리는 미래도시는 어떤 모습인가.

"한전은 2009년부터 지구 온난화 방지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 참여해 왔다. 스마트타운은 2013년 개발한 구리지사의 빌딩형 모델인 K-BEMS보다 업그레이드된 에너지 솔루션으로 지난 10월 한전 인재개발원에 최초로 적용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건물들은 스마트콘센트와 조명장치에 의해 불필요한 전원, 즉 빈방 같은 곳의 전원을 실시간으로 끌 수 있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고, 심야시간에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기를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쓸 수 있어 요금도 절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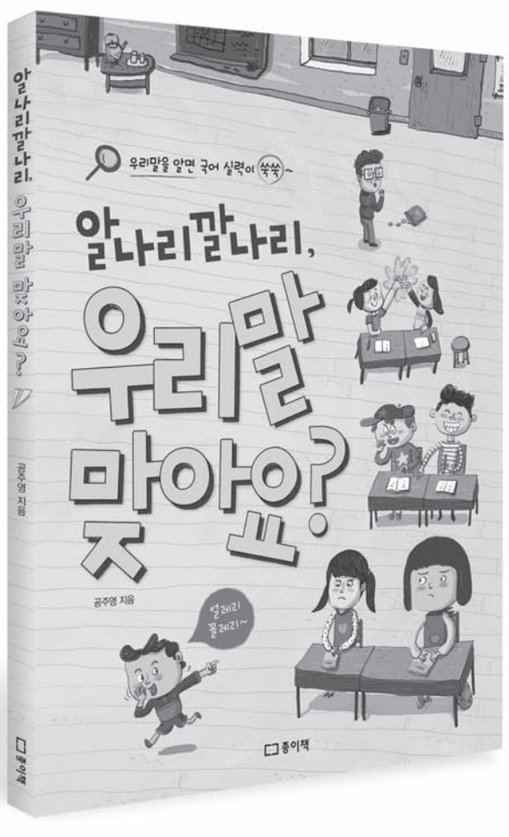
한전은 2030년 국가 단위 스마트그리드를 완성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의 가장 기본 단위인 스마트홈과 스마트빌딩의 솔루션을 확보했다. 스마트타운, 스마트시티, 스마트국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자립도 및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이룰 것이다.

도시기반시설인 전기·가스·상하수도·열 등 도시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 생성과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스마트 교통 및 스마트 주차관리, 가로등 및 폐쇄회로(CC)TV를 통합 관제해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성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58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64 산업2부 (02)799-2641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공주영 지음 | 178×240mm | 11,200원



세 살 버릇 여든 가듯, 초등학생 국어 실력 평생 간다!
이번 여름방학, 포켓몬 잡으러 go? 내 아이 어휘력 잡으러 go, go!

1~4학년 교과서 수록 단어 포함!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재미있는 우리말!

- 교과서 수록 단어를 포함한 우리말 160여 개 풀이
- 반복 학습을 돕는 <은솔이가 내는 쏙쏙 우리말 퀴즈>
- 자주 써서 오래 기억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말을 써 봐요>



온 · 오프라인 서점 절찬리 판매 중!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79길 2, 4층 | Tel. 02-540-5192 | Fax. 02-540-5194 리스컴



위기의 대형엔터

스타군단 붕괴 'YG'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눈앞에 큰 산을 두고 있다. 신구 성장동력의 전환이 이뤄지기도 전에 국외 정세까지 어지러워지면서, 최근에는 연중 최저가에 주식이 거래되기도 했다.

YG는 지난 11월 25일 위너 전 멤버 남태현의 탈퇴와 투애니원의 해체 소식을 동시에 알렸다. 위너는 4인조로 개편됐고 투애니원 출신 씨엘과 산다라박은 개별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적 멤버'였던 남태현과 박봄은 YG와 계약을 해지했다.

YG로서는 적지 않은 고충을 안은 셈이다. 회사를 대표하던 팀은 사라졌고 차세대 성장동력은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YG 수입에 높이 기여하던 그룹 빅뱅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고 중국발 '한한령(限韓令)' 리스크로 인해 투자 또한 위축된 상황이라, 실적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YG의 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YG는 전일 대비 6.19% 하락한 2만6500원으로 장을 마쳤으며, 장중 2만5800원으로 1년 내 신저가를 새로 썼다.

가장 큰 요인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로 인한 중국의 한국 콘텐츠 규제다. 지난 7~8월부터 암묵적으로 시행되던 한한령이 최근 규제 범위를 온라인으로까지 넓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들이 일제히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엔터주는 사드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시장분석에도 주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다"며 "중장기적인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빅뱅의 군 입대 또한 YG가 눈앞에 둔 숙제 중 하나다. 빅뱅은 지난해 YG 매출의 절반 이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탑이 내년 2월 입대를 확정한 상황이고, 지드래곤과 태양 역시 2018년 중에 입대할 예정이어서 향후 몇 년간 완전체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유닛 및 개인 활동의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완전체 활동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직 국내외에서 빅뱅을 대체할 수 있는 팀은 없다. YG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혔던 위너는 남태현의 심리적 건강 문제를 이유로 적지 않은 공백기를 가졌다. 증권업계에서는 아이콘의 해외 투어 매출 추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빅뱅의 군 입대에 따른 실적 공백 우려를 점차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지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YG의 2017년 EPS(주당순이익) 추정치는 연초 대비 23.5% 하향 조정됐다. 미래 실적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낮아졌다는 의미다.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김창권·박정엽 연구원은 "목표주가 상향을 위해서는 2017년 이후에도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

'위너' 남태현 탈퇴·2NE1 해체 중국 규제 겹치며 주가 하락세 빅뱅 군입대… 성장동력 비상

'脫큐브' 비스트 독자활동 선언 큐브 "결정된 것 없다" 선 그어 포미닛 해체후 성과 부진 '위기'

비스트에 물린 '큐브'

비스트의 독자 행보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엔 조금 더 명확하다. 새로운 기획사를 설립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와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걷겠다는 게 현재 상황이다.

앞서 비스트는 지난 10월 15일 큐브와 계약기간 만료 후 꾸준히 '탈(脫) 큐브'를 모색해왔다. 언론을 통해 비스트의 새로운 행보가 날을 거듭할수록 상세하게 알려졌다. 홍콩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와 손을 잡고 독자 회사를 설립, 그룹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큐브 측은 이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지난 11월 29일에는 비스트 새 기획사 '굿 럭' 이름까지 공개됐음에도 큐브 측은 "비스트의 독자 회사 설립에 관해서는 전해들은 바가 없다. 비스트와 재계약은 현재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비스트의 독자 행보와 얽힌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로는 상표권 문제다. 현재 비스트 국내 상표권은 큐브가 소유 중이다. 멤버 변동이 없을지라도 그동안 네임 벨류를 쌓아 온 그룹명 '비스트'를 쓰지 못하는 건 분명한 손실이다.

두 번째는 비스트 노래에 대한 소유권 문제다. '픽션', '쇼크', '굿 럭', '12시 30분' 등은 큐브 소속 가수로서 발표한 곡으로, 해당 음악에 대한 실 권리는 큐브에 귀속된다. 즉, 비스트가 새 소속사로 옮길 경우 활동에 있어 크고 작은 애로 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작곡가 신사동호랭이는 편곡을 거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원곡 사용에 대한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큐브는 실적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포미닛 해체 후 멤버 현아만 큐브 잔류를 택했지만 현아의 홀로서기 첫 앨범은 과거 활동곡 대비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비투비는 최근 새 앨범을 발표하고 댄스 타이틀곡으로 새로운 방향을 꾀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에는 못 미쳤다. CLC는 지난 여름 활동 이후 활동이 전무하며, 신인그룹 펜타곤은 10월 데뷔에 이어 12월 초 컴백을 앞두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비스트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 그룹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큐브로서는 비스트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2016년 3분기 말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큐브의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특히, 비스트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기 직전인 10월 14일 큐브엔터 종가가 3700원에 마무리된 것과 달리 11월 24일 큐브엔터 주가는 2085원까지 하락했다.

이 시점에서 비스트가 독자 행보에 나선다는 것은 큐브에겐 꽤나 치명적인 일이다. 장우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스트는 2015년 기준 전체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실적을 낼 정도로 큐브엔터 내에서도 핵심이 되는 그룹"이라고 말했다. 큐브가 실적 부문에 있어 비스트에게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비스트와의 재계약 가능성을 쉽게 놓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yeye@







또 그 노래?… '아이돌 조상들'의 아쉬운 귀환

'리메이크(Re-make)', 말 그대로 기존 작품을 다시 만드는 일. 리메이크 음반은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동시에 새로운 팬 층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무엇보다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 '창작'의 과정이 끼어들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제작자의 주머니에는 득이 되지만 아티스트의 생명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데뷔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두 팀의 1세대 아이돌 그룹이 리메이크 음반을 발매했다. S.E.S.는 데뷔 기념일인 지난달 28일 디지털싱글 '러브[스토리](Love[Story])'를 발표했다. 1999년 발표곡 '러브(Love)'에 새로운 랩 파트와 '아임 유어 걸(I'm your girl)' 후렴구를 매시업한 노래다.

복고풍 분위기를 살려낸 편곡은 기존 팬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완성도는 다소 실망스럽다. 바다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파트 분배, 어색한 '아임 유어 걸' 콜라주 등은 프로젝트성 재결합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S.E.S·젝스키스 데뷔 20주년 앨범 신곡 아닌 리메이크로 한계 드러내

젝스키스는 지난 1일 히트곡 10곡을 리메이크해 수록한 '리-앨범(Re-Album)'을 발표했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양현석 회장이 '젝스키스를 잘 모르는 요즘 세대들에게 이들의 음악을 다시 알려주자'는 취지로 리메이크 음반 기획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지만, 신곡을 기대했던 팬들에겐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다.

가장 큰 우려는 젝스키스의 재결합이 '추억팔이'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S.E.S.의 재결합이 데뷔 20주년을 기념한 것이라면, 젝스키스는 다르다. YG와 전속 계약을 체결, 지속적인 활동을 예고했기에 현재 진행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YG는 "최신 스타일로 편곡했다"고 공언했지만, 이 경우에는 원곡의 감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고지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성토의 대상이다. '완전체' 젝스키스를 희망하던 팬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S.E.S.는 스페셜 음반을 통해 신곡을 발표한다. 젝스키스 역시 오는 2017년 1월 준비 중이던 신곡들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디, 다시 깨어난 언니, 오빠들의 모습은 추억 속의 그것보다 더욱 빛나고 근사하길 바란다.

이은호 기자 wild37@

또 한 걸음!… 19년간 진화한 '완전체 신화'

신화가 돌아왔다.

신화는 지난 11월 29일 13집 앨범 '언체인징 파트 원(UNCHANGING PART.1)'을 발표했다. '신화는 멈추지 않는다'면서 매년 1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이번에도 지켜냈다. 뿐만 아니라 귀를 만족시키는 수록 곡들은 곧 공개될 완전체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이돌 그룹, 가요계의 화석, 시조새 등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지만 신화가 대단한 이유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작은 미약했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 H.O.T.를 잇는 보이 그룹으로 등장한 신화는 '해결사', '으싸으싸', '천일유혼'까지 1998년 3월 데뷔해 1년 동안 꽉 찬 활동을 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았다. 해체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고 나온 2집 'T.O.P'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신화는 후속곡 '요'(YO)까지 연달아 히트하면서 대세 아이돌의 반열에 올랐다.

13집 '언체인징파트 원'으로 컴백 타이틀곡 '오렌지'로 결속력 과시

그 다음부터 신화의 행보는 파격 그 자체였다. 윗옷을 뒤로 젖히는 안무로 '신화=섹시'라는 이미지를 처음으로 심어준 3집 '온리 원'(Only One)을 시작으로 신화는 '성인돌'이라는 콘셉트를 처음으로 구축했다.

누드 화보집 발간 역시 파격 그 자체였다. 신화는 4집 'Hey, Come On' 컴백을 앞두고 김중만 작가와 필리핀에서 세미 누드 촬영을 진행했다. 앨범 재킷 역시 멤버들의 복근을 볼 수 있는 사진들로 채워지면서 남성미를 강조했다.

지금은 낯설지 않은 아이돌의 공개 연애를 최초로 시작한 것도 신화였다. 당시 팬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돌이켜보면 신화였기에 가능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멤버들과 팬들의 결속력은 끈끈했다. 외국인 학교 학력 인정 문제로 앤디가 활동에서 빠지고, 멤버들 각각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를 함께 나오면서 신화와 신화 창조라는 이름을 지켰다.

여기에 SM엔터테인먼트에서 독립한 후 처음으로 낸 7집 앨범 '브랜드 뉴'(Brand New)로 데뷔 첫 가요대상 트로피까지 차지하면서 저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새 앨범 타이틀곡 '오렌지'를 통해 신화는 신화창조에게 "매 순간마다 너와 함께 끝까지 거야"라고 노래한다. 신화가 쓰는 신화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신화다.

김소연 기자 sue123@



인터뷰 영화 '형' 조정석

"4남매 중 막내… 가족애에 끌려"

친형들과의 추억 영화 이해하는데 도움
연기는 대결 아냐…상대방과 호흡 중요
'질투의 화신' 캐릭터 처음부터 느낌 와
애드리브 많아 안해요, 난 대본에 충실

흡사 게임을 한 단계씩 클리어해 나가는 과정을 보는 듯하다. 납득이 이후 조정석의 행보가 그러하다.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주연 못지않은 존재감을 과시한 조정석은 이후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자신의 영역을 한 뼘 두 뼘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질투의 화신'과 영화 '형'으로 관객들에게 응답받았다. 늘 다음이 더 궁금한 배우, 조정석. 그를 만났다.

△영화 '형'의 어떤 지점에 반해서 출연했나요?

"시나리오를 읽는데,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동화됐어요. 가족애를 다룬 점이 끌렸어요. 제가 또 4남매 중 막내라서 더 와 닿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큰형은 동네에서 전설이었어요. 권투를 했는데, 무서웠죠. 작은형과 저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사고를 쳤는데, 큰형이 방문을 딱 걸어 잠그더니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널 안 때리는지 알아? 죽을까 봐 안 때리는 거야.'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영화 '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진부하다, 신파다'하는 말들도 있는데,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가족이라는 게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도경수 씨와의 호흡이 좋더군요. 최근 끝난 드라마 '질투의 화신'도 그렇고, 상대배우와의 케미를 잘 살리는 비결이 뭔가요?

"공연 무대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공연은 한 배우가 100명의 관객을 상대하는 느낌이거든요. 앙상블이 중요하죠. 연기는 대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만들어나가는 겁니다."

△'질투의 화신' 이화신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다소 독특한 캐릭터였는데요.

"대본을 보는데 '남자가 유방암'이라는 콘셉트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마음에 너무 들더라고요. 회사는 제 의견과 달랐어요. 유방암 걸린 남자 마초. 회사입장에서는 우려스러웠던 거죠. 시청자 반응이 누구보다 궁금했던 드라마인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잘 먹혔다. 내 촉이 맞았다' 싶었죠.(웃음)"

△마초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실제 조정석은 어때요?

"'질투의 화신'의 화신처럼 마초는 아닙니다. 음, 마초와 남자다운 건 다른 것 같아요. 마초는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남자다운 건 그 안에 다정함도 있고 책임감과 믿음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건 잘 못해요. 완전히 살가운 스타일도 아니고 '츤데레'(무심하게 챙겨주는 것을 뜻함)도 아닌 평범한 스타일입니다."

△조정석 연기의 특징은 자연스러운 대사가 아닐까 싶어요. 연기인지 진짜인지 혼동될 때도 있죠.

"제가 애드리브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해예요. 저는 대사에 충실한 편입이다.(웃음) 그렇다고 완벽하게 계산한 후 연기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공기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실제 느낄 수 있게, 그대로 다가가는 것이 좋은 연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연극할 때 연출 선생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좋은 연기'에 대해서요. 선생님께서 '관객이 실제라고 믿게 하는 게 좋은 연기가 아닐까'라고 답하셨어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 걸어갈 수 없는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처럼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도 보는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기를 선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고소영·이영애·전지현·명세빈… 안방극장 "언니가 돌아왔다"

'푸른 바다' 전지현·'다시, 첫사랑' 명세빈
고소영·이영애도 내년 상반기 출격 대기

2017년 상반기 방송가 키워드는 '복귀'다. 특히 반가운 언니들이 대거 안방극장을 찾는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더해진다.

스타트는 전지현이다. 전지현은 출산 후 복귀작으로 11월 16일 첫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을 택했다. 2013년 방영돼 신드롬적인 인기를 얻었던 SBS '별에서 온 그대' 이후 3년여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것. 전지현은 극중 인어 인간 역할을 맡아 물오른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변하지 않는 트렌드 아이콘으로, 드라마를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푸른 바다의 전설'은 '별에서 온 그대'를 함께 한 박지은 작가와 재회작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만남 덕분에 '푸른 바다의 전설'은 첫 방송 시청률부터 16%를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KBS2 '순수', '종이학' 등을 통해 1990년대 첫사랑의 아이콘이었던 명세빈도 KBS2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에 출연하며 반가움을 더했다. 명세빈은 앞서 MBC '킬미힐미'에 깜짝 등장한 적은 있지만 제대로 된 출연은 MBC '제왕의 딸 수백향' 이후 2년여 만이다.

이전엔 '첫사랑' 그 자체였다면 이번엔 '첫사랑'의 추억을 자극하는 존재로 활약할 예정이다. '다시, 첫사랑' 역시 11월 28일 첫 방송부터 14%대의 시청률로 앞으로의 상승세에 기대가 모아지는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 방송되는 SBS 새 수목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이영애와 KBS2 새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 고소영도 빼놓을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10여 년의 공백을 깨고 대중 앞에 선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사임당, 빛의 일기'는 한국 미술사를 전공한 시간강사 서지윤이 이탈리아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임당의 일기에 얽힌 비밀을 찾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영애는 서지윤과 사임당, 1인 2역을 소화한다.

이영애의 드라마 출연은 MBC '대장금' 이후 13년 만이다. 이미 지난 5월 촬영을 마친 '사임당, 빛의 일기'는 후반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고소영은 '완벽한 아내' 출연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이변이 없는 한 출연이 확실한 상황이다. '완벽한 아내'는 앞서 '여자, 심재복'으로 알려진 작품. 아이 둘에 드센 아줌마였던 심재복이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생기발랄 드라마다.

김소연 기자 sue123@

전에 없던 판타지 로코…시청률 나와라 '뚝딱'

tvN 새 금토드라마 '도깨비'
공유·이동욱 브로맨스 주목
'태후' 김은숙 작가 기대감 더해



tvN 새 금토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가 시청자를 유혹할 준비를 마쳤다. '도깨비'는 로코 대가 김은숙 작가와 히트작 메이커 이응복 감독이 KBS2 '태양의 후예' 이후 또다시 의기투합한 작품이란 점에서 기획단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 공유, 이동욱, 김고은, 유인나, 육성재 등 대한민국 대세 배우들이 한데 모여 막강한 라인업을 완성했다. 새로운 '판타지 로코'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도깨비'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3가지를 살펴본다.

◇ 공유, 로맨스부터 브로맨스까지 누구와도 어울릴 케미 = 공유의 4년 만의 브라운관 복귀작이다. 그는 '1000만 배우'의 탄탄한 연기력으로 신비롭고 슬픈 도깨비 김신으로 분한다. 관계자들은 공유와 김고은의 로맨스뿐만이 아니라 공유·이동욱의 브로맨스 케미에도 주목하고 있다. 공유는 불멸의 시간을 살고 있는, 신비롭고 슬픈 도깨비 김신 역을, 이동욱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잘생긴 저승사자 역을 맡았다. 도깨비와 저승사자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그려내고 있는 공유와 이동욱은 상상을 뛰어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평소에도 끈끈한 동료애를 유지했던 두 사람이 '도깨비'를 통해 역대급 남남 케미를 예고한다.

◇ 여배우 존재감 능가하는 김은숙 작가 = 김은숙 작가에게 쏠린 관심은 여배우 김고은, 유인나를 능가한다. '김은숙표 로코'는 톡톡 튀고, 맛깔스러운 대사로 극을 매력을 완성한다. '파리의 연인' '프라하의 연인' '온에어' '시티홀'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등을 통해 해외에서도 김 작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배우들 역시 "대본만 읽어도 마법이 일어난다"며 김은숙 작가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특히 5년간 지속적인 러브콜에도 꿈쩍 않던 공유가 선택한 작품이라서 두 사람의 시너지에도 대중의 이목이 쏠린다.

◇ '도깨비' 판타지는 처음이야 = 도깨비가 남자 주인공인 드라마는 어떨까. 극중 공유는 도깨비로서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멸의 운명을 지닌 캐릭터다. 기존에 다뤄진 적 없는 도깨비 캐릭터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은 상당하다. 남녀 로맨스를 풀어내는 탁월한 감각을 보인 김은숙 작가의 첫 판타지 도전인 만큼, 어떤 식으로 캐릭터가 설정되고 표현될지 지켜볼 일이다. 현실을 초월한 판타지를 다루는 만큼, 웅장한 스케일이 예고된 상황이란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한편 '도깨비'는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공유 분), 그와 기묘한 동거를 시작한 기억상실증 저승사자(이동욱 분). 그런 그들 앞에 도깨비 신부라 주장하는 죽었어야 할 운명의 소녀(김고은 분)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낭만 설화로 2일 오후 8시 첫 방송된다.

서현진 기자 sssw@

영화 '잭 리처: 네버 고 백'

평범한 액션 진부한 설정 괜히 돌아왔나…

1편에서 주지한 바, 잭 리처(톰 크루즈)의 가장 큰 특징은 흔적 남기지 않기다. 거주지, 신용정보, 휴대폰 기록은 물론 신발 자국도 지워버리는 유령과도 같은 잭 리처. 그런 그에게 딸이 있었다는건 잭 리처 본인에게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 같다. 딸이라 주장하는 소녀의 등장에 과거 스쳐지나간 여자들을 스캔해 보지만, 나오는 건 한숨뿐인 걸 보면. 어쨌든, 이건 2편을 읽는 핵심 키워드다. 유령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잭 리처에게 모른 척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게 생겼으니 말이다.

잭 리처는 자신의 후임인 투수부대 수사관이 된 수잔 터너(고비 스멀더스)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녀에게 호감을 느낀다. 저녁 식사를 약속한 날, 터너에게 문제가 생긴다. 군사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것. 이상함을 감지한 리처는 사건에 뛰어드는데, 마침 그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만다 듀튼(다니카 야로쉬)이 등장하면서 일이 더 꼬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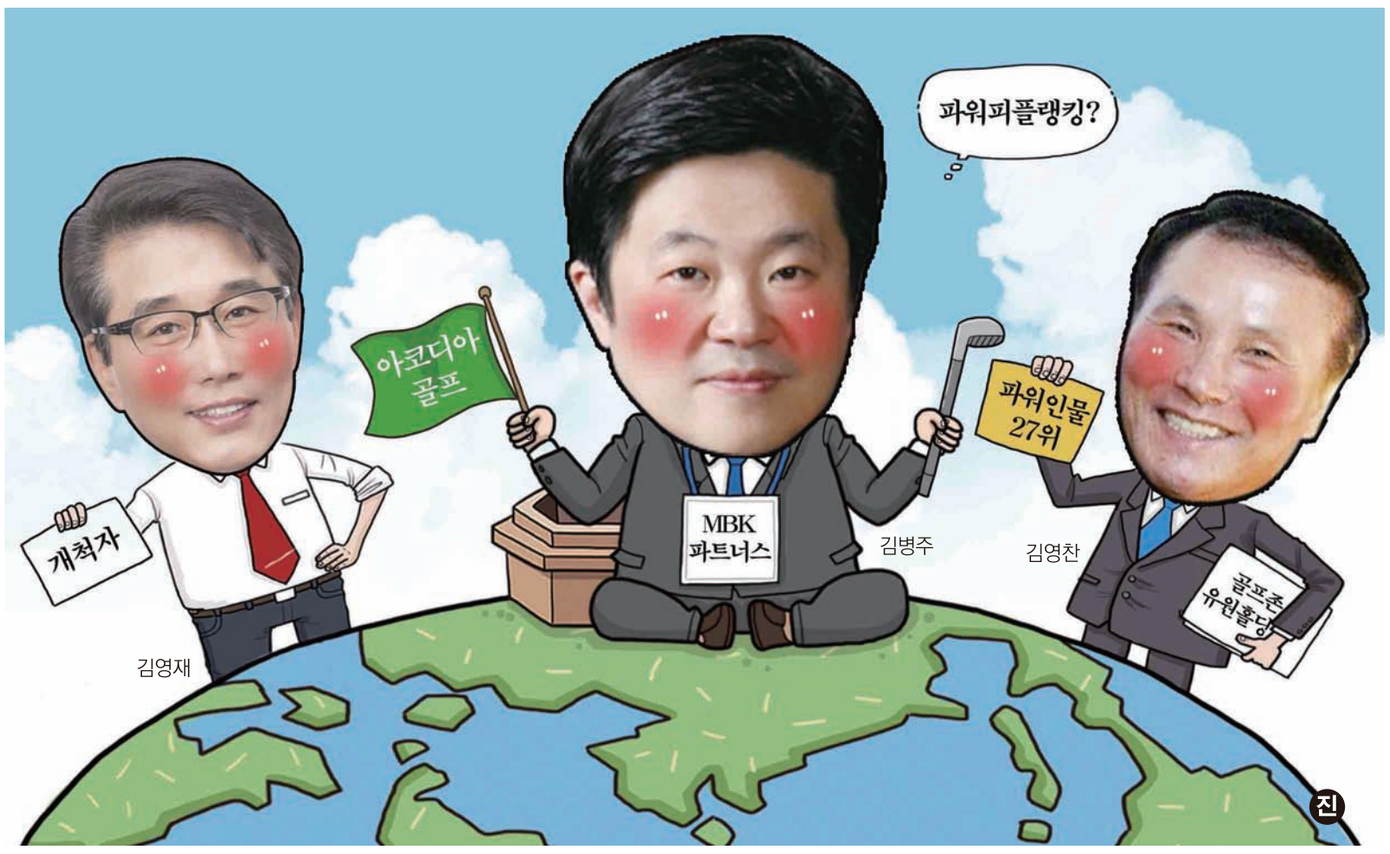
리 차일드의 소설 '잭 리처'는 지금까지 21편의 시리즈가 출간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은 스테디셀러다. 영화 '잭 리처: 네버 고 백'은 그가 쓴 21편 중 18번째 편인 '네버 고 백'에 빚지고 있는데, 제작진이 그 많은 시리즈 중 '네버 고 백'을 고른 이유도 아마 '관계'에 있을 것이다. 원작에서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사만다 듀튼의 비중을 늘린 것 역시, 부성이라는 감정을 이용, 목석같은 잭 리처의 내면을 조명해 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렇다면 '잭 리처: 네버 고 백'의 성공 여부는, 잭 리처를 중심으로 얽힌 '관계'들이 얼마나 밀도 있고 그럴싸하며 흥미롭게 그려지는가에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영화는 이 부분에서 실패한다. 영화는 수잔 터너라는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만다 캐릭터 사이에 잭 리처를 던져놓고, 인물간의 주고받는 화학작용 속으로 관객을 끌고 가려 하지만, 몰입하기엔 관계 설정이 다소 진부하고(갑자기 나타난 딸이라니) 진행도 충분히 예상 가능해(티격태격하다가 친해지는) 긴장감이 별로 유발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잭 리처다. 톰 크루즈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액션 영화에 최적화돼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딱히 큰 장점을 꼽기에도 애매한 구석이 있다. 인상 깊었던 욕실 격투 신이 있었던 1편에 비해 이번 편은 액션마저도 너무 평이해서 심드렁하게 보게 되는데, 절도감은 '본' 시리즈의 제이슨 본에 못 미치고, 정보력은 '007' 제임스 본드에 뒤처지며, 인간적인 매력도 '미션 임파서블'의 이단 헌트를 뛰어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중첩된다. 이단 헌트라는 대표 브랜드를 지닌 톰 크루즈가 왜 '잭 리처'를 계속 떠나지 못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김병주 회장 '세계 골프계 파워맨' 될까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日 최대 골프기업 아코디아 인수 추진
136개 골프장 8900억원에 매입키로
내년 1월18일까지 지분 공개매수해야

김영찬 골프존 회장 한국인 첫 27위에
김영재 스카이72 사장 '개척자'로 소개

한국의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세계 골프계를 이끄는 파워 피플 랭킹에 오를 것인가.

현재는 시물레이션골프 골프존의 모회사 골프존유원홀딩스 김영찬 회장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파워 인물에 올라 있다. 세계 골프계 파워 피플 랭킹은 매년 가을에 미국 골프 계간지 '골프 Inc'가 순위(1~30위)를 매긴다.

한국에서 압도적인 스크린 골프시장을 갖고 있는 김영찬 회장이 국내 골프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랭킹 27위에 랭크돼 있다. 김 회장은 골프존을 세계 43개국 5500개 매장에 2만5000여개 사이트로 규모를 키웠고, 국내에서만 하루에 13만 명이 골프존을 이용할 정도다. 김 회장은 스크린골프를 바탕으로 골프장 업계에 진출해 골프존 카운티 등 5개의 골프장을 보유하면서 아세코GC 등 11개의 코스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스크린 골프 업종을 넘어 골프존 마켓으로 용품 유통업에도 진출했다.

여기에 MBK파트너스가 일본의 골프장 운영업체 아코디아골프를 853억 엔(약 89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파워 랭킹에 오를지 관심사다. 3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이날부터 일본 도쿄 증시에서 주당 1210엔에 아코디아골프 지분 100%를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인다는 것. 매수 가격은 전날 종가 1035엔에 16.9%의 프리미엄을 얹은 수준이다. MBK파트너스는 전날 도쿄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고, 아코디아골프 이사회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매수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 만일 MBK파트너스는 이 기간 최소한 전체 발행주식 7050만4566주의 66.7%인 4700만3100주를 매수하지 못하면 공개매수가 취소된다. 아코디아골프는 위탁운영 93곳을 포함해 골프장 136곳을 운영하는 일본 최대 골프 기업으로 5%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아코디아 골프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일본 골프장이 부도 및 파산하기 시작한 이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서 골프장을 사들여 설립한 것이다.

아시아에서 대규모 골프장 위탁경영이 형성된 곳은 일본. 현재 투자은행 론스타가 설립한 PGM이 18홀 규모로 164개 코스를 거느리고 있다. 세계 3위 규모다. PGM 고타로 다나카 회장은 이번에 처음 파워 피플 랭킹 24위에 올랐다. 골프장 업계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그는 신규 운영 코스 수를 9개나 늘렸다.

하지만 아코디아골프는 1년 새 급격히 사세가 기울었다. 지난해 일본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파워 랭킹 27위에 올랐던 류스케 카마타 CEO가 올해는 없다. 여성 CEO인 유코 타시로가 선임됐다.

재미난 사실은 새로 복귀한 세계 최고의 골프장 위탁 운영사 트룬골프의 다나 가마니 회장이 17개 골프장과 리조트를 보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제치고 세계 골프계 최고의 파워 피플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트룬골프는 미국에서는 34개 주, 세계는 29개 국에서 골프장을 운영한다. 트룬골프는 운영하는 18홀 규모 코스 수를 종전 232개에서 1년 동안 270개로 늘린 데다가 개인 사모기업인 콜버그로부터 투자금 지원을 받아 운영 골프장 수를 300곳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골프계의 최고 파워맨 자리를 지켰던 에릭 아벨트 클럽코프 CEO는 2위로 밀려났다. 클럽코프는 미국에 220여 개가 넘는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선수 출신으로는 미국의 잭 니클라우스가 골프장 설계 사업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골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호주의 그렉 노먼이 25위에 올랐다.

아시아의 골프 파워 선두는 베트남에서 골프장 건설로 주목받는 FLC그룹의 부동산 계열사인 비스콤 회장 루 둑 광이다. 파워 랭킹 20위에 선정된 루 회장은 향후 5년간 베트남에 20개의 코스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 선전과 하이난도에 골프장 24곳을 운영하는 미션힐스 그룹의 켄&테니얼 추 형제는 2014년 10위였다가 올해는 21위로 밀렸다. 미션힐스의 코스 설계 시공을 전담하던 슈미트컬리 디자인이 기존에 개장한 50개 코스 중에 15개가 폐쇄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중국 정부의 골프 억제 정책이 중국계 인물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이 매치는 랭킹 30위 이내에는 없지만 영종도 스카이72골프 앤 리조트의 김영재 사장도 개척자(파이어니어)로 소개했다. 한국 골프 시장에 중류층도 즐겁게 즐기는 펀(Fun) 골프문화를 시도하는 한편 LPGA투어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에이스회원권 사업체에서 시작한 그는 최근 골프장 인수와 호텔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화창한 날에 날아가는 공 안보이면 백내장 의심

김부기의 골퍼와 눈건강



겨울철에도 눈을 보호하려면 선글라스를 끼고 라운드를 하는 것이 좋다.

기온은 낮아도 따뜻한 겨울볕 아래서 치는 골프의 매력을 안다면, 아무리 추운 날도 야외 라운딩을 나가기 마련이다. 실제로 겨울철 햇빛은 한여름에 비해 적외선이 약해 따가움이 덜하고, 일사량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쾌적하게 느껴진다. 기분 좋게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D가 합성돼 면역력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외선 양은 다른 계절보다 늘어나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눈이라도 오면 하얀 눈에 자외선이 반사돼 한여름 모래사장에서 받는 자외선의 강도보다 3~4배 이상 높아지기도 한다. 자외선에 맨눈이 오래 노출되면 안구 건조증,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부터 백내장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중년 이상에서 자주 발병하는 백내장은 맑고 투명했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안질환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이며, 외상이나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외선은 수정체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노화를 가속화한다. 백내장이 생기면 빛이 수정체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시야가 흐려지고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라운딩에서 동반자의 공이 OB나 벙커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아 어림짐작으로 '나이스 샷'을 외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골프에서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이 크다. 책이나 영수증 등을 보기 어렵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잦아진다.

백내장 초기에는 눈이 침침하고 빛과 사물이 퍼져 보인다.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희미하거나 눈부심 등 증상이 생긴다. 색상이 왜곡되어 보이기도 하며 근시, 복시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다. 말기에 이르면 동공이 흰색으로 변하고, 계속 방치하면 녹내장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치료 시기를 놓쳐 자칫 실명까지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해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추거나,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면 원거리뿐만 아니라 근거리까지 잘 볼 수 있다.

다행히, 백내장을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신호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맹증(晝盲症)이다. 어두운 곳보다 밝은 곳에서 사물이 더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다. 맑은 날보다 흐린 날에 골프 스코어가 더 잘 나온다거나 화창한 날씨에 본인이 친 공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캐디 도움 없이 찾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면 백내장을 의심해야 한다.

물론 백내장 증상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소, 수정체를 노화시키는 주범인 자외선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볕이 강한 날에 골프를 친다면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는 고글 형태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 선글라스의 경우 광대뼈에 자외선이 반사되거나 안경 틈 사이로 자외선이 침투할 수 있다. 중간중간 간식으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 베리류를 자주 섭취하면 세포 노화를 억제해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다. 온누리스마일안과 원장

볼빅, 디즈니와 손잡고 달마시안 골프용품 출시



국산볼 기업 볼빅이 디즈니와 함께 출시한 달마시안 골프용품의 골프볼(왼쪽) 및 캐디백 세트.

컬러볼 신화를 이룬 국산볼 기업 볼빅(회장 문경안)이 디즈니와 손잡고 달마시안 골프용품을 출시했다.

비비드 골프볼과 캐디백 세트로 구성된 달마시안 골프용품은 독특한 패턴과 색감으로 20~40대 골퍼와 패션 감각이 뛰어난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 최초 무반사 컬러볼 비비드 골프볼에 달마시안 캐릭터를 새겨 제작된 달마시안 골프공은 비비드 특유의 독특한 색상과 우수한 시인성이 더욱 강조됐다. 달마시안 골프공의 색상은 흰색과 빨강색(루비)이다. 비비드 흰색 골프공은 달마시안 에디션에서만 만날 수 있다. 달마시안 캐디백과 달마시안 보스턴백(캐리어 타입, 캐주얼 타입)은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달마시안 특유의 세련된 스타일이다. 달마시안 골프볼(6구 세트)은 3만9500원, 캐디백 65만 원, 보스턴백(캐리어 타입) 40만 원, 보스턴백(캐주얼 타입) 20만 원이다. 달마시안 골프 용품은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겨울철 라운딩 전 스트레칭·방한용구는 필수

바록스와 함께하는 포토골프레슨

찬바람이 분다.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다. 송년 골프가 한창이다. 이제 납회 골프를 마치면 1~2개월은 쉰다. 이전처럼 눈밭에서 골프를 하는 일은 거의 보기 힘들어졌다. 그만큼 골프장의 예약이 쉬워진 셈이다. 이러다가 더 추우면 따뜻한 기온을 가진 나라가 그리워질 터. 하지만 아직은 볼을 칠 만하다.

수은주가 갑자기 곤두박질치면 상황이 바뀐다. 추위를 이겨내야 한다. 가장 필요한 것이 보온을 위한 옷을 포함한 골프 용구다. 기온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움츠러들게 마련이다. 특히 골프장은 더 춥다. 겨울에 골프대회를 하지 않은 것은 골프 특성과 추위가 맞지 않는 까닭이다. 따라서 최대한 체온을 높여 놔야 한다. 그래야만 탈이 없다. 부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볼도 잘 맞는다.

기본적인 것은 방한복. 얇은 기능성 내의를 입는 것은 기본이다. 바람막이와 방한 조끼, 그리고 양손장갑은 필수다. 양말도 두 개 정도 껴서 신는다.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것이 백 배 낫다. 핫팩도 필요하고, 몸이 약한 골퍼는 배나 등에다가도 붙이는 핫팩을 사용한다.

무엇보다 일찍 도착해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준다. 목부터 어깨, 손목, 허리, 발목, 무릎 등 골고루 스트레칭을 한다. 약간 땀이 날 정도로 해주면 완벽하게 스트레칭이 된 셈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라운드를 마친 뒤에도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사실이다. 바록스 겔 등 근육 이완제를 목이나 무릎, 허리 등 몸에 바른 뒤 스트레칭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스트레칭은 스윙을 보다 편하고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부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자료 바록스(www.barox.co.kr)



프로골퍼 양수진. 사진제공 박태성 포토

골프장 위탁경영, 필수? 선택?…경영진단 세미나

던롭스포츠·레저신문, 12일 더-K호텔서



골프장 미래경영 세미나가 12일 양재동 더-K호텔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세미나 모습.

골프장의 새로운 경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골프장 미래경영 세미나가 열린다.

오는 12일 던롭스포츠(대표이사 홍순성)와 레저신문이 함께 골프세미나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K호텔 에비뉴관 금강 홀에서 연다. 오전 9시 30분부터 6명의 전문 발제자를 초청해 진행하는 이 세미나는 '골프장 위탁경영 필수인가, 선택인가'라는 주제로 국외 사례를 통한 국내 골프장들의 미래 경영을 진단한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 골프 형태는 위탁경영이 대세. 국내 골프장도 위탁경영의 시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일본과 미국, 호주 골프장 운영 사례 및 자료와 통계를 통해 미래 한국 골프장의 경영을 확인할 기회다. 국내 골프장 위탁경영 사업에 뛰어든 던롭스포츠코리아의 위탁운영 진출 사업 방향과 그 전략에 대해서도 들어본다.

발제자로는 서명수(전 자유로CC 대표), 박경호(국민대 교수), 홍순성(던롭스포츠코리아 대표), 제이디 하(그렉노먼디자인 대표), 진현식(딜로이트안진 상무), 황현철(전 PGM 한국 지사장)이다. 참가비와 교재비는 없다. 선착순 150명. 문의 02-3275-1091.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지금 우리 사회가 원하는 대통령은…

칼튼대 뉴웰 교수 '대통령은 없다' 10가지 리더의 조건
해방이후 대한민국 역사 되짚은 '광란의…대통령제'
스페인 혁명가 카르메나 '바꾸어라…' 현시국 시사점
'촛불 정국' 반영…정치·사회적 메시지 담은 서적 봇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 집회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통령은 없다
월러 R. 뉴웰/박수철 옮김/21세기북스/1만8000원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 I·II
조해경/앤길/각1만5500원



바꾸어라, 정치
마누엘라 카르메나/유아가다·유영석 옮김/푸른지식/1만5000원

"무엇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달래 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에 직면했다. 국민은 '지금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스스로 퇴진하라'며 촛불집회를 연이어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정국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어수선한 한국사회에 출판업계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상과 대통령의 역할을 말하는 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칼튼대학교 교수인 월러 R. 뉴웰은 '대통령은 없다'라는 책을 통해 대통령이 갖춰야 할 10가지 조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대통령의 조건에 대해 △훌륭한 인격과 성품 △진솔하고 감동적인 표현력 △도덕적 확신 △2~3개의 핵심 목표 추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의 소유자 △권력을 지향하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는 대담성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는 정책이나 개인적인 자질보다 당파와 사상에 따라 일차적으로 검증되기 마련이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 대통령의 각종 논란과 의혹도, 어쩌면 시작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저자는 이 때문에 역사적 정통성이나 이념, 적대감 등의 대립각 대신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보 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이 책은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조해경 안양대 겸임교수가 쓴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는 해방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중심의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룬 책이다. 정권의 시대순으로 구성된 두 권의 시리즈를 통해 정치적 주요 사건을 상세히 다루며 주요 인물, 사건이 갖는 숨은 의미와 발생 배경까지 서술했다. 이 책은 단순히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되돌아보는 책이 아니다. 우리의 제왕적인 대통령제하의 한국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미래 한국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거국중립내각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현재, 저자는 "한국은 이제 과감하면서도 강력한 정치혁명이 필요하다"며 그 혁명은 국민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5년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개헌 목소리도 나오는 시점에서 이 책은 우리 미래 정치의 변화를 함께 고민하게 한다.

스페인 사회를 개혁한 노년의 혁명가 마누엘라 카르메나가 쓴 '바꾸어라, 정치'는 진정한 정치인의 조건,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박 대통령의 퇴진 압박이 '불통 정치'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펼쳐지는 현시점에 '바꾸어라, 정치'는 정치인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왜 들어야 하는지 일침을 가한다.

"정치인들은 누구보다도 사회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 현실을 알려면 시민들의 말을 직접 들어야 한다."

카르메나가 이 책에서 일관하는 것은 시민의 힘이 그 어떤 권력이나 이념, 종교보다도 강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세상은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독자에게 전한다.

특히 저자는 경험담을 통해 독자가 부패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이를 타파하는 과정을 들려줌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이 주말마다 촛불을 밝히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우리 사회에 교훈을 준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새로 나온 책



열정 절벽
미야 도쿠미츠/김잔디 옮김/와이즈베리/1만3500원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 왜 돈과 행복은 여전히 멀리 있을까?" 흔히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성공은 곧 부(富)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다.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해 달을 보며 집에 돌아오지만 갈수록 빚은 늘어만 가고, 행복 또한 멀게만 느껴진다.

저자인 미야 도쿠미츠는 '열정 절벽'에서 '일에 대한 열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열정이라는 것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가능한 한 적게 지불하고, 근로수당과 보호제도를 없애려고 끌어들인 정신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기업들은 '자기 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급여나 의료보험, 퇴직연금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중요한 것은 열정과 헌신뿐이다'라고 부추기며 '더 적은 돈'(혹은 무급)을 주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빚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뿐이다." 저자는 '열정 절벽'에서 '희망 노동'을 앞세워 근로자의 열정을 착취하는 노동 현장의 부조리와 허구성을 고발한다.



오늘 더 행복해지는 연습
정자영/위닝북스/1만6000원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참된 나를 찾고 꿈에 도달하기 위해 현재의 나를 뛰어넘는 변화를 경험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30년이 넘은 공무원으로서의 삶과 두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온 저자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깨우친, 진정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 '처음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좌절, 불행, 배신, 절망, 사기, 돈, 권력 등 수많은 부정적인 단어들과 싸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부정적인 단어들을 몰아내고 희망, 기쁨, 즐거움, 가족, 친구 등을 초대하자 그 자리에는 행복이라는 녀석이 남아있었다고 말한다. 늘 똑같은 아침, 똑같은 점심, 똑같은 저녁.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오늘 더 행복해지는 연습'에서 말하는 행복은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다만, 저자의 "오늘도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반복된 삶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사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듯하다.
이재영 기자 ljy0403@

무한도전 효과?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1위 재탈환

종합베스트셀러 순위 '해리포터' 제쳐
'대통령의 글쓰기'도 10위내 장기집권

MBC '무한도전'의 효과일까.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1일 예스24, 인터파크도서 등 서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이 이름을 올리며 인기를 이어나갔다.

다만 교보문고에서는 J.K.롤링의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2부(스페셜 리허설 에디션 대본)'가 정상을 차지하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교보문고에서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은 종합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은 예스24와 인터파크도서에서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에 한때 1위를 내줬으나,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설민석이 출연해 화제가 되면서 또다시 정상의 자리를 탈환했다. 설민석은 '무한도전'의 '역사X힙합 프로젝트-위대한 유산 특집'에 출연해 무한도전 멤버들과 래퍼들을 상대로 조선의 역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해당 방송에서 설민석의 강의로 쉽고 재밌게 조선의 역사를 공부한 시청자들이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책마저 구매하는 발걸음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해리 포터 시리즈의 여덟 번째 이야기이자 마지막 이야기인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1부와 2부는 예스24에서 나란히 2, 3위를 기록했고, 인터파크도서에서는 3, 4위에 올랐다. 전 세계 해리 포터 팬들을 위한 이 책은 지난 7월 영국에서 초연된 해리 포터 연극의 대본집이다. 특히 이 책은 지난달 개봉된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의 관심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곁에서 함께한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쓴 '대통령의 글쓰기'도 여전히 종합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4년 출간된 이 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 일반인인 최순실 씨가 손을 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두 대통령(김대중·노무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다시금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방송인 김제동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을 위로하고 소통하는 힐링 에세이 '그럴 때 있으시죠?', 자존감 전문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 원장이 직장, 사람, 사랑, 관계 때문에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아주고자 쓴 책 '자존감 수업' 등이 종합 베스트셀러 톱 10에 포함됐다. 인기 해양 액션 만화 '원피스' 시리즈의 신작 '원피스 83권'도 출간과 동시에 종합 베스트셀러 톱 10에 진입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스마트폰에서 〈QR코드리디〉로 확인하세요.



좋은 엄마 되기 연습

《엄마의 말공부》 저자
국민 엄마 멘토 이임숙의
불안을 행복으로 바꾸는 20가지 깨달음

이임숙 지음 | 316쪽 | 13,500원



낮에는 버럭 하고, 밤에는 반성하는 엄마들을 위한
버럭맘 처방전

"왜 자꾸 아이에게 화가 날까?"
아이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엄마 자신이다

박윤미 지음 | 252쪽 | 13,000원



백설마녀의 지금 당장 연애

24만 명의 가슴을 뻥 뚫은 사이다맛 연애 블로그

이 책을 만나면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모쏠 구원, 연애 중 장애물 ALL 슈퍼 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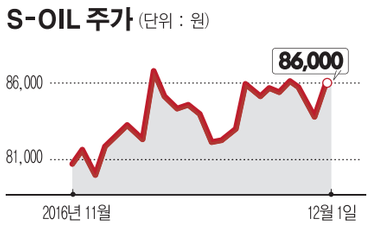
백설마녀 지음 | 280쪽 | 1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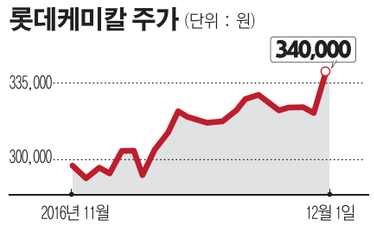
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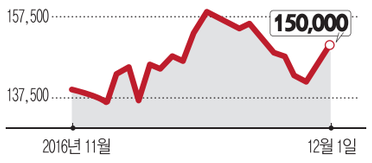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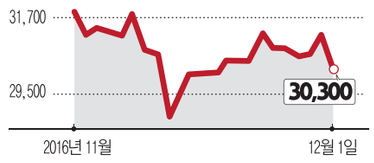
OPEC 감산합의에… 정유·화학주 '방긋'

S-Oil·SK이노·금호석유 등 상승
조선업종도 활기… 항공주 하락
국제유가 추세적 상승엔 "글쎄"
실제 감산 이행될지도 확신 못해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2008년 이후 8년 만에 원유 생산량 감축을 합의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원유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정유·화학·조선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S-Oil은 전날보다 2.38% 상승한 8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이노베이션(0.66%)과 GS(0.55%)도 각각 상승 마감했다.

금호석유(4.79%)와 OCI(4.89%), 롯데케미칼(5.75%), 한화케미칼(3.44%), LG화학(1.32%) 등 화학업체들의 주가도 일제히 뛰었다.

정유·화학주의 동반 강세는 국제유가 상승 기대감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OPEC 회원국들은 하루 최대 산유량을 325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9.3% 급등한 배럴당 49.44달러로 장을 마쳤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9% 넘게 뛰며 50달러선을 회복했다.

조선업종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OPEC의 감산 결정으로 해양플랜트 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5.63%, 현대미포조선은 2.75% 올랐다. 삼성중공업도 5.90% 상승했다.

반면, 항공 관련주는 유가 상승 우려로 약세를 보였다. 대한항공은 3.04% 하락 마감했으며,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도 각각 3.61%, 4.68% 내렸다.

원유 생산량 감축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정제 마진 확대는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를 지적하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란 것이 증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정유·화학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충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의로 세계 정유·화학시장 참여자들이 재고 축적으로 돌아서면 정제마진과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는 모두 개선될 확률이 높다"면서 "국내 정유·화학업체들은 실적 개선으로 주가가 한 단계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합의는 조선업종에도 반가운 얘기다. 유가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 중장기 해양 프로젝트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재천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9월 하순부터 에너지 업체들이 보유한 일부 유전의 손익분기점(BEP)이 50달러 내외로 낮아지면서 몇몇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가 신규 입찰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선박 수주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경계감을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제유가의 추세적인 상승 전망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우선, 합의가 실제 감산으로 연결될지 확신할 수 없다. OPEC은 개별 회원국들이 생산량 감축 할당량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제할 수단이 없다. 김효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원유시장 수급구조를 고려하면 OPEC 결정이 중장기 유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정책도 변수다. 트럼프는 자국 내 원유 생산 증가를 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유가 상승폭은 50달러선에 안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혜은 기자 euna@

투자자문사 계약액 16조 1년여만에 절반이하 추락

투자자문회사의 자문·일임 계약액이 1년 새 반토막 났다. 지난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제도가 신설되면서 대형 자문사들이 자산운용사로 전환했고 기관투자자 자금도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9월 말 기준 전업 투자자문사의 총 계약액이 16조3000억 원으로 지난 6월 말 대비 1조5000억 원(8.4%)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문사의 계약액은 지난해 6월 말 38조4000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1년 만에 절반 이하 수준까지 추락했다.

현재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계약액은 각각 6조7000억 원, 9조6000억 원이다. 이는 각각 전 분기보다 4000억 원, 1조1000억 원 줄었다. 기관투자자 계약 해지 규모가 1조8000억 원에 달했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환한 회사도 4곳으로 5000억 원 규모였다.

올 7~9월 투자자문사의 순이익은 146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0억 원 증가했다. 계약액 감소로 영업 수익이 줄었지만 비용을 68억 원가량 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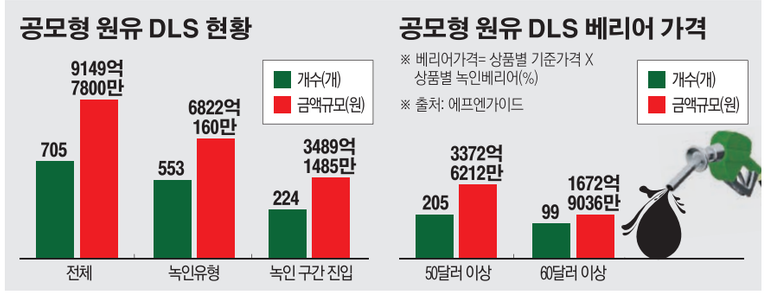
회사별로는 159개사 중 55.3% 수준인 88개사에서 적자를 냈다. 71개 회사는 순이익이 전 분기보다 개선됐다. 같은 기간 연 환산 주가수익비율(ROE)은 9.9%로 전 분기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9월 말 총 임직원 수는 1215명으로 전 분기보다 59명(4.6%) 감소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원유가격 기초자산 DLS도 웃을까

3489억이 원금손실 구간
유가 70달러선 돼야 탈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 석유 감산에 합의하면서 원유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둔 파생결합증권(DLS)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일 이투데이와 에프엔가이드 분석에 따르면 원유가 기초자산인 공모·녹인유형 DLS 553개 중 40%가 넘는 224개 상품이 원금손실(Knock-in·녹인) 구간에 있다. 3489억 1485만 원 규모다.

녹인베리어 가격이 원유 기초자산 50달러 이상인 상품이 205개(3372억6212만 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녹인베리어 가격이 배럴당 60달러보다 높은 상품도 99개, 1672억9036만 원 규모다. 최근 1년간 서부텍사스유(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등 원유 가격이 배럴당 53달러를 넘은 적이 없어 이들 상품은 원금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OPEC이 감축을 합의하면서 손실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배럴당 원유 가격이 최소 55달러에서 7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유 가격이 70달러 선까지 오를 경우 197개 상품 3289억 원어치가 녹인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조기상환 조건을 상품별 기준 가격의 80% 수준으로 설정했을 때 현재 녹인 구간에 있는 상품 중 7개는 조기상환을 달성하는 반전도 기대해볼 수 있다. 유가가 80달러로 치솟으면 조기상환되는 녹인 ELS 규모도 66개로 크게 늘어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원금 손실이 기정사실이었던 녹인 DLS들이 이번 감산 합의로 빛을 보게 됐다"며 "다만 원유 상승 추세가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지가 또 다른 변수"라고 말했다.

현재 녹인 구간에 진입한 DLS들은 대부분 2014년 유가가 고점일 당시 발행된 상품이다. 통상 DLS의 만기가 3년이어서 이들 상품 역시 내년 중순에 대부분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까지 유가가 크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 손실 회복을 눈앞에 두고도 원금을 잃은 채 돌려받아야 한다.

정다운 기자 gamja@

통합 한달 앞둔 KB·현대證 조직개편 마무리 단계 임금·복지조율은 아직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통합(KB증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력 조정, 조직개편 등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금 등 양사 복지체계 조율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금융은 지난 6월 1일 양사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단(통추)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통추 출범 이후 임금체계 등 복지 관련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KB금융지주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 관계자는 "통합 이후 양사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된 만큼 임금 문제는 두 대표 중심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증권 노조 측은 상이한 KB투자증권 임금 체계와의 조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대증권은 직급별 임금 테이블이 있지만 KB투자증권은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다르다. 평균 고정임금 역시 현대증권이 KB투자증권보다 많은 반면, 같은 연령대에서 직급은 KB투자증권이 오히려 높다.

노조 측은 양사 대표가 협의 중인 임금체계 등에 대한 내용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대증권 관계자는 "통합 과정에서 두 회사 규모가 다름에도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통추 출범 이후 인력 구조조정과 통합 조직개편 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우선 KB투자증권은 오는 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기로 했고, 현대증권도 앞서 전체 직원 2239명 중 17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아울러 '통합 전후 100일 플랜'을 마련, 내년 1월 1일 '통합출범식'을 비롯해 '화학적 결합을 위한 행사' 등을 준비 중이다. 양사 정보통신(IT) 통합도 내년 5월 중 최종 마무리로 예상된다.

조직도도 조정된다. 윤경은 사장 중심으로는 현대증권 여의도 본사 건물에 경영관리부문(홍보, 인사, 총무, 인재개발 등), 경영기획본부(전략기획, 재무관리 등)를 비롯해 리테일 부문 등이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전병조 KB투자증권 사장이 머무는 KB금융센터에는 홀세일(채권사업, 법인영업, 상품운용 등), 투자은행(IB) 부문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미 대선후보 힐러리 "신재생에너지 비중 33% 확대"
빌 게이츠 등 '청정에너지'에 200억 달러 투자
네덜란드 2025년부터 전기차만 판매 허용 추진

봄의 미세먼지, 여름의 누진세 등 생활밀착형 문제부터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까지 해결해줄 '에너지 혁명'이 온다!

에너지혁명 2030



토니 세바 지음 | 박영숙 옮김 | 15,000원

한국인이 된 일본인이 말하는
"독도는 왜 한국 땅인가?"

말만으로는 나라의 땅을 지킬 수 없다.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증명하는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독도, 1500년의 역사



호사카 유지 지음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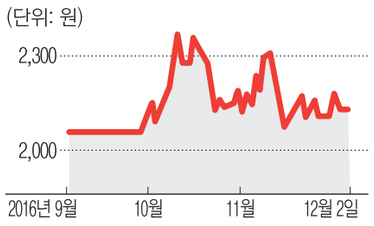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이번엔 130억 中 납품…씨아이에스 '코스닥行 청신호'



한국3호스팩 주가 추이
(단위: 원)



한국3호스팩을 통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씨아이에스가 중국 납품 계약을 연이어 따냈다.

씨아이에스는 중국 2차전지 전문제조사인 강소탠파워전원유한회사(이하 탠파워)와 130억 원 규모의 2차전지 제조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설비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탠파워는 중국 내 공구용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 1위 기업으로 공구용 2차전지 외 전기차용 2차전지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중국 동풍, 쭝타이 등 완성차 자동차 제조 기업에 전기차 배터리팩을 납품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생산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2차전지 생산설비 기업…한국3호스팩 합병 이전상장 추진
DLG와 135억 이어서 리튬배터리 1위 '탠파워'에 설비 공급

탠파워는 최근 총 1700억 원의 시설 투자를 진행해 2기의 2차전지 생산라인를 건설 중이다.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 씨아이에스의 코터(COATER), 프레스(PRESS), 슬리터(SLITTER) 등 2차전지 제조 설비가 신규 공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계약 규모는 약 130억 원 규모로, 내년 2월 납품을 목표로 현재 해당 설비 제작에 들어갔다. 건설 중인 신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용 2차전지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씨아이에스는 이번 계약으로 내년 수주 잔고를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 내 전기차용 2차전지 설비 공급의 레퍼런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탠파워는 현재 건설 중인 전기차용 2차전지 생산 라인 외 추가로 2기의 생산라인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씨아이에스의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씨아이에스 관계자는 "중국 2차전지 제조 설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며 "한 번 파트너를 결정하면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는 중국 기업의 특성상 중국 내 씨아이에스의 입지 우위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씨아이에스는 탠파워와의 2차전지 제작 설비 계약에 앞서 전기차용 2차전지 제조 기업인 DLG와 135억 원 규모의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중국 공장에 설비 설치를 진행 중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크루셜텍, 지문인식 PC마우스…일본 등 글로벌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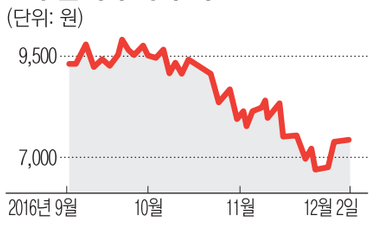
중요 파일 본인 클릭해야만 열려
보안사고·해킹 차단 긍정적 반응

모바일 생체인식 솔루션 전문기업 크루셜텍은 센서IC 및 알고리즘 전문 자회사 캔버스바이오와 함께 PC마우스에 들어가는 BTP(모바일 지문인식 모듈) 솔루션 공급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크루셜텍은 BTP 모듈을 만들고, 캔버스바이오는 알고리즘과 인증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세트업체에 공급하는 형태다. BTP가 탑재된 마우스는 일본 등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된다.

지문인식 마우스는 PC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마우스에 크루셜텍의 대표 제품인 BTP를 결합한 새로운 입력장치이다. 마우스의 검지 손가락 위치에 BTP를 탑재해 마우스에 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별도의 번거로운 동작 없이 자연스럽게 지문인식이 가능하다.

크루셜텍 주가 추이
(단위: 원)



지문인식 마우스를 이용하면 윈도 부팅 시 지문인식으로 간편히 계정 로그인을 할 수 있고, PC 내 중요 파일을 본인이 클릭할 때만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난 시에도 본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 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파일마다 일일이 키보드 패스워드 설정을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또한, 가상 드라이브나 클라우드의 사용자 인증, 출퇴근 확인 연동 등 지문인식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FIDO(국제 온라인 인증 컨소시엄) 공인을 받은 캔버스바이오의 보안인증 솔루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크루셜텍은 초기에는 보안이 중요시되는 금융기관,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B2B 마케팅에 치중하고, 점차 일반 소비자 대상의 B2C 전략으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시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크루셜텍 관계자는 "지문인식 마우스를 통해 보안사고 및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서 공공 기관 및 기업 보안 담당자들이 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공급처 외에도 일본 및 해외 다수의 고객사들과 내년 상반기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공시돋보기

택스리펀드 강자 '글로벌텍스프리' 200억 실탄 장전 유럽시장 정조준

하이쎌 자회사 유상증자 실시
유럽계 자산운용사 투자 유치
전략적투자자 '파트너십' 기대
3년 이내 매출액 1200억 목표

하이쎌 자회사인 글로벌텍스프리(이하 GTF)는 운용자산 64조 원 규모의 유럽계 자산운용사인 아디안(ARDIAN)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자금조달 금액은 총 200억 원 규모다. ARDIAN 100억 원, 프리미어 성장전략 M&A 사모펀드(PEF) 50억 원, 하이쎌이 50억 원을 투자하며 신주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GTF의 증자 후 기업가치는 약 1700억 원이며, 유동자금은 약 500억 원이다.

아디안은 프랑스 생명보험사 악사(AXA)계열 자산운용사로서 파리, 런던, 뉴욕, 싱가포르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 12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현재 사모투자펀드(PE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PEF 직접투자, M&A 인수금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 130여 개의 기업과 1300여 개의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이 중에는 밀라노와 런던공항 등 유럽 소재의 공항 6개도 포함돼 있다.

이번 투자는 아디안이 재간접펀드를 통한 투자가 아닌 순수 직접투자다. 한국 기업에 직접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교보생명 이후로는 처음이다. 아디안은 FI(재무적투자자)뿐 아니라 SI(전략적투자자)로서 향후 유럽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논의한다.

GTF는 이번 아디안 투자유치가 향후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유럽뿐 아니라 호주,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갈 계획이다.

강진원 GTF 대표는 "현재 유동자금은 유럽 및 신규시장 진출에 사용될 예정이며, 아디안의 투자로 유럽 진출이 용이해졌고 적극적인 해외 택스리펀드 시장 진출을 위한 세부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법인들의 실적 성장세에 힘입어 향후 3년 안에 매출액 1200억 원, 영업이익 3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태성 기자 tskwon@

에이티젠, AAI헬스케어와 '토털 건강관리 서비스'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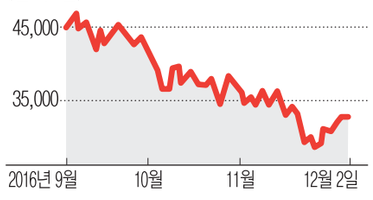
NK세포활성도 검사 활용
헬스케어 상품 출시 MOU

질병진단키트 개발기업 에이티젠이 AAI헬스케어와 손잡고 맞춤형 토털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다.

NK뷰키트를 개발해 판매 중인 에이티젠은 AAI헬스케어와 NK세포활성도 검사를 활용한 새로운 헬스케어 상품 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AAI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으로 24시간 의료상담 전화 서비스와 해외 긴급의료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심리 전문 상담과 암 전문 케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헬스케어 기업이다.

에이티젠 주가 추이
(단위: 원)



에이티젠은 AAI헬스케어이 A+그룹과 AAI사가 합작을 통해 만든 회사이며, AAI사는 세계 180개국에 9700여 명의 임직원과 에어 앰뷸런스(Air Ambulance) 45대를 운영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회사라고 설명했다.

에이티젠은 이어 AAI헬스케어는 국내외 최다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2개 고객사(생명보험사 9개, 손해보험사 7개, 기타 6개 기업)의 90만 명의 임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에이티젠 대표는 "올해는 NK뷰키트의 영업망 확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가시적인 결실이 있었다"며 "향후 이를 통해 매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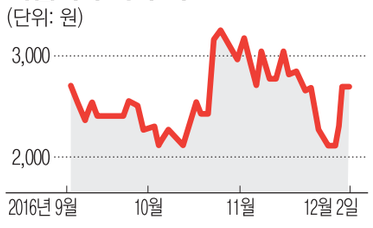
조선·해양 기자재 '디엠씨', 中 최대 조선그룹과 MOU

DSIC와 기술·영업·생산 합작
中진출 초읽기…글로벌화 협력

조선 및 해양 선박 기자재 업체 디엠씨가 중국 기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 디엠씨는 CSIC(중국선박중공집단공사) 산하 DSIC(대련선박중공집단유한공사)와 기술과 영업, 생산 합작에 의한 중국 및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CSIC는 중앙정부관리의 10대 중공그룹 중 하나인 특대형 국유기업으로 1999년 설립된 총자산 2000억 위안을 넘는 중국 최대 조선 및 해양 플랜트 그룹이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국내외 민간·군수용 선박 생산 및 엔지니어링, 국내외 투자와 융자, 그룹 회사 경영과 구성원의 국유자산화 및 기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다. 이번 MOU 체결 주체인 DSIC는 CSIC 그룹을 대표하는 조선해양플랜트 집단으로 조선의 신조 및 수리선, 해양 시추 설비 건조, 선박용 엔진 제작, 신소재 개발, 마린 보일러와 프로펠러 제조, 호텔·금융 사업 등 자체 산하 22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디엠씨 주가 추이
(단위: 원)



김영채 디엠씨 대표는 "이번 MOU 체결은 디엠씨와 DSIC 그룹 내 자회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오랜 교류가 계기였다"며 "육상, 플랜트 분야의 오랜 영업과 경험을 살려 조선해양 부분을 넘어 향후 제철 설비 및 플랜트 사업까지 확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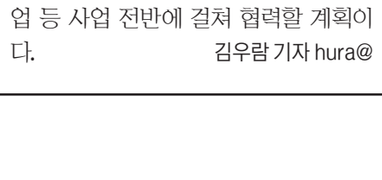
권태성 기자 tskwon@

유앤아이, 척추치료용 의료기 엘'디스큐 日 수입허가 취득

금속 임플란트 개발기업 유앤아이는 척추치료용 미세침습 의료기인 엘'디스큐(L'disQ)가 최근 일본 보건당국(PMDA)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2009년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2014년), 브라질(2015년), 멕시코(2016년)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일본 정형외과용 의료기 시장은 올해 약 52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2008년 국내 판매허가를 취득한 엘'디스큐는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 디스크 탈출로 발생하는 하지방사통, 만성요통 등을 치료하는 1회용 의료기다.

유앤아이 주가 추이
(단위: 원)



김우람 기자 h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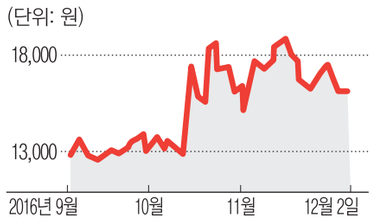
인포마크, 축우관리 IoT 도전
유라이크코리아에 지분 투자

스마트통신기기 전문기업 인포마크는 사물인터넷(IoT) 기업 유라이크코리아와 지분투자 및 IoT 기반 축우관리시스템 '라이브케어(Livecare)' 사업협력을 위한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라이브케어는 생체정보 센서가 탑재된 바이오 캡슐을 소에 경구 투여해 개체별 생체 변화를 실시간 감지와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 질병의 사전 예방은 물론 개체의 품질, 발정 및 출산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인포마크 주가 추이
(단위: 원)



인포마크는 전략적투자자(SI)로 5억 원 지분 투자와 함께 제품의 개발, 제조, 영업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협력할 계획이다.

김우람 기자 hura@

보안솔루션 업체 '넷크루즈' 비즈니스 관제로 영역 확장

'이지 엔터프라이즈' 국내 총판

종합 보안 솔루션 업체 넷크루즈는 이지이노베이션스(eG Innovations Pte, Ltd)의 제품인 '이지 엔터프라이즈(eG Enterprise)의 국내 총판 계약을 맺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전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지 엔터프라이즈 국내 총판 계약을 통해 인프라 관리, 보안 관리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관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넷크루즈의 설명이다.

이지 엔터프라이즈는 엔드투엔드(End-to-End) 서비스 인프라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하나의 에이전트로 전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게 특징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개념의 제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2011년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사적 자원관리(ERP)에 처음 도입한 이후로 한화 테크윈, 세아그룹, 금호석유화학 등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넷크루즈는 IT 관리 분야의 솔루션 개발 및 공급사로서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시스템관리시스템(SMS), 위협관리시스템(TMS), 통합로그, 보안정보이벤트관리시스템(심·SIEM), 개인정보유출이상정보모니터링시스템(PIS) 등의 자체 개발 제품 등을 보유하고 있다.

김선욱 넷크루즈 영업본부장은 "국내 총판을 계기로 국내 가상화 및 망 분리 모니터링 시장 개척과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시장, 직관적인 장애 대응과 영향도 분석이 필요한 장애 대응 고도화 시장, 그리고 비즈니스 상황의 가시성을 위한 시장 등에 해당 상품을 활용한 영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LG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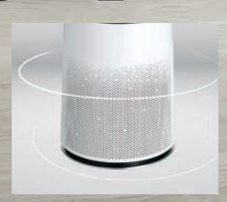
구석구석 더 멀리
순수한 공기를 보냅니다

지금까지의 공기청정기에 없던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클린부스터가 순수한 공기를 집안 곳곳 멀리까지 보냅니다

퓨리케어만의 신개념 청정시스템



클린부스터
방향을 움직이며
순수한 공기를
구석구석 멀리까지
내보내다



360° 청정
360도 사방에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다

공기청정기의 새로운 움직임
LG PuriCare™
360° 공기청정기